

2022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목 차

2022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C o n t e n t s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1. 개요	2
가. 시장전망	2
나. 주요 경제지표	2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3
가. G20 발리 정상회의 개최	3
나. 워드 코로나, 일상으로 전환	4
다. 세계 7대 경제 대국 성장을 위한 드라이브	6
라.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9
마. 내년 발효가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대외 통상협정	10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3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3
가. 정치 환경	13
나. 경제 환경	15
다. 산업 환경	19
라. 정책·규제 환경	27
2. 시장분석	42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42
나. 교역	53
다. 투자	62
라. 주요 프로젝트	66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74
가. 교역	74
나. 투자	83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87
III. 진출전략	93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93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94
3. 한-인도네시아 경험을 통한 진출전략	105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117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120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22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123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124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21년 인니 경제, 점진적인 회복 추세 속 코로나19 불확실성 상존

- 작년 마이너스 성장(-2.07%)에서 올해 플러스 성장(3.5~4.3%)으로 반등 성공 전망
 - '20년 2분기, 20여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기록 후 점진적인 경제 회복 추세*
 - * 분기별 성장률 전망: '21.1Q(-0.74%) → '21.2Q(7.07%) → '21.3Q(5.0%) → '21.4Q(4.5%)
- 다만, 상존하는 코로나 19 변수에 따른 경제 하방 압력 존재
 - 6월 중순부터 약 2개월간 이어진 코로나 19 변이 폭증으로 경제 성장 타격
 - 현재(10.16)까지 시행중인 사회활동제한 정책(PPKM)이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 중

■ '22년에는 본격적인 경제 상승 기대, 다만 외부 변수에 따라 일부 조정

- 정부 및 주요 기관, 내년 예상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5%대 수준 전망
 - 코로나 19 변수 축소로 경제 활동 증가, 정부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
- 최대 교역국인 미(테이퍼링)·중(경제 성장 부진) 변수가 내년 경제 성장에 영향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f)
인구	백만 명	253.3	255.8	258.2	260.6	262.9	265.3	267.5	269.8	272.0
명목 GDP	십억 달러	890.5	861.1	932.1	1,011.0	1,042.1	1,119.0	1,058.8	1,133.9	1,147.3
1인당 명목GDP	달러	3,515.6	3,366.3	3,610.0	3,879.5	3,963.9	4,217.9	3,958.1	4,202.7	4,218.0
실질성장률	%	5.0	4.9	5.0	5.1	5.2	5.0	-2.1	3.0	5.0
실업률	%	5.9	6.2	5.6	5.5	5.3	5.2	7.1	7.6	6.8
소비자물가상승률	%	8.3	3.3	3.1	3.7	3.2	2.6	1.7	1.9	3.5
재정수지(GDP대비)	%	-2.1	-2.6	-2.5	-2.5	-1.8	-2.2	-6.1	-6.0	-4.9
총수출	백만 달러	1,752.9	1,491.2	1,444.7	1,688.8	1,807.3	1,684.6	1,633.6	2,223.4	2,257.0
(對韓 수출)	"	106.2	76.5	70.1	80.8	95.3	72.1	65.1	88.6	89.9
총수입	"	1,683.1	1,350.8	1,291.5	1,500.7	1,809.5	1,649.5	1,351.4	1,855.4	1,958.2
(對韓 수입)	"	118.5	84.3	66.8	81.2	90.4	84.2	68.5	94.0	99.2
무역수지	백만 달러	69.8	140.5	153.2	188.1	-2.3	35.1	282.1	368.0	298.8
경상수지	"	-275.1	-175.2	-169.5	-162.0	-306.3	-302.8	-44.5	-21.0	-81.7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2,440	13,795	13,436	13,548	14,481	14,146	14,577	14,325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70.8	59.3	-122.2	20.8	80.5	33.8	N/A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85.3	292.7	289.6	322.4	293.1	282.1	286.7	N/A	N/A

주: 2020년은 추정치(EIU), 2021년은 전망치 기업(EIU), 대한수출입은 EIU 전체 수출입 증감율을 반영해 산출
 자료: 인니 통계청(한국 교역), 인니 중앙은행(환율), BKPM(외국인직접투자), UNCTAD(해외직접투자), EIU(기타 전번)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 추진
 - G20 발리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극복과 경제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
 -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 성장 드라이브 추진
 -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간 마련
 - 교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통상협정, 내년도 발효가 기대되는 한-인니 CEPA

가. G20 발리 정상회의 개최

■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입지 및 영향력 확대 기대

- 발리 정상회의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성장 성과를 세계에 알릴 기회
 - 역사상 처음으로 G20 의장국을 맡게 되었으며('21.12.1~'22.11.30), 발리에서 정상회의 개최 예정('22.11)
 - 총 20개국 약 6,500여명의 대표단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다수의 취재진들이 방문 전망

G20 발리 서밋 주요 내용

 <p>Indonesia G20 Presidency 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 • 인도네시아 3가지 주요 중점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로부터 경제 회복과 글로벌 국가 간 연결 - 전 세계 상호연결성 확대를 위한 디지털 문해력/기술 향상 - 국가 간 데이터 이동
--	---

자료: 인도네시아 정부 G20 홍보 사이트(<https://g20-indonesia.id/>)
정보통신부 대외 언론 홍보문(No. 270/HM/KOMINFO/08/2021)

- 예상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드라이브 추진
 - 내년 정상회의 주제는 '함께 회복, 더 강한 회복'으로 정해짐에 따라 예상 의제는 코로나 19로부터 경제회복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등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보다 주도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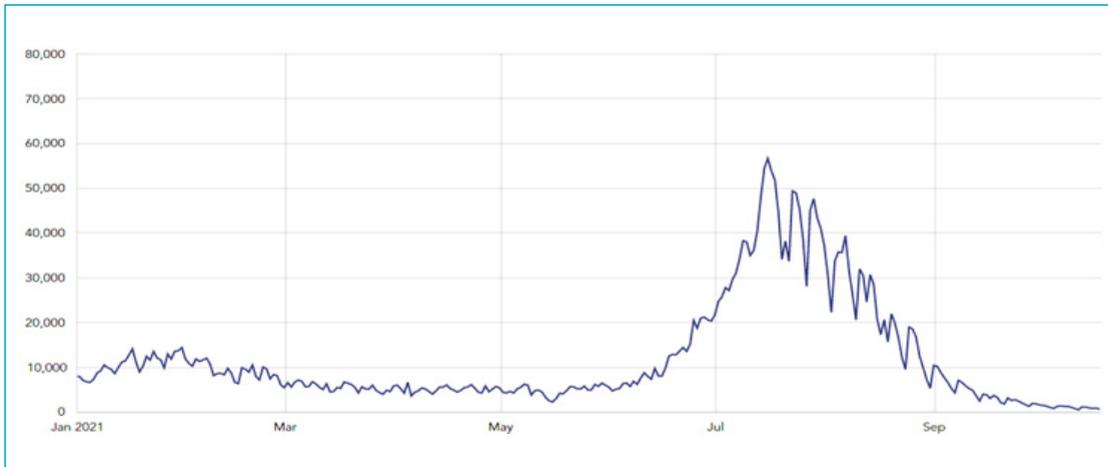
나.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전환

■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동향

- 비정기적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부침을 겪고 있으나 점차 안정화 추세
 - 올해 초(영국발 델타 변이), 6월 중순(인도발 델타 변이) 등 국내 코로나 19 확산
 - 특히, 6월~8월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가 폭증하며 의료 인프라가 한계까지 다다랐으나 8월 이후 점차 안정을 찾고 있음
 - * 10.16 기준 인니 백신 접종률을 38%로 싱가포르(80%), 말레이시아(75%), 베트남(43%) 등 대비 저조
 - ** 7월 수도 자카르타 병실 점유율은 90%에 육박, 자가 치료를 위한 의약품 사재기 발생

2021년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 추이

(단위: 명)



자료: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

- 주요 언론에서는 수도 자카르타는 이미 집단면역에 도달했다고 보도*
 - * 집단 면역 조건인 백신 부분(1차 접종자 수 목표 대비 116.9% 달성한 1천 45만명)과 감염 부분(자카르타 주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를 경험해 항체 생성)모두 충족(CNN Indonesia)
- 연말 대유행 재발생 우려에도 과거와 같은 폭증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
 - 6월 코로나 폭증 상황을 예상한 호주 그리피스 대학 디키 부디만 교수는 올해 12월 무렵 3차 유행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측*
 - *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활동제한 완화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급증하기 때문
 -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백신 접종 확대와 의료 인프라 충원 등을 근거로 저번과 같은 대유행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위드 코로나19를 위한 정부의 노력

-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시행 중

* 자바-발리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

- '21.10 기준, 지역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제한 정도를 달리하여 시행*(~11.15)

자바-발리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주요 내용('11.9 기준)

구분	2단계 지역	1단계 지역
출근비율	비필수부분 출근 50% (백신접종자에 한해)	비필수부분 출근 75% (백신접종자에 한해)
쇼핑몰·상가	21시까지 운영, 50% 수용 (12세 미만 부모 대동 입장가능)	22시까지 운영, 100% 수용 (12세 미만 부모 대동 입장가능)
식당·카페	쇼핑몰과 비슷하게 적용, 야간 운영인 경우 24시까지 운영	
관광	25% 수용	75% 수용
체육시설	헬스장 50% 수용	헬스장 75% 수용
국내이동	자바-발리 출도착시(항공 기준) 1차 백신(PCR 72시간 내), 2차 백신(신속항원 24시간 내)	

주: 수도 자카르타 전역, 탕그랑, 보고르, 브카시 등 주요 지역은 1단계

자료: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외국인 입국 요건 완화

- 10.14일부 국제적인 관광지 발리와 리아우제도를 1년여 만에 일부 국가(한국, 중국, 일본, UAE, 뉴질랜드 등)에게 개방
- 같은 날 인도네시아 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기간 단축(8일→5일)도 발표하는 등 외국인 입국 요건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
- 아세안 타 국가 자가격리 면제로 국내 격리완화 여론 확산에 따라 11.2일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 자가격리 기간 추가 단축(5일→3일) 실시

- 위드 코로나를 위한 필수 요건인 백신 접종 확대와 인프라 구축 노력 지속

- '22년 1분기까지 전체 인구의 77%인 2억 8백만 명 접종 목표로 일일 백신 접종 지속 확대('21.10.20 기준 목표 대비 52% 수준 달성)
-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약 3억 3천만 회 분량 백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백신 외에도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조달 추진('21.10 기준)

인도네시아 백신/치료제 조달 추진 현황(10.18 기준)

구분	식약청 긴급사용 승인 완료(현지 접종 중)	개발/조달 추진 중
제품명(국가)	코로나백(중), 시노팜(중), 아스트라제네카(영), 모더나(미), 코미나티(미), 스푸트니크V(러), 안센(미), 콘비데시아(중), 바이오파마 코로나백(중), 지피박스(중), 렉티도나(한)	제넥신-칼베 파마(한), Merah Putih(인나), 몰누피라비르(미)

자료: 인도네시아 식약청, 현지 언론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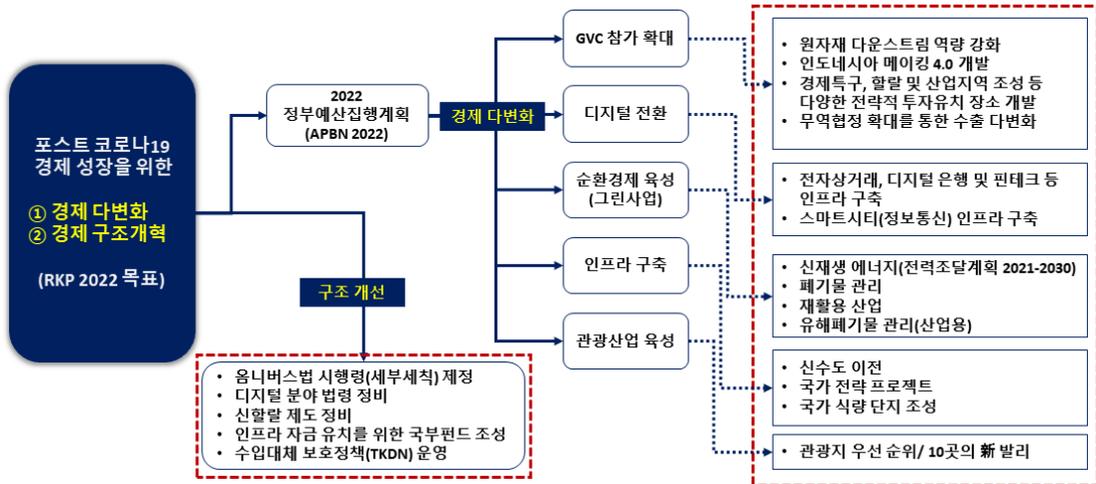
- 내년도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5조 루피아 배정(올해 대비 9.4% 증가), 해당 예산 절반 가량이 백신 접종과 3T(검사, 추적, 치료) 등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의료 인프라 개발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전망
- 이 밖에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사전근로카드 발급,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정책 지속 예정

다. 세계 7대 경제 대국 성장을 위한 드라이브

■ (2022 경제개발계획 개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성장을 위한 드라이브

- 내년 정책 주안점은 ①경제 다양화, ②경제 구조 개혁 등을 통한 경제 발전

2022년 국가 개발 계획 주요 내용(RKP 2022)



자료: RKP 2022,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정리

-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재정 확대 기초를 유지할 예정
 - 올해와 같이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
 - * 384.8조 루피아('22년 예상)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7.1%)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
 - 다만,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어 지난 2년 대비 적자 폭은 소폭 감소
 - * 지출(2,714조 루피아), 세수(1,846.1조 루피아) / 2022 정부예산 편성안(국회 논의 중, '21.10)

-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정책 집행이 어려워 민간협력사업(PPP), 국가간 협력(ODA, EDCF)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

■ (세부내용-경제 다변화) 원자재 위주 교역 구조 탈피를 위한 다변화 추진

- GVC 참가 확대를 위한 유망 제조업 분야 육성 지속 추진
 - 의료기기, 제약분야가 추가된 'Making Indonesia 4.0' 유망 제조업 육성 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자재 다운스트림(Downstream)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제련소(Smelter) 건설
 - 한-인니 CEPA 협정과 같은 통상협력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산부품 사용 요건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독려
-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
 - 급속도로 성장하는 정보통신 분야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내년에는 지원 정책 및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음
 - * 인도네시아 핀테크협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2020)
 - 전자상거래, 디지털 은행, 핀테크, 정보보안 분야가 정부에서 주목하는 주요 분야로, 내년에는 법령 신규 제정 및 개정과 스마트시티 인프라 사업이 계속될 예정
-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환경제 육성
 -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에 부합하고, 수입 적자의 원인인 재래식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탄소감축 계획 수립
 - * '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전략'(21.9)과 국가탄소감축수정계획(21.10) 수립
-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기본 인프라 구축
 - 신수도 이전을 위한 신수도법 국회 제출(21.10), 코로나 19로 순연된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내년도 재개 기대
 -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품 분야 대규모 국가 식량 단지 조성을 통해 내수 산업 활성화와 식량 안보 추진 지속
-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분야 활성화 추진
 - '21.10월부터 국제적인 관광지 발리섬 일부 국가 대상 개방
 -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다 많은 관광지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
 - * 10곳의 새로운 발리 만들기 프로젝트

■ (세부내용-구조개혁)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받던 환경 개선 노력 지속

- 작년 옴니버스법 공포 이후 세부 시행령 발표, 내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규칙 제정 전망
 - 시행령은 노무, 건설, 인허가, 환경보호, 무역 등의 정부령 45개와 정부조달, 투자분야 개방 등에 대한 대통령령 4개로 이루어짐
 - 시행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일부 내용(인센티브 세부조건, 일부 산업 인허가 요건 등)에 대해 세부 규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
-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투자기구(INA,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 설립 및 자금 조성
 - 옴니버스법을 근거로 국부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기구 설립, 초기 자본금 및 운영규칙에 관한 대통령령 정비 완료('21.1)
 - INA 자체 출자와 주요국 투자를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도로, 공항, 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계획
 - 자금 조성을 위해 UAE,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투자 논의 진행 중
-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된 10개년 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 발표
 - 코로나 19로 인해 연간 발표를 원칙으로 하나 작년에 미발표, 올해 2년만에 발표('21.10)
 - 과거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전력발전사(IPP) 운영 확대, 기존 재래식 발전소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
- 인도네시아 세법, 저소득층 보호와 고소득층 과세를 골자로 개정
 -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이 4개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
 - 최하위 과세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고소득자 대상 최고세율이 인상됨
 - '21년 10월 발표되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일이 일부 소요될 것으로 예상

과표에 따른 소득세율

단위: 루피아, %

연간 과세표준	세율
0 ~ 60,000,000	5%
60,000,000 ~ 250,000,000	15%
250,000,000 ~ 500,000,000	25%
500,000,000 ~ 5,000,000,000	30%
5,000,000,000 ~	35%

자료: 2021 인도네시아 투자 실무 가이드북, UU 7/2021(조세법 개정)

라.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 코로나 19가 미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시장

- 코로나 19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한 정보통신 분야
 - 작년 대부분의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정보통신 분야는 10.6% 성장
 - 이는, 보건의료 분야(11.6%)와 함께 유일하게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한 분야
- 높은 디지털 발전 잠재성이 코로나 19로 인해 발현
 - 섬이 많은 군도국가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높음
 - 전체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80년대 이후 출생인 MZ세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능숙
-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분야 높은 성장 기대
 - 아세안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유한 인니 전자상거래 분야는 '25년 1,2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e-Conomy SEA 2020)
 - 증가하는 모바일 활용 대비 부진한 제도권 금융 이용 문제 대안으로 핀테크 분야가 부상, 향후에도 전자상거래와 연계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핀테크 거래액 '18년 23조 루피아에서 '21년 8월 기준 102조 루피아로 급증
 - 코로나 19 치료 대안으로 떠오른 원격의료 분야도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와 건강보험 확대에 향후 진단기기와 연계해 성장할 것*
 - * Dr. Louise Hewitt(현지 1위 원격의료 Alodokter 이사,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메디컬웨비나, '21.9)
 -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교육 격차 확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원격교육 분야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시장 수요가 맞물려 성장 전망

■ 디지털 분야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계속될 예정

- 금융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세부 내용이 지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지불결제, 금융서비스, 디지털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 육성을 위한 로드맵이 이미 수립되었지만, 세부 육성방안은 부족하다는 의견*
 - * 인도네시아 핀테크협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2020)
 - 이에 따라 올해 말 발표 예정인 P2P 분야 신규정이나 디지털 세금과 같이 관련 분야 다양한 정책이 내년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노력 지속
 - 스마트시티로 계획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내년도 공사 재개 전망에 따라 관련분야 수요 발생

-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재래식 인프라의 현대화 작업이 지속 추진될 것*
 - * 전자정부 구축, 스마트 교통, 폐기물 처리, 물관리, 자동화 등
 - ** 내년 인프라 구축 예산은 384.8조 루피아 규모로, 올해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가장 큰 비중 차지
- 정보량이 증가해, 효율적인 정보 저장을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시장도 유망할 것으로 분석
 - * '20년부터 '25년까지 코로케이션 서비스 연 평균 24.5% 증가 전망(Frost & Sullivan), 아마존, 구글, MS,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기업 인니 내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중
-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보안 수요도 증가
 - 정부, 기업 등에 보관된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다수 발생
 - * 토코피디아(1,500만 건), 정부 코로나 추적 앱 E-HAC(100만 건), 건강보험(2억 8천만 건)
 - 이에 따라 인니 정부에서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중에 있으며, 각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보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마. 내년 발효가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대외 통상협정

■ 양국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한-인니 CEPA 협정

- '22년 발효 예정인 한-인니 CEPA 협정
 - '20년 12월 최종 서명 이후 양국 국회 비준 준비 중
 -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 법제화를 거쳐 정식 발효 전망
- 주요 수출품인 플라스틱·고무, 자동차 부품, 기계부품, 철강제품 등 수혜 예상
 - 한-인니 CEPA 발효 시 관세가 단기에 철폐되어 가격 경쟁력 제고 기대
 - 특히, 철강분야 사용자 특별면세제도(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가 이번 협정 초안에 포함돼 중국과 일본 대비 열위였던 품목의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이 외에도 한-인니 CEPA에 명시된 경제협력 분야 다양한 수요 창출될 것
 - 서비스 분야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Ratchet)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 서비스 분야 진출 시 법적 불확실성 일부 경감
 -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 이행약정을 통해 체계적 이행 근거가 마련된 분야 위주 협력 확대 전망
 -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농수산업,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건설인프라 등

■ 성큼 다가온 세계 최대 규모 통상협정 RCEP

- 연내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RCEP
 -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하원(DPR)에게 RCEP 비준 요청 촉구('21.10)
- 비준 추진 중인 국가가 많아 내년 정식 발효를 전망하는 의견 존재
 -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실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
 -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비아세안 5개국 중 4개국(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비준 완료('21.11 기준)
 - 아세안 추가 2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비아세안(한국/11월) 등이 연내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발효가 될 것으로 보임
 - * RCEP 참여국 간 '22년 1월 1일까지 비준을 완료하기로 협의 중(인도네시아 무역부 Jerry Sambuaga 차관, 현지 언론 Bisnis 인터뷰, '21.10)
- RCEP 발효 시 자동차, 철강, 섬유, 기계 등의 업종 수혜 예상
 - 대부분의 품목은 한-인니 CEPA와 중복되어 양 협정 중 관세율 혜택이 높은 쪽을 활용할 수 있음
 - RCEP의 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체결국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코로나 19로 순연되었던 경제 개발 정책 재개
 - 구조개혁과 경제 다변화 정책 본격 추진

가. 정치 환경

■ 현 조코위 정권의 정책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일부 변수들을 유의하여 지켜볼 필요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제한 정책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도는 70%(작년 3월) → 59.3%(올해 9월)으로 하락*
 - * Indikator Politik Indonesia에서 9.17~9.21 1,200여명 상대로 무작위 조사
 - 사회활동제한 정책 연장이 발표될수록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과 시위* 증가
 - * 자카르타. 반둥, 족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 PPKM에 반대하는 시위 산발적으로 발생
- 이슬람 급진주의자에 의한 테러 경계
 - '02년 발리 테러 배후로 지목받는 지마 이슬라미야 네트워크 핵심 간부 포함 53명의 조직원, 독립기념일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신병 파견 시도 혐의로 체포(21.10)
 - 술라웨시섬 마카사르 가톨릭 성당 자살폭탄테러(21.3), 자카르타 경찰청 총격(21.3) 등 이슬람 급진주의자에 의한 산발적인 테러 발생
 - 이에 따라 내년에도 테러 관련 경계 강화 전망

■ 코로나 19로 촉발된 대통령 3선 연임 이슈와 대통령 잠재 후보들의 움직임

- 현 대통령 조코 위도도 3선 연임 개헌 찬반 논쟁
 - 기존 2선에서 3선까지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인도네시아 헌법 개정 추진
 - 인민협의회 의장(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을 포함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지지자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주요 프로젝트 연기로 공약했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3선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

- 개혁에 대해 당사자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찬반 논쟁은 이어지고 있음
- '24년에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인지도 선점을 위한 정치 활동 증가
 - 2년여가 남은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하원(DPR) 의장이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인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와 현 경제조정부 장관인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선거를 위한 사전 정치활동 돌입
 - 이 외에도 주요 언론 조사에 따르면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현자카르타 주지사와 전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노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현국방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음

2024년 인도네시아 잠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2021)

구분	Saiful Mujani Research and Consulting	Charta Politika Indonesia	Indikator Politik Indonesia	Lembaga Survei Indonesia	IndEX Research
순위	1) Jokowi(15.2%) 2) Prabowo(13.4%) 3) Pranowo(6.1%) 4) Anies(6.1%) 5) Uno(3.1%)	1) Prabowo(19.6%) 2) Pranowo(16.0%) 3) Uno(9.3%) 4) Kamil(8.1%) 5) Tri(5.3%)	1) Anies(15.2%) 2) Prpanowo(13.7%) 3) Kamil(10.2%) 4) Uno(9.8%) 5) Prabowo(9.5%)	1) Prabowo(25.3%) 2) Pranowo(14.7%) 3) Anies(13.1%) 4) Uno(9.5%) 5) Kamil(6.9%)	1) Prabowo(20.4%) 2) Kamil(14.1%) 3) Pranowo(13.5%) 4) Agus(7.0%) 5) Uno(6.8%)
조사 기간	2.18~3.8	3.20~3.24	3.4~3.10	1.25~1.31	2.25~3.5
응답자	1,064	1,200	206,983 (실 응답 1,200)	1,200	1,200
방법	전국 무작위	체계적 샘플링	전국 무작위	전국 무작위	주 대표자
오차 범위	±3.07%	±2.83%	±2.9%	±2.9%	±2.9%

주: 인도네시아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21년 1월~3월 각자 여론조사 실시
 자료: 각 여론조사 기관, 한인포스트(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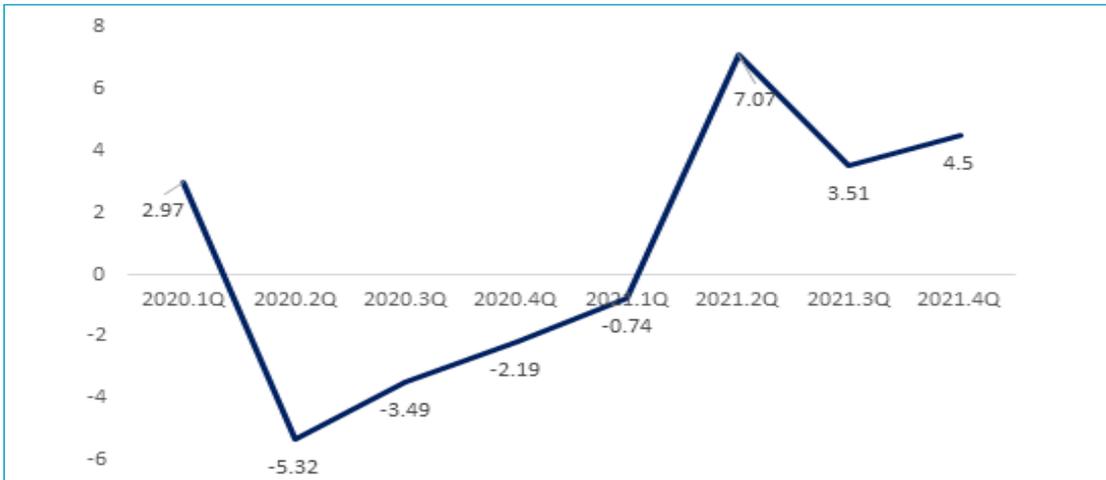
나. 경제 환경

■ 작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니 경제

- 인니 경제는 '20년 2분기 공식 침체에 돌입한 이후 점진적 개선 추세 유지

인도네시아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주: '21.4분기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전망치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 인니 정부 및 주요 기관에서는 플러스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음

주요 기관별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분류	기관명	국제기구			경제연구소	인니정부
		IMF	World Bank	ADB	EIU	중앙은행
전망	2021년	3.2	4.4	3.5	3.0	3.5~4.3
	2022년	5.9	5.2	4.8	5.0	4.6~5.4

자료: 각 기관별 전망치(2021.10 기준)

■ 글로벌 교역 증가 추세, 정부 정책 등 대내외적 요인이 성장 견인

- 주요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교역
 - 8월 기준, 누적 수출액 1,420억 달러(전년 대비 38%▲), 누적 수입액 1,228억 달러(전년 대비 33%▲) 수준

- 특히, 주요 교역국(중·미·일) 누적 교역액은 1,052억 달러(전년 대비 40%▲) 수준
-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천연가스, 팜오일, 석탄* 등) 가격 상승으로 수출액 증가에 비해, 내수 침체로 수입이 부진, 지난 5월 이후 매월 무역수지 흑자 기록 중
- * 특히, 중국에서 인니산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난과 호주산 석탄 수입 불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 '21년 6월 중순~9월까지 강력한 사회활동제한 정책 추진 후 지속 완화
 - **심화** : 필수업종 제외 전체 재택근무, 대중밀집시설 이용 금지, 국가·지역간 이동 제한 등
 - **완화** : 식당/상점 등 영업 재개, 외국인 비자 발급 재개, 지역간 이동 규제 완화 등
 - 백신접종률: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매일 접종자 현황 업데이트

〈'21년, 월별 국가봉쇄 조치 및 백신 접종 현황〉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10일
인도네시아	0.18%	0.61%	2.9%	4.5%	5.9%	11%	17%	23%	33%	43%	46%

자료: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Covid-19),

- 2분기 코로나19 폭증에 따라 잠시 주춤했지만, 견고한 교역 흐름과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내수 점진적인 회복 추세
 - 제조 활동 지표는 연초부터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 대내외적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했으나, 6월 중순부터 확대된 코로나 19 폭증에 따른 조업 중단으로 대폭 감소, 이후 상황 안정에 따라 회복되고 있는 추세
 - 소비 활동 지표는 작년부터 지속된 사회활동제한 정책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제조 대비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다 7월부터 대폭 감소, 이후 다시 점진적 회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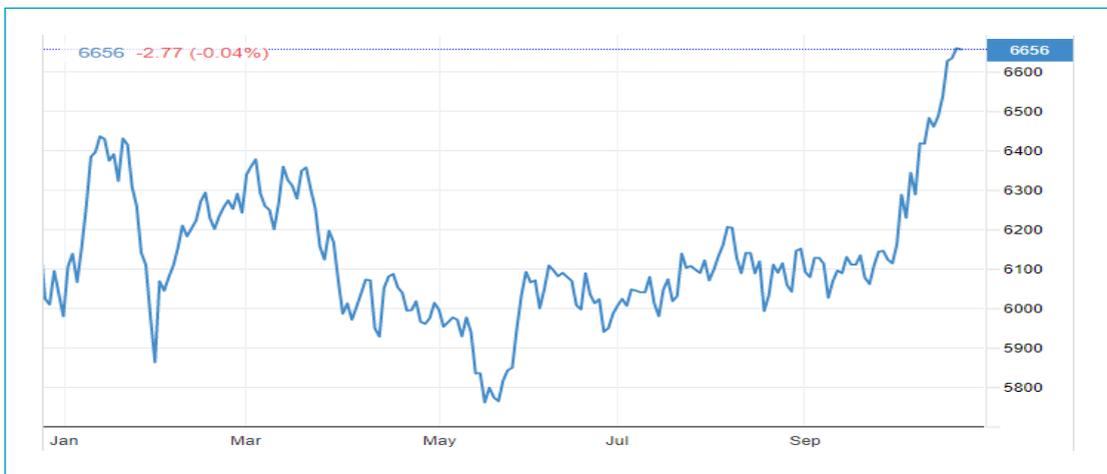
2021년 인도네시아 주요 실물경제 지표

구분 \ 월	단위	2020	2021.1	2021.3	2021.5	2021.7	2021.9	2021.10
제조구매관리자지수(PMI)	확산지수	44.7	52.2	53.2	55.3	40.1	52.2	57.2
소비자신뢰지수	가중지수(%)	93.6	84.9	93.4	104.4	80.2	95.5	113.4
소매판매	2010년=100	197.5	182.0	187.9	227.5	188.5	190.3	193.0
소비자물가지수	2018=100	104.9	106.0	106.1	106.5	106.5	106.5	106.7
고정자본투자	%	-5.0	-0.2	7.5	3.7			

주: 2020년 수치는 연 평균 수치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인니 경기 회복에 따른 견조한 투자 심리도 경제 성장에 기여 중
 - 외국인투자 실적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호조세 유지* 중
 - * 6.8억 달러('20.2Q) → 7.4억 달러('20.3Q) → 7.7억 달러('20.4Q) → 7.7억 달러('21.1Q) → 8.0억 달러('21.2Q)
 - 지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에 따른 안정적인 외환보유고*에 따라 코로나 19 폭증에 따른 일부 부침이 있지만 루피아-달러 환율도 14,000루피아 초반 안정적인 흐름 유지
 - * 9월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은 1,448억 달러로 IMF 권고 3개월치 경상 지급액을 상회
 -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JCI)도 6월 코로나 19 폭증에 따라 잠시 조정되었으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내수 회복 조짐과 견고한 수출 실적에 따라 다시금 상승 추세

2021년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JCI)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부진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22년에도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집행 전망

- 확장 재정 정책 기조가 담긴 내년 정부 예산안(APBN 2022) 국회 논의 중
 - 정부 지출(2,714조 루피아)이 수입(1,846조 루피아)을 상회하는 확대 재정정책 지속 유지, 다만 적자 폭은 지난 2년 대비 소폭 감소* 전망
 - * 1,105.6조 루피아('20년) → 1,006.4조 루피아('21년 예상) → 867.9조 루피아('22년 예상)
 - 올해와 같이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야에 많은 예산 배정*
 - * 384.8조 루피아 규모로 편성 추진, 올해 414조 루피아 대비 소폭 감소
 - 코로나 19 회복을 위한 백신조달, 보건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국가회복프로그램(PEN)은 내년에도 실시 예정, 단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전년 대비 54%가 축소된 321.2조 루피아 규모로 책정

- 확대 재정을 활용하기 위해 내년 국가 계획(RKP 2022)은 내수 활성화에 집중 전망
 - 인도네시아 투자부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200조 루피아 수준으로 증가되어,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와 이를 위한 구조개혁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
 - 더해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제조업 역량 강화 지원, 수출선 다변화 등 다양한 내수 활성화 정책도 같이 추진 예정

인도네시아 정부의 내년도 주요 지표 달성 목표

(단위: %)

지표	단위	APBN 2021	APBN 2022	RKP 2022
실질경제성장률	%	5.0	5.2	5.2~6.0
물가상승률	%	3.0	3.0	2.0~4.0
루피아-달러 환율	루피아	14,600	14,350	14,200~14,800
빈곤율	%	9.2~9.7	8.5~9.0	8.5~9.0
실업률	%	7.7~9.1	5.5~6.3	5.5~6.3
지니계수	포인트	0.377~0.379	0.376~0.378	0.376~0.378
인적자원개발지수	포인트	72.78~72.95	73.41~73.46	73.41~73.46

주: APBN(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RKP(Rencana Kerja Pemerintah)
 자료: APBN 2021, APBN 2022, RKP 2022

- 이 밖에도 현재 시행 중인 내수 진작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인 3.5% 유지 중(21.10)
 - 1,500cc 이하 소형 자동차 구입 시 사치세 면제제도를 기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
 - 코로나19 취약 업종 업종 대상 선납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조기 환급 등 세제혜택 연말까지 연장(재무부 장관령 2021년 82호에 명시된 사업자가 직접 신청)

■ 다만, 일부 변수는 지속적으로 내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로나 19 변수 상존
 - 6월 폭증 상황(2차 유행)을 예상한 호주 그리피스 대학 디키 부디만 교수, 연말 무렵 3차 유행이 올 것으로 우려
 - 2차 유행 시 부족한 인프라, 낮은 백신 접종률 등에 따른 대응 미흡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회활동제한 정책으로 2~3분기 경제 성장에 타격
 - * 미국 블룸버그, 인도네시아를 코로나 19 대응 최악 국가로 선정(21.7)
 - 연말 대유행이 현실화 된다면 내년 초반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 인니 정부와 주요 기관에서는 코로나 19 변수 상존에 따라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을 지속 하향 조정 중

- 제 1위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국인 중국 경기 하방 압력 변수
 -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헝다그룹 사태 등 여러 악재에 따라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현실화
 - * 중국 경제성장률은 18.3%(‘21.1Q) → 7.9%(‘21.2Q) → 4.9%(‘21.3Q)로 지속 하락 추세
 - 특히 전력난 가중에 따라 제조업 분야 부진 심화, 9월 중국 PMI 지수는 49.6을 기록해 코로나 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작년 2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중국 리커창 총리는 11.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시찰에서 여러 원인에 따라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중국 경기 회복 여부가 내년도 인니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
- 더불어 올해 말 예정된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
 -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오는 12월 중순 테이퍼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침
 - 테이퍼링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임
 - 테이퍼링 시행 시 통상적으로 인니와 같은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부분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 * 미 테이퍼링이 신흥국 경제 및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21.10)

다. 산업 환경

■ 인도네시아 산업 개황

- 제조업, 농림어업, 건설, 광산업 등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
 - '20년 기준, 제조업이 19.9%로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13.7%), 도소매·무역(12.9%), 건설(10.7%), 광산(6.4%) 등임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2020	2021.2Q
제조업	19.9	19.3
농림수산	13.7	14.3
도소매 무역	12.9	13.1
건설	10.7	10.1
광산	6.4	8.1
정보통신	4.5	4.4
금융 서비스 및 보험	4.5	4.4
운송 및 창고	4.5	4.2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

- 코로나 19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모두 부진했지만, '21년 2분기 모두 반등에 성공
 - 작년 대부분의 산업 연간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이동 제한 정책에 따라 운송 및 창고(-15.0%), 숙박(-10.2%) 분야가 큰 타격
 - 반면에 정보통신(10.6%)과 보건분야(11.6%)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 '21년 들어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에 따른 교역 증가와 전년도 기저효과, 그리고 이동제한 완화에 따라 모든 산업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분기별 성장률 추이

(단위: %)

산업 구분	2020	2021.1Q	2021.2Q
제조업	-2.9	-1.4	6.6
농림수산	1.9	3.3	0.4
도소매 무역	-3.7	-1.2	9.4
건설	-3.3	-0.8	4.4
광산	-2.0	-2.0	5.2
정보통신	10.6	8.7	6.9
금융 서비스 및 보험	3.3	-3.0	8.4
운송 및 창고	-15.0	-13.1	25.1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

■ 대부분의 산업에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법으로 명시한 인도네시아, 친환경·탄소중립 기조 확대
 - 인도네시아는 '07년 유한회사에 관한 법률 40호로 기업의 CSR 활동 의무화
 -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탄소 중립 의지를 표방
 - 11월 예정된 UN기후변화회의 참석에서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
 - * 장기저탄소발전전략('21.9),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개정('21.10)
-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ESG 준수 요구
 -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토크opedia(Tokopedia) 대상으로 '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발송하는 등, 소비자들이 기업들에게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토코피디아 대상 ESG 요청 운동 개요



- 주체: Kpop4Planet(전 세계 K팝 팬들이 모여 결성)
- 요청내용: '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국제 기준 준수
 - 회사 운영 중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대중에게 공개
- 특이사항: 토코피디아의 홍보 모델이 K팝 대표주자인 BTS와 블랙핑크이기 때문에 토코피디아를 선택

자료: <https://tokopedia4bumi.kpop4planet.com/>

● 자본시장도 ESG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19년 4월 UN 주도 지속가능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 가입
- 지속가능한 증권투자를 구현하기 위해 '20년 12월 'ESG Leaders' 지수* 신설(IDXESGL)
 - * ESG 관련 높은 평가를 받은 30개 상장기업들의 ESG점수를 지수화
- 이 외에도 금융 당국에서는 내년부터 인도네시아 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기초 금속)

● 기초금속 산업 동향 및 전망

- 기초금속 산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식음료, 화학 등과 같이 큰 비중*을 차지
 - * '20년 기준, 기초금속 산업은 전체 제조업에서 9%를 차지해 식음료(38%), 화학·제약(11%) 분야에 이은 3위
- 올해 상반기 기초금속 산업 수출액은 111.7억 달러로 연간 목표의 72% 달성
- '21년 2분기 기준, 전년 동 기간 대비 6.73% 성장,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는 올해 3.5%, 내년 3.9% 성장 예상

기초금속 산업 성장 추이

(단위: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및 성장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상
GDP 비중	0.8	0.7	0.8	0.8
성장률	9.0	2.8	5.9	12.7
외국인투자	2,219.1	3,558.7	5,969.2	3,478.4
내국인투자	337.6	238.2	407.1	324.2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정부 중점 정책 및 기타 이슈

- '24년까지 철강 생산역량을 연간 17백만 톤('21년 11.4백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철강 산업 및 광물 제련에 투자 확대 예정
- 이를 위해 '24년까지 인니 전역에 총 53개('21년 23개)의 광물 제련소 구축 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 시 가격 고정 인센티브 확대와 원자재 수출 금지, 그리고 금속 제품 SNI 필수 인증 확대를 통해 내년 수입 대체율을 35%까지 확대 추진

2022년 인도네시아 금속산업 개발 목표

목표	국가 경제 기여도 확대	산업 자체 경쟁력 증진	역량 강화
지표	1. 연간 성장률: 3.9% 2. GDP 기여도: 1.5% 3. 고용인원: 923,940명 4. 수출액: 177억 달러	1. 전체 근로자 대비 고용비중: 0.7% 2. 근로자 생산성: 1인당 2.3억 루피아/연간 3. 투자액: 114조 루피아	1. 자국부품비중: 63.82% 2. 수출액성장률: 6.9% 3. 수출기여도: 9.2% 4. 비석유분야 수입 비중: 9.7%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화학·제약)

● 화학·제약 산업 동향 및 전망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분야로 제조업에서 식음료에 이어 가장 큰 비중 차지
 - * '20년 기준, 화학·제약분야는 제조업에서 11% 차지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제약분야 수요 증가로 '20년 대부분의 산업이 부진할 때도 9.4%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 기록 중
- 작년 외국인투자는 '19년 대비 17.3% 증가, 국내투자는 137.5% 증가를 기록
- 작년 국내투자 증가 원인은 현지 화학 대기업 PT. Chandra Asri의 MBTE 및 부타디엔 공장 증설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해당 기업은 추가로 약 50억 달러를 투자해 '26년까지 공장 생산 용량을 연간 420만 톤에서 800만 톤으로 증설할 계획
- 더해서, 한국의 롯데케미칼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화학·제약 산업 성장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음
 - *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조 4천억 원 출자('21.10)

화학·제약 산업 성장 추이

(단위: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및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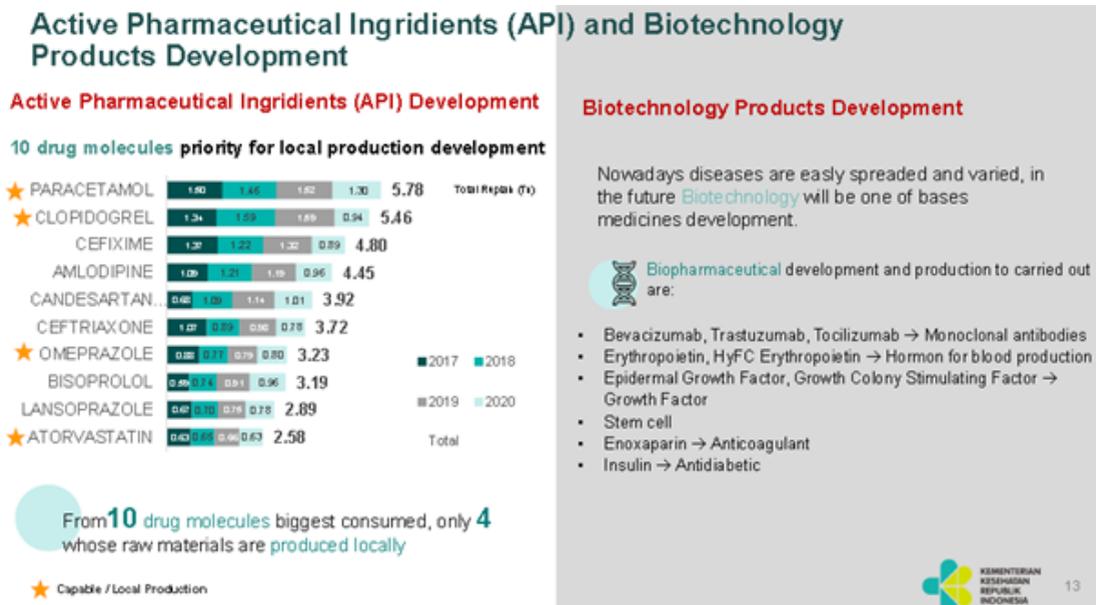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상
GDP 비중	1.6	1.7	1.9	2.0
성장률	-1.4	8.5	9.4	10.3
외국인투자	1,939.3	1,486.1	1,742.5	818.2
내국인투자	995.4	632.3	1564.3	573.7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정부 중점 정책 및 기타 이슈

- 인도네시아 산업부, 보건부에서는 원료의약품·화공약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국내 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시사

인도네시아 10대 중점 개발 원료의약품과 자체 조달 가능 현황



주: ★표시가 인니에서 자체 조달 가능한 원료의약품
 자료: 인도네시아 보건부(KOTRA 주관 메디컬웹비나, '21.9)

- 작년부터 의약품 국산부품 사용 비중 계산법이 비용 기반에서 가공 기반으로 변경*
 * 원료 의약품(API) 원료 함량 가중치 50%, 연구 개발 30%, 생산 15%, 포장 5% 등
- 내년에는 국내 의약품 원료 개발 역량 확대와 국내 식물로 제작한 인도네시아 자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

-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국민건강보험의 정부조달 프로그램(E-catalog) 등록 확대 정책 추진 예정

2021-2030 인도네시아 화학분야 개발 로드맵

구분	1차(3~5년) 개발	2차(5~10년)	3차(10~15년)
달성연도	2021	2025	2030
목표	기초 화학제품 수입 대체 30% 이상	합성화학 산업 육성, 제품 판매 확대 등	세계 5대 바이오연료 생산회사 육성
주요내용	1. 수입대체를 통한 기초 화학물질 수입 감소 2. 나프타, 올레핀, 아로마핀 등 기초화학물질 생산 확대 3. 섬유산업 지원을 위한 합성섬유 생산 확대	1. 중간화학제품 생산 확대 2. 합성섬유 생산 확대 3. 기초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	1. 바이오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2. 국내 수요와 수출수요 최적조정 3. 다국적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특별한 역량을 가진 화학기업 육성
주요품목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합성섬유, 합성레진, 합성고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연료, 바이오 원료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섬유)

● 섬유산업 동향 및 전망

-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분야이지만 코로나 19로 공장 가동에 제한이 발생하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
 - * '20년 섬유분야 공장 생산 가동률 30%대 수준, 작년 -8.8% 성장(인도네시아 산업부, 통계청)
- 이에 따라 다른 분야와 비교해 섬유 산업 투자도 부진
- 다만, 8월 중순부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로 공장 조업이 확대되어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는 올해 0.9%, 내년에는 5.9%로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21년 방직업 가동률 70%정도 수준까지 회복(인도네시아 산업부)

섬유 산업 성장 추이

(단위: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및 성장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상
GDP 비중	1.1	1.3	1.2	1.1
성장률	8.7	15.4	-8.8	-9.1
외국인투자	305.4	238.9	279.8	163.1
내국인투자	268.4	87.5	146.1	79.4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정부 중점 정책 및 기타 이슈

- 내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분야 수입 제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현지 섬유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에게 보세물류센터를 통한 수입품 국내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방식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 직구 플랫폼 내 섬유분야 판매를 제한했고, 일부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 캐주얼 상의, 정장 상·하의, 양복 양상블 드레스, 아웃웨어, 유아복, 모자 등

** HS 코드 6101~6214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재무부 공식 발표는 없음('21.10)

2021-2030 인도네시아 섬유분야 개발 로드맵

목표	국가 경제 기여도 확대	산업 자체 경쟁력 증진	역량 강화
지표	1. 연간 성장률: 5.89% 2. GDP 기여도: 1.37% 3. 고용인원: 5,190,000명 4. 수출액: 213.6억 달러	1. 전체 근로자 대비 고용비중: 3.86% 2. 근로자 생산성: 1인당 36.02백만 루피아/연간 3. 투자액: 27.27조 루피아	1. 자국부품비중: 64.60% 2. 수출액성장률: 6.38% 3. 수출기여도: 10.61% 4. 비석유분야 수입 비중: 4.13%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도·소매 유통)

● 도·소매·유통 산업 동향 및 전망

- 도·소매 무역 산업은 제조업, 농수산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한 분야
-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 침체와 사회활동 제한 조치로 성장이 부진했으나 점진적인 회복 추세 기록 중
- 올해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 성장을 4~5%로 가정하면, 도·소매 분야는 2.5~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소매유통업체협회(Aprindo) 예측('21.10)

도·소매·유통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및 성장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상
GDP 비중	10.4	10.4	10.6	10.7
성장률	5.0	4.8	-1.3	2.3
외국인투자	609.3	421.2	434.1	279.1
내국인투자	479.8	910.9	1163.1	752.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내년 목표 및 정부 중점 정책

- 내년 코로나 19가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인도네시아 경제도 지속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어 도·소매 분야 성장 전망도 밝은 편
- 하지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에서 소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

* 인도네시아 국내 생산물품과 수입 물품에 대해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할 계획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관광)

● 관광 산업 동향 및 전망

- 관광산업은 코로나 19로 국·내외 이동이 제한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
 - * 인도네시아 외국인 관광객 '19년 16.1백만 명 → '20년 8.1백만 명 → '21.8 1.1백만 명
- 10월부터 발리와 같은 주요 관광지를 특정 국가*에게 개방했고, 앞으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
 - * 한국, 중국, 일본, UAE,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 대상 입국 허용('21.10)
- 코로나 19 변수에 따라 많은 부침이 예상되는 분야로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관광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및 성장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상
GDP 비중	4.5	4.8	4.1	미발표
외국인투자	305.4	238.9	279.8	163.1
내국인투자	268.4	87.5	146.1	79.4

주: 타 산업과 달리 관광산업 성장률 미발표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내년 목표 및 정부 중점 정책

-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내년 9.2조 규모 예산이 배정됨, 올해 대비 20% 증가
- 해당 예산은 주로 관광산업 관리, 관광산업 개발, 업계 종사자 직업 훈련 등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임
- 더해서 보다 다양한 국가 외국인 입국을 확대할 예정이며 3곳의 중점 개발 관광지에 대한 투자 활동을 전개할 예정

2022년 인도네시아 정부 중점 개발 관광지와 투자유치 목표

단위: 백만 달러

관광지명	지역	목표액
보로부두르(Borobudur)	중부자바	5
라부안바조(Labuan Bajo)	동누사타라	4
토바호수(Danau Toba)	북수마트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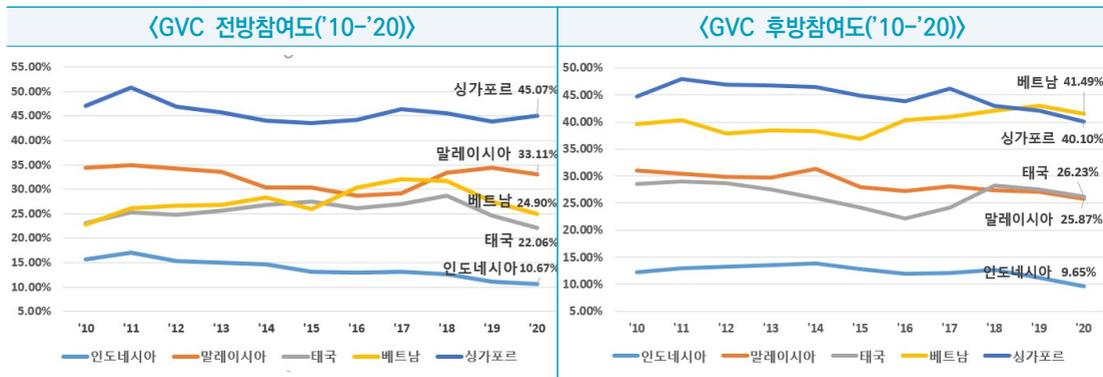
자료: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2020-2024 전략 계획

라. 정책/규제 동향

■ GVC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유망 제조산업 육성 정책 지속 추진

- 자원(원자재) 수출이나 단순 조립 형태 구조에서 탈피해 고부가 제품 생산을 통한 GVC (Global Value Chain) 상류 포지셔닝 추구
 - 인도네시아 GVC는 원자재나 1차 소재를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하는 업스트림(Upstream)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운스트림 분야는 단순 조립 비중이 높음
 - GVC 참가도는 통상 업스트림보다 다운스트림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후방 참여도는 타 아세안 국가 대비 낮은 편

아세안 주요국 아세안 역내 GVC 전후방 참여도 비교('10~'20)



자료: ADB MRIO('21.6),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데이터 가공

- 실제로 인도네시아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원부자재로 총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액 추이(2017~2021.8)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8
소비재	14,075	17,181	16,454	14,656	12,307
가공 원부자재	118,425	141,581	126,356	103,210	92,655
자본재	24,486	29,949	28,466	23,703	17,646
총합	156,986	188,711	171,276	141,569	122,608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 자국 유망 제조업 산업의 혁신을 통해 가공 원부자재 수입 비중을 낮추고 수출 비중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후방 GVC 재편에 참가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① 원자재 다운스트림 역량 강화

- (개발 방향) 광물, 석탄, 팜유 위주 다운스트림 강화
 - 매장량이 풍부한 해당 광물 위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까지 도모

2022 인도네시아 지역별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 로드맵



자료: 인도네시아 정부 국가 계획(RKP 2022)

- (광물개발 세부)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망간 등 자원 개발을 위한 제련소 건설
 - '09년 법령(정부령 4호)을 통해 원자재 형태 광물 수출 금지가 '14년부터 시행 중
 - 더해서 해당 법령을 통해 국내에서 광산 제품 가공 및 정제 의무화
 - '17년 일부 광물 원자재가 수출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지만 5년 이내 해당 광물 제련소를 건설해야 하는 조건이 붙음(조건 미이행시 광물 수출 허가 취소)
 - 추가로 니켈과 보크사이트 원자재 형태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에 제련소 건설 투자가 필요한 상황
 - * 니켈('20년부터 수출 금지), 보크사이트('23.6.11일부 수출 금지 예정)
 - 제련소 건설 확대로 인도네시아 광물 중간제품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페로니켈과 니켈 분야가 급증

인도네시아 광물 생산 추이

단위: 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8
주석	78,070	82,875	76,389	54,265	24,868
니켈선철	542,131	323,989	781,017	860,484	629,061
페로니켈	314,630	573,159	1,151,741	1,479,971	1,154,589
니켈메트	78,007	75,708	72,015	91,705	62,593
금	102	135	109	29	18
은	329	309	488	158	95
음극재(Cathode)	247,176	230,924	180,204	269,032	11,740

주: 2021년은 10월 누적 생산량 기준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원자재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중간재 생산이 증가하면서 해당 분야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HS코드)	2017	2018	2019	2020	2021.8
철과 강철(72)	3,336	5,756	7,387	10,862	12,288
철과 강철 부속(73)	1,068	1,322	1,258	1,191	918
구리 및 제품(74)	2,059	1,961	1,844	1,895	1,918
니켈 및 제품(75)	647	791	813	808	639
기타 비금속(80)	1,595	1,551	1,283	1,130	1,382

주: 2021년은 8월 누적 수출액 기준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20년 기준 19개의 광물 제련소가 있으며 올해 23개, '24년까지 48개 제련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광물 제련소 건설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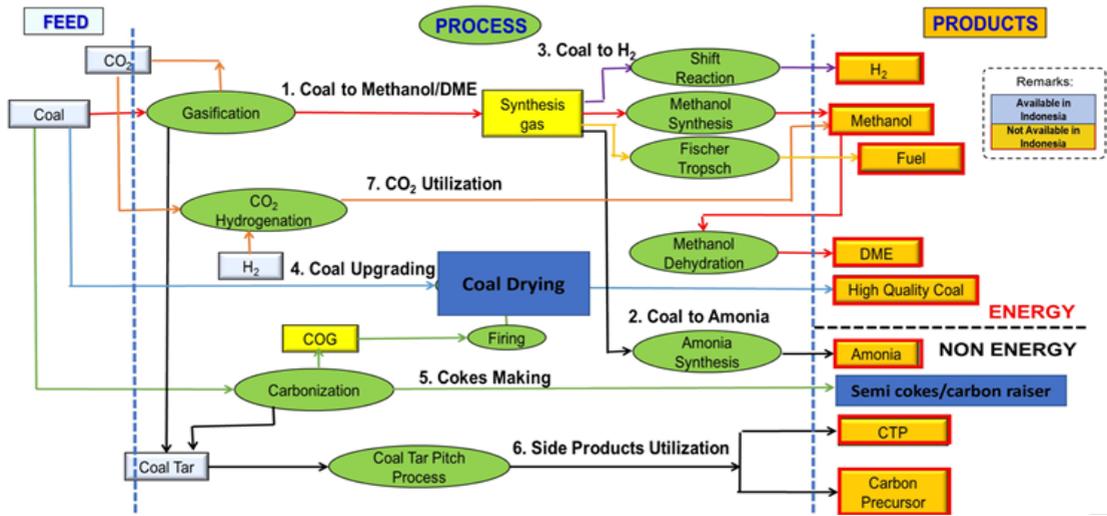
단위: 개수(누적 건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f	2022f	2023f	2024f
구리	2	2	2	2	2	2	4	4
니켈	10	10	11	12	29	30	30	30
보크사이트	1	2	2	2	8	8	8	8
철	1	1	1	1	2	2	2	2
망간	1	1	1	1	2	2	2	2
납-아연	0	0	0	1	2	2	2	2
총계	15	16	17	19	45	46	48	48

주: 2021년부터는 정부 예상치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 2020-2025)

- (석탄개발 세부) '30년까지 석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국 중 하나로 풍부한 매장량 보유*
 - * 중국, 인도, 미국, 호주 등에 이은 5위 규모(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석탄(지하석탄 포함) 가스화, 코크스 제조, 석탄 액화, 석탄 품질 개선, 연탄 제조, 석탄수 혼합 등 최소 7가지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 중
 - '30년까지 총 3,760만 톤(공급원료/투입량)의 생산 능력 확보 목표

인도네시아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 계획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친환경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는 9가지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발표될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을 위해 논의 중인 인센티브

연번	세부내용
1	가스화 계획을 위해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 최대 0%까지 로열티 부여
2	가스화용 석탄에 대한 특별 가격 적용
3	가스화 프로젝트 경제 수명에 따른 광업 허가 유효기간 조정
4	석탄가스 경제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5	합성가스과 같은 석탄 가공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0% 적용
6	EPC 회사들의 현지 부품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7	석탄 활용 청정에너지 DME(디메틸에테르) 벤치마크 가격과 설정
8	대체되는 LPG 비중에 따라 LPG 보조금 일부를 DME로 이전
9	해당 제품 구매 보장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팜오일 개발 세부) 단순 팜오일 원유 수출에서 팜오일 산업 중심지로 개발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 및 수출국
 - * '20년 인도네시아 팜오일 수출은 174억 달러 규모, 생산은 48.3백만 메트릭톤으로 세계 1위
 - 하지만 팜유 대부분은 원유(Crude Palm Oil)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환류되는 부가가치가 낮은 편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세계 팜유 파생상품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운스트림 개발 추진 중

팜오일 품목별 개발 분야

올레오식품(Oleofood)	올레오케미칼(Oleochemical)	바이오연료(Biofuel)
팜오일을 활용한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개발 (팜유, 비타민 A, 마가린, 아이스크림, 코코아, 쇼트닝 등)	올레오케미칼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개발 (바이오 계면활성제, 윤활제, 기타 소재 등)	바이오 연료 최종재를 얻기 위한 중간재 개발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팜유 원유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물질은 '11년 54가지에서 '20년 168가지로 크게 증가

팜오일 중간 품목 생산량 추이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30년까지 녹색 연료 생산량을 올해 대비 65% 증가한 1,400만 킬로리터까지 확대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내년 바이오디젤 의무함량 비중을 40%까지(B40) 증대할 계획임

②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지속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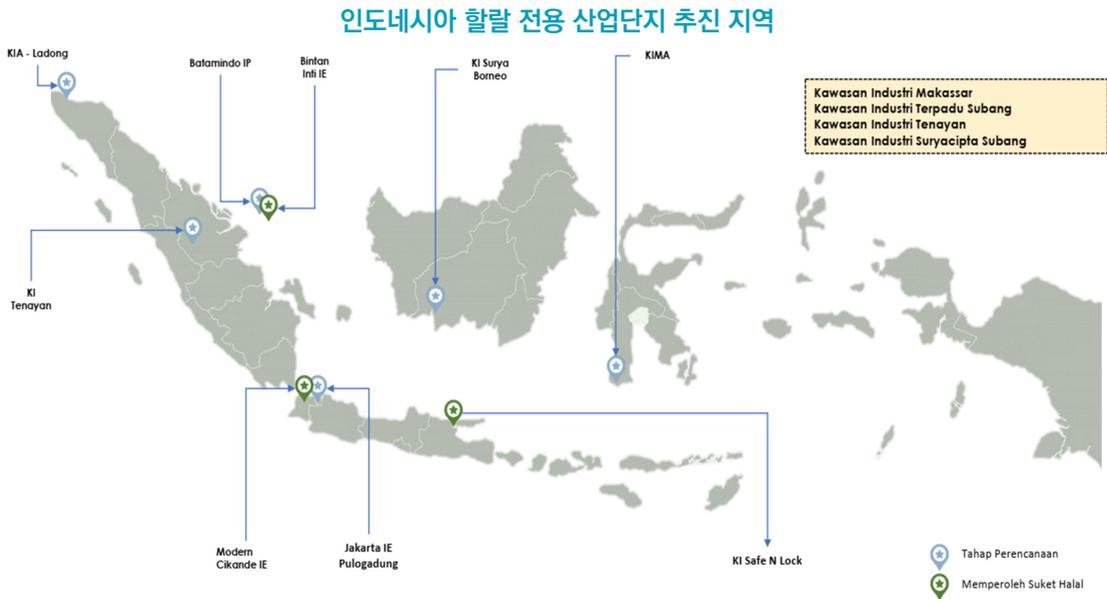
- 5대 중점 분야 제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
 - 코로나 19를 겪으며 의료기기와 제약분야를 추가해 7대 중점분야로 확대*
 - * 새로 추가된 2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21.10)
 - 선정된 제조업들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임
 - * 새로 추가된 분야 제외 5대 분야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13% 차지('19)
 -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하노버 메세 2021(Hannover Messe)에 국가관을 구성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분야 소개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주요 분야별 개발을 위해 국영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추진
 - '21년 들어 주력 산업별로 국영기업을 포함하는 지주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산업 및 참가 국영기업

분야	핵심 국영기업	추진 배경	세부 계획
식음료	PT. Rajawali Nusantara Inda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입의존도 - 수출 대비 수입액이 2배를 넘음(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계측·모니터링, 오토 파일럿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업스트림 생산성 향상(원료 자국 내 해결) • 지역별 수출 허브 활성화
섬유 및 봉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파른 임금 상승,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낮은 생산성 •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스트림 생산능력 및 품질 향상 • 기술도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 • 기능성 의류에 대한 내수 및 해외수요 맞는 생산능력 증대
자동차 (전기차)	PT. PLN(에너지) PT. Inalum(광물) PT. Aneka Tambang(광물) PT. Pertamina(석유) PT. Indonesia Asahan Aluminium(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일본차 기업 지배력 탈피 • 공해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 • 전기자동차 산업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규모 확대를 통한 원자재 및 핵심부품 지급자족 • 기술도입 및 물류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 지원을 통해 GVC 진입 • 수출형 차종(저비용 그린카, SUV)등의 현지 위탁생산 유도 •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
화학	PT. Biofar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한 내수 시장 규모에 비해 높은 수입 의존도 • 내수 수요 충족이 불가한 자국 기업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가스전 근접 지역에 석유화학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높은 가격 경쟁력 달성 • R&D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바이오 연료, 플라스틱 등 차세대 화학 제품 생산 능력 개발
전자	PT. Telkom Indonesia PT. Pertam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필수 전자제품 생산 자국 기업 부족 • 선진국과의 큰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제조 기업과의 협업 • 단순 조립이 아닌 고 부가가치 전자 부품 생산능력 배양 • 기술 도입 및 이전을 통한 내수 역량 확보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기술연구개발기구(BPPI),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Perpres No.18/2020

- 정부에서는 '24년부터 일부 품목별로 할랄인증 표기가 의무화되고 차후 할랄 국가간 교차인증이 지원되는 경우 기업들의 할랄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 인도네시아 산업부 할랄산업단지 개발 담당자 인터뷰(KOTRA 자카르타무역관, '21.10)
- '21년 10월 기준, 2곳의 할랄산업단지가 운영중이며, 향후 6곳이 추가될 전망



자료: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5), 인도네시아 산업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 2021 인도네시아 국가온실가스 로드맵(NDC) 개정안 발표('21.10)
 - 자체 감축(1안)과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감축(2안)으로 목표 세분화
 - '21.11월 예정된 UN 기후변화회의에서 정식 공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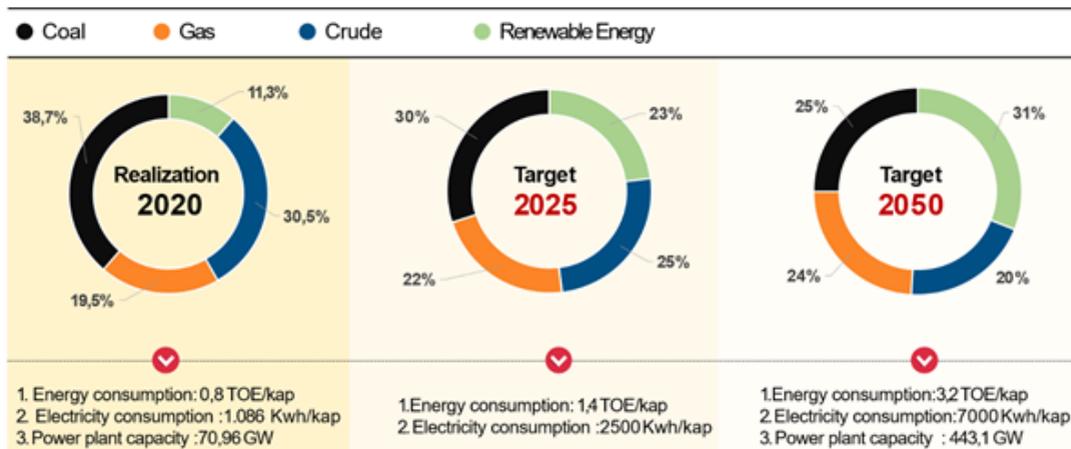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로드맵(NDC)

온실가스 감축목표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주요 내용
2030	① BAU 대비 29.0% (29 bil ton CO ₂ eq → 20 bil ton CO ₂ e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BAU는 2,869.0 백만 톤 • (조건없이) BAU 대비 29.0%인 834 백만 톤 감소 추진 • (조건부) BAU 대비 41.20%인 1,185.3 백만 톤 감소 추진
	② BAU 대비 41.2% (29 bil ton CO ₂ eq → 17 bil ton CO ₂ eq)	

자료: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Republic of Indonesia('21.10)

- 인도네시아 최초의 장기저탄소전략(LEDs) 수립('21.8)
 - 작년 발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예산이 축소되며 순연
 - '60년까지 국내 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탄소 중립 추진
 - 크게 세 가지 예상 상황(현행유지, 일부 감축, 파리협약 목표 준수)을 가정해 정책 수립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저탄소 기술 개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부품과 같은 신산업 부품의 국산화 등이 담김
 - NDC와 마찬가지로 11월 UN 기후변화회의 총회에 전략보고서로 제출
- 전력 조달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추진
 - '14년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년 23%에서 '50년 31%까지 확대하는 에너지믹스계획을 수립

인도네시아 에너지믹스계획



자료: Peraturan Pemerintah Nomor 79, Tahun 2014

-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에서 10월 발표한 10개년 전력조달계획에 따르면 '19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향후 전력 조달 목표가 두 배 가까이 증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자발전사업 (Independent Power Provider, IPP) 비중을 확대

신재생에너지와 재래식에너지 전력발전 향후 용량 확대 예상치 비교

구분	RUPTL 2019-2028				RUPTL 2021-2030			
	확대용량(MW)		비중(%)		확대용량(MW)		비중(%)	
	PLN	IPP	PLN	IPP	PLN	IPP	PLN	IPP
신재생(EBT)	7,907	8,807	47%	53%	9,144	11,779	44%	56%
재래식	14,822	24,859	37%	63%	5,125	14,527	26%	74%

주: 세부 내용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 동향' 보고서 참조
 자료: 인도네시아 10개년 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21.9)

- 이 외에도 디젤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거나,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프로젝트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가격보전 조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법령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옥상 태양광 생산 전력 PLN에 판매 가능 한도가 65%에서 100%로 증가

- 내년 4월부터 석탄 화력발전에 대해 탄소세*가 부과될 예정

* 석유·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메트릭 톤 당 2.1달러의 탄소세 부과

● 폐기물(도시 고형 폐기물 위주) 감축 추진

-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5년까지 폐기물 30%감소 및 폐기물 처리 70%를 목표로 정책 추진 중
- 특히 생산자의 폐기물 감축을 의무화한 '19년에 폐기물 감축 로드맵에 관한 규정(No.P.75/2019)을 발표했고, 내년부터 정식 시행 예정
- 더해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분야(식·음료, 섬유, 건설, 도·소매, 전자제품) 순환 경제 개발 노력 중

● B3 폐기물 처리를 위한 규정 개정

- 환경산림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B3 폐기물 배출량은 2억 7천만 톤으로 '16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
- 더해서, 선진국들로부터 B3 폐기물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

B3 폐기물 수입 동향

단위: 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09,423	204,557	4,809,108	20,213,313	85,873,810	81,965,146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4월 환경부령 6호를 통해 B3 폐기물을 생산자와 관련 당사자의 처리 의무를 규정
- B3 폐기물 생산자가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 가능한 사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정부는 B3 처리 가능한 시설을 '25년 25곳까지 확충 목표

■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인증 제도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되는 분야는 유통허가와 관련한 인증이며, 대표적으로 식약청 (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할랄(Halal) 인증이 있음

- 상기 인증 중 BPOM과 SNI 인증은 법으로 지정한 해당 제품에 한해 필수 유통 인증으로 공통적으로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 서류가 많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24년부터 표기 여부가 필수가 되는 할랄인증
 - 정부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로 정부 차원의 할랄 인증 표기 유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품들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담당 기관인 할랄청(BPJPH)로부터 할랄 인증 유무 여부를 제품에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함
 - * 2024.10.17(식품, 음료 인증 의무화), 2026.10.17(의약품, 화장품 등 의무화)
- 수입 대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
 - 모든 산업의 평균 국산 사용 비중을 40%대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수립
 - 특히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중점 산업 분야 국산부품사용비중 확대 추진

인도네시아의 주요 분야 원자재 수입 비중 조정 목표

단위: %

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속	11.36	10.92	10.44	9.92	9.36
식음료	0.43	0.43	0.43	0.42	0.41
섬유	4.27	4.20	4.13	4.04	3.94
화학, 의약	2.07	2.06	2.04	2.02	1.99
석유관련	13.06	12.76	12.42	12.04	11.62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옵니버스법) 시행령 발표

- 작년 11월 공포된 일자리 창출 특별법 세부 시행령이 올해 2월 16일 공포
 - 노무, 건설, 인허가, 환경보호, 무역 등 정부령 45개와 투자사업, 정부조달 등에 대한 대통령령 4개로 이루어짐
 - 옵니버스법이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이정표라면, 옵니버스법 시행령은 이정표 안에 있는 세부 안내표라고 볼 수 있음
- 우리 기업이 참고할 만한 주요 사항은 ①외국인 투자분야 개방, ②고용환경 개선, ③위험에 기반한 인허가 절차 변경과 OSS 플랫폼으로 인허가 처리 일원화 등임

옵니버스법 시행령 주요 내용

분야	법령원문	주요내용												
투자	Perpres No.10, Tahun 2021 (투자분야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0개 투자금지 업종 → 6개로 대폭 축소 • 4가지 업종으로 구분 했으며, 투자우대 분야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투자금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투자자의 투자행위 금지 업종 - 마약, 화학무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도박 및 카지노, 중앙정부 필수 수행 </td> </tr> <tr> <td>조건부 투자 가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조건 하 외국인 투자 허용 - 최대 지분율 제한, 특정허가 추가 취득, 지역 제한 등 - 기존 350개 업종 → 46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 </td> </tr> <tr> <td>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업종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가 - 토지/건물 제외 사업 주체 자본이 10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만 수행 가능 - 외투법인이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해야해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스타트업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 • 협업 업종은 중소기업과 협업 필수 -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추후 세칙 발표 예정 </td> </tr> <tr> <td>투자우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신설, 정부 중점 투자유치 산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재정/비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Tax allowance(183개), Tax holiday(18개), Investment allowance(44개)로 구분 </td> </tr> <tr> <td>전면허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투자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투자자의 투자행위 금지 업종 - 마약, 화학무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도박 및 카지노, 중앙정부 필수 수행 	조건부 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조건 하 외국인 투자 허용 - 최대 지분율 제한, 특정허가 추가 취득, 지역 제한 등 - 기존 350개 업종 → 46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업종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가 - 토지/건물 제외 사업 주체 자본이 10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만 수행 가능 - 외투법인이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해야해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스타트업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 • 협업 업종은 중소기업과 협업 필수 -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추후 세칙 발표 예정 	투자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신설, 정부 중점 투자유치 산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재정/비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Tax allowance(183개), Tax holiday(18개), Investment allowance(44개)로 구분 	전면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구분	주요 내용											
		투자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투자자의 투자행위 금지 업종 - 마약, 화학무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도박 및 카지노, 중앙정부 필수 수행 											
		조건부 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조건 하 외국인 투자 허용 - 최대 지분율 제한, 특정허가 추가 취득, 지역 제한 등 - 기존 350개 업종 → 46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업종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가 - 토지/건물 제외 사업 주체 자본이 10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만 수행 가능 - 외투법인이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해야해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스타트업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 • 협업 업종은 중소기업과 협업 필수 -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추후 세칙 발표 예정 													
투자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신설, 정부 중점 투자유치 산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재정/비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Tax allowance(183개), Tax holiday(18개), Investment allowance(44개)로 구분 													
전면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광업과 같이 개별 법령에 명시된 부분은 변동사항 없음 • 현지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사업 부분은 외국인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으나 인허가에 난관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 사전 면밀한 검토 필요 														
BKPM Regulation No.4 Tahun 2021 (납입자본금액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정 제 21조에 따라 납입자본금 상향조정 - 기존 25억 루피아 → 100억 루피아로 상향 - 업종과 상관없이 규정 시행일('21.6.2) 이후 설립된 모든 외투법인에 적용(소급규정 없음) 													
PP No.5 Tahun 2021 (사업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관련 모든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Online Single System) 으로 일원화 • 위험도에 따라 4가지로 인허가 요건을 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인허가 필요 조건</th> </tr> </thead> <tbody> <tr> <td>저위험도</td> <td>• 사업고유번호(NIB) 발급으로 취득절차 마무리</td> </tr> <tr> <td>중저위험도</td> <td>• NIB, 사업자 진출이 기재된 표준인증서</td> </tr> <tr> <td>중고위험도</td> <td>•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 표준인증서 발급 시 사업활동기준 준수 여부 확인</td> </tr> <tr> <td>고위험도</td> <td>•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허가</td> </tr> </tbody> </table>	구분	인허가 필요 조건	저위험도	• 사업고유번호(NIB) 발급으로 취득절차 마무리	중저위험도	• NIB, 사업자 진출이 기재된 표준인증서	중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 표준인증서 발급 시 사업활동기준 준수 여부 확인	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허가		
		구분	인허가 필요 조건											
		저위험도	• 사업고유번호(NIB) 발급으로 취득절차 마무리											
		중저위험도	• NIB, 사업자 진출이 기재된 표준인증서											
중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 표준인증서 발급 시 사업활동기준 준수 여부 확인													
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허가													

분야	법령원문	주요내용
노동	PP No. 34 Tahun 2021 (외국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력 고용허가 면제 대상 범위 일부 추가 - 긴급상황에서 생산장비 유지 및 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기간 연구활동 등 • 외국인 인력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무자로 분류되는 것에는 변동 없음
	PP No. 35 Tahun 2021 (기간제, 아웃소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보상금 지급의무 신설 • 근로계약 허용기간에 관한 규정 방식 변경 - 총 5년 기간 내 계약 체결 및 연장 가능 • 근로계약 허용업무 관한 내용 실질적 변경 없음 • 최대 초과 근무 허용 시간 범위 확대 - 일 4시간(주 18시간)으로 확대 • 장기 근속 직원 대상 주어진 장기근속휴가 폐지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시 일부 변경 - 정규직에게만 지급했던 퇴직보상금 지급 의무 신설 * 퇴직보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 근로계약 해지 절차에 통지 절차 추가 - 근로계약 해지 사유 일부 변경 • 아웃소싱 허용업무 범위 관한 제한 삭제 - 특정 업종에서만 가능했던 아웃소싱이 전 분야에서 가능
	PP No. 36 Tahun 2021 (임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 폐지 • 주별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 주지사에게 일임 -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계산법을 활용해 연간 최저임금 결정
	PP No. 37 Tahun 2021 (실업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해지 시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보험(Job Loss Security)제도 신설

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령 원본과 출처를 참고 바람

자료: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2021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노사발전재단), 인도네시아 투자 개방과 허용범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정리자료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로드맵 2021-2024
 - 디지털 전환을 위한 10개 우선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①인프라 구축, ②전자 행정 구축, ③디지털 인재 육성, ④디지털 사회 개발 등을 추진
 - * 교통, 관광, 무역, 금융 서비스, 미디어·엔터, 농·어업, 스마트시티, 교육, 헬스케어, 산업
 - 디지털 전환의 문제로 지적받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육지와 바다에 광섬유 케이블 연결을 통해 12,548곳 산간지역 디지털 전환 지원
 - 로드맵 구체화를 위해 통신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과 협업 추진
- 인도네시아 지불결제 시스템 청사진 2025(Indonesia Payment System Blueprint 2025)
 - '19년 5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 2025 비전 선포

- ①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 오픈 뱅킹 구축, ②소매 결제 시스템 개발, ③도매 결제 및 금융 시장 인프라 구축, ④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국가 데이터 개발, ⑤결제 관련 규제, 관리 감독, 인허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비전으로 구성

인도네시아 지불결제 시스템 2025 청사진 주요 내용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커져가는 정보보안 우려에 따른 정보보안법 개정
 - 최근 다수 디지털 플랫폼 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큰 이슈로 떠오름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유럽 기준을 준용한 정보보안법을 개정 추진
- 급속도로 성장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정
 - '16년 이후부터 전자상거래를 필두로 핀테크 분야가 급성장 하면서 관련 정책과 규제 입안
 - 핀테크 분야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P2P 분야 신 규정 내년 발표 예정(초안 발표 후 핀테크 협회와 세부 내용 조율 중, '21.10)

인도네시아 P2P 신 규정 초안

주요 변경 사항

제7조	자금조달제한 규정 신설	▪ 각 투자자와 관계인은 잔고의 25%이상 투자 금지
제8조	가승인/승인 관련 변경	▪ 등록(가승인) 과정 삭제, 즉시 라이선스 인가 과정 진행
제11조	의사결정기구(BOD,BOC) 조정 방안 BOD, BOC 구성 관련 - 기존 : 각각 최소 1명 (금융산업 1년 이상 경험)	▪ BOD : 기존 최소 1명 → 최소 3명 - 금융업 관리자 경험 1년 → 2년 - 겸직 불가 ▪ BOC : 기존 최소 1명 → 최소 3명 - 관리자 경험 2년 - 겸직 1개사 가능
제28조	아웃소싱 활용 부문	▪ 본업관련 지원Sector에만 활용가능
제38조	대출포트폴리오 부문	▪ 연간 총 대출의 최소 40%는 생산성 대출 - 향후 3년간 점진적 적용 (15%→30%→40%) ▪ 연간 총 대출의 25%는 자바 외 지역 대출 - 향후 3년간 점진적 적용 (15%→20%→25%)

자료: OKP2P Indonesia, KOTRA 핀테크 웨비나 발표자료

■ 국내 기업 수출선 다변화와 외자 투자유치를 위한 통상협력 지속

- 작년과 올해 한-인니 CEPA를 포함해 다양한 협정이 발효되었거나 체결 완료됨

인도네시아 통상협정 체결현황 내역(2020~2021)

협정명	상대국	진행 단계
인니-호주 CEPA	호주	2020.7.5(발효)
RCEP	ASEAN + 5개국(한·중·일)	2020.11.15.(체결)
한-인니 CEPA	한국	2020.12.18.(체결)
인도네시아-EFTA CEP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2021.5.7(비준)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현지 언론기사 종합

- 현재 약 10건의 협상이 추가로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 신규 통상협정 추진 내역

협정명	진행 단계	협정명	진행 단계
인니-EU CEPA	10차 협상('21.2)	인니-이란 PTA	중간 미팅('19.4)
인니-터키 CEPA	중간 미팅('20.8)	인니-모리셔스 PTA	1차 협상('19.8)
인니-파키스탄 TIGA	2차 협상('21.4)	인니-모로코 PTA	협상 개시('18.6)
인니-방글라데시 PTA	3차 협상('19.10)	인니-캐나다 CEPA	협상 개시('21.6)
인니-튀지니 PTA	중간 미팅('21.3)	인니-UAE CEPA	협상 개시('21.10)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2. 시장분석

- ▶ ASEAN 최대 성장 잠재력을 한류 친화 시장으로 다양한 기회와 위험이 공존
 -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가졌고 한류를 가장 사랑하는 매력적인 시장
 - 하지만, 정부의 수입 대체 정책과 다양한 규제가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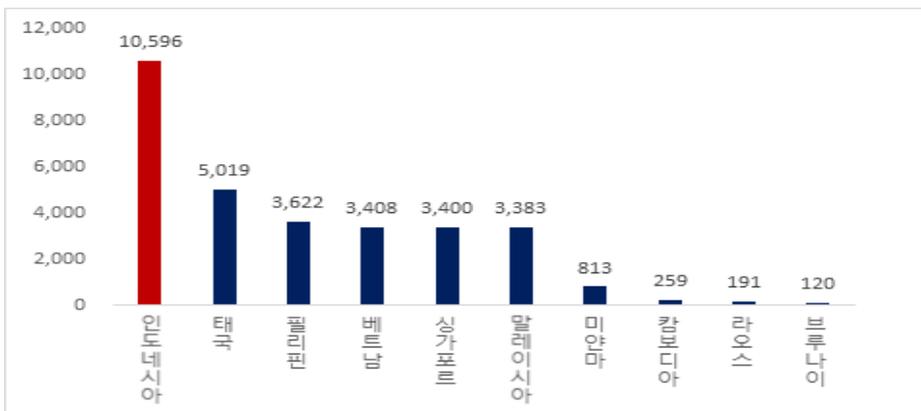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

-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ASEAN 최대 경제규모 보유
 -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총 2억 7천여만 명으로 세계 4위 규모, 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0.7%에 육박해 인구 보너스 최고 구간을 지나는 중
 - '20년 기준, 인도네시아 명목 GDP는 1조 6백억 달러 수준으로 ASEAN 국가 중 최대, 전 세계 15위를 기록(한국은 10위)

2020년 아세안 국가 명목 GDP

단위: %



자료: IMF

- 다양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원자재 부국으로 제조업 성장성 높음
 - 전통적으로 팜오일, 석탄, 금, 주석, 천연고무 등 원자재가 주요 수출품
 -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 요소인 니켈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인도네시아 자원 생산 추이(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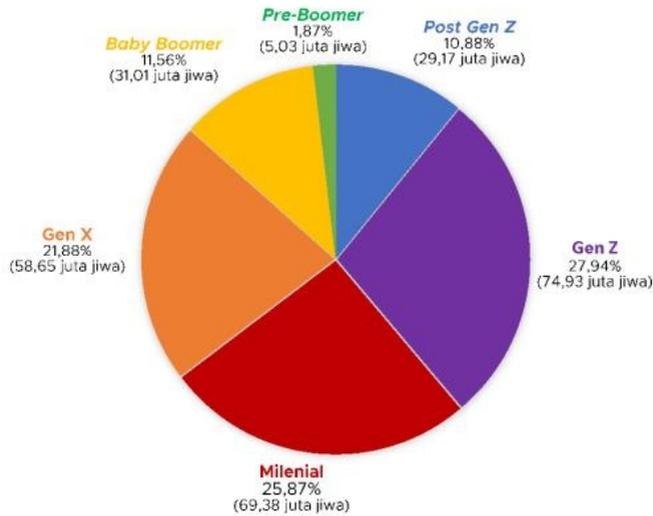
구분	석탄	니켈	금	팜오일	주석	고무	코코아
매장량(톤)	388.4억	21백만	2,600	-	800,000	-	-
매장량 순위	4	1	8	1	8	2	6
연간 생산량(톤)	5.6억	760,000	71	52백만	70,000	2,880,000	710,000
연간 수출액(백만 달러)	14,548	5,548	5,542	17,365	1,115	3,002	76

주: 광물자원은 매장량, 농산물은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순위 산정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US Geological Survey, Global Trade Atlas

■ 모바일(인터넷) 사용률 급속 증가에 따른 비대면 플랫폼 성장

- 생산가능인구 중 과반수가 넘는 MZ세대 비중
 - 인구 중 절반 이상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MZ세대로 인터넷 사용에 능숙

인도네시아 인구 구조(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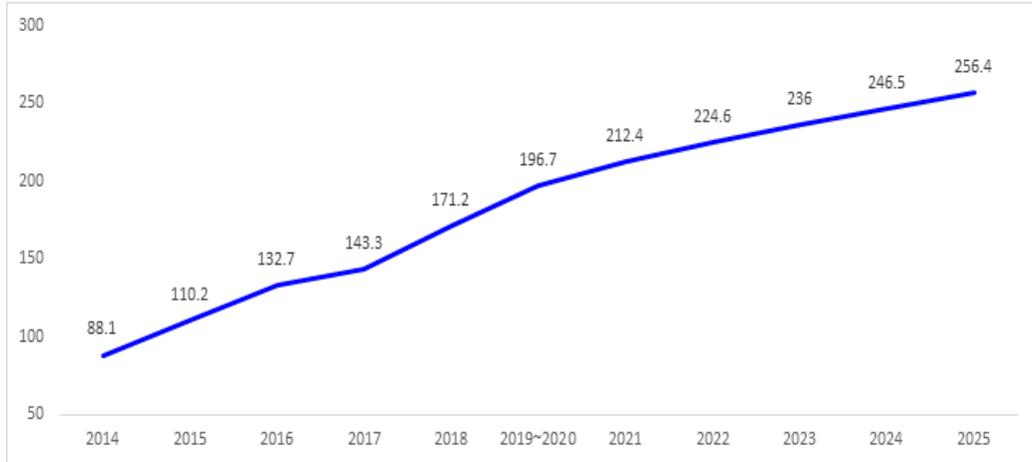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모바일(인터넷) 사용률 급증
 - 인구 중 73.7%가 인터넷 사용, 향후 5년 간 (2020~2025년) 연 평균 5.2% 성장 전망*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 추세

단위: 백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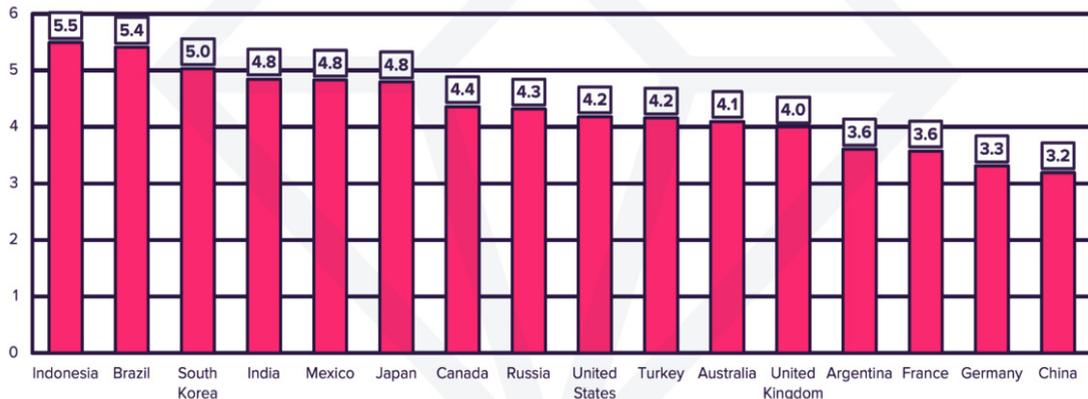


주1: '20년까지는 APJII(인도네시아 인터넷사용자협회) 설문 조사 \ '20년 이후는 Statista 추정치 활용
 주2: APJII 설문 조사는 '19년에 미 실시, '20년에 같이 조사
 자료: APJLL 2020, Statista

- 인터넷 접속 방법이 데스크탑과 노트북에서 모바일 기기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 * 설문 응답자의 95.4%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 73.2%는 더 이상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APJLL 2020)
- 이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들의 높은 성장
 - 1인당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5.5시간으로 올해 3분기 기준 전 세계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국가

주요국 모바일 앱 사용 시간('21.3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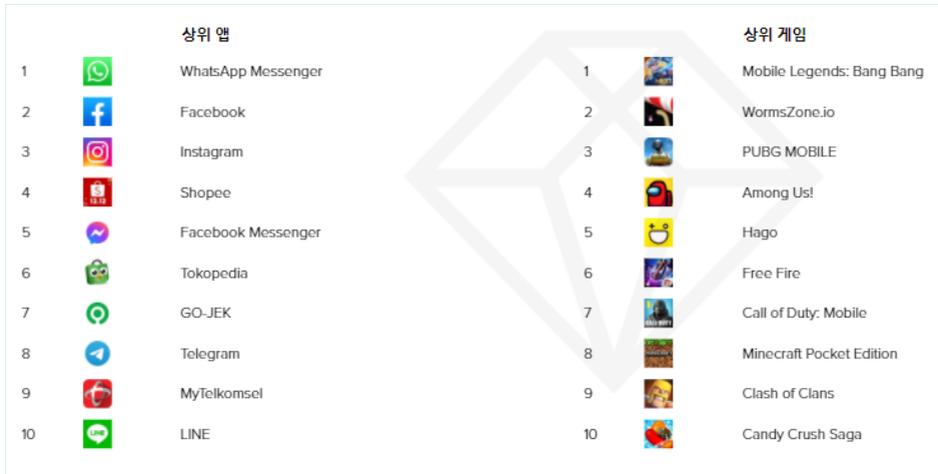
(단위 : 시간)



자료: 앱애니(App Annie)

-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플랫폼은 SNS, 전자상거래 앱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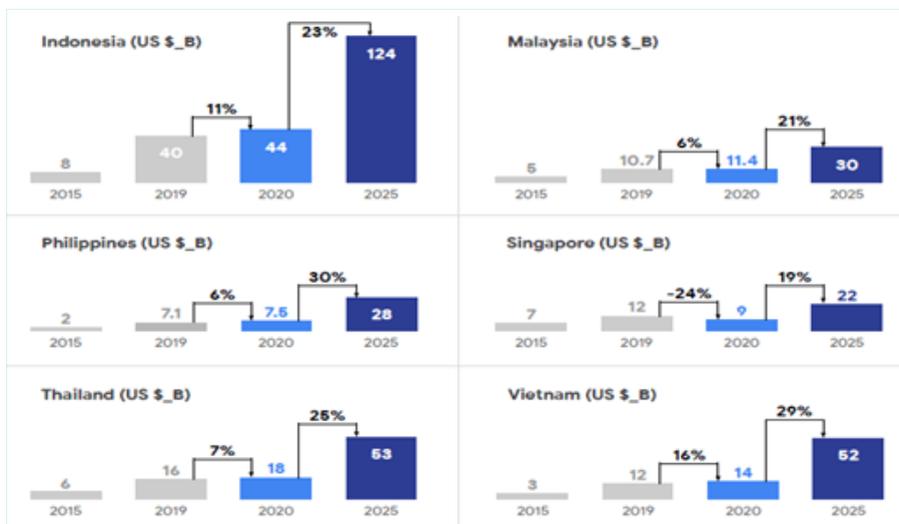
인도네시아인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플랫폼 현황(2020년)



주: 월별 활성 사용자 기준
 자료: 앱애니(App Annie)

-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최고 성장세를 기록 중인 전자상거래 시장
 - 작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경제 규모는 44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11% 증가해 동남아시아 6개국 중 가장 큰 성장세 기록
 - '15년부터 '25년까지 지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 인터넷 경제(전자상거래 총 매출액) 규모



자료: 'e-Conomy SEA 2020', Google, Temasek, Bain&Company

■ 인도네시아 문화 속 깊게 자리잡은 화인 문화

- 화교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 상장기업 가운데 화교(화인)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스타트업, 첨단산업, 의료 서비스, 전자상거래 유통 분야 등에서 큰 영향력을 보유
- 화인 문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Metro Xinwen’, ‘Hi Indo IV’와 같이 중국 소식과 문화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존재
 - 중국의 사자춤은 인도네시아 국민 스포츠로 지정되었으며 중국 연휴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중국의 각종 연휴 이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축하기념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화인문화 주요 현황



자료: Tokopedia, Metro TV 등

■ 한류 바람이 가장 크게 불고 있는 시장 중 하나

- 코로나 19에 따라 다시금 각광받는 K콘텐츠
 -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드라마 시청이 증가했고, 그 중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특히 증가함
 -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LIPI) 설문 조사* 결과, 91% 응답자가 한국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시청하고 있으며, 하루 시청 시간도 4.6시간으로 코로나 19 이전보다 2시간 증가, 응답자의 41%는 1주일에 6회 이상 한국 드라마를 시청
 - 인도네시아 넷플릭스(Netflix) 1위는 갯마을 차차차, 2위는 오징어게임(21.10.20)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작년 한류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높은 호감도와 높은 유료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한류문화 주요 콘텐츠 소비 비중

구분	전체순위	소비비중
드라마	1	41.5%
예능	1	35.3%
영화	1	36.8%
음악	1	35.8%
애니메이션	3	27.7%
도서	2	25.6%
웹툰	1	33.8%
게임	1	33.8%
패션	3	30.2%
뷰티	2	34.6%

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 단순 흥미에서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확산
 - 코로나 19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에 한류 마을을 조성해 운영
 - 현지 프랜차이즈 기업이 BTS와 협업한 제품은 단기에 판매 매진
 -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 조형물과 복장을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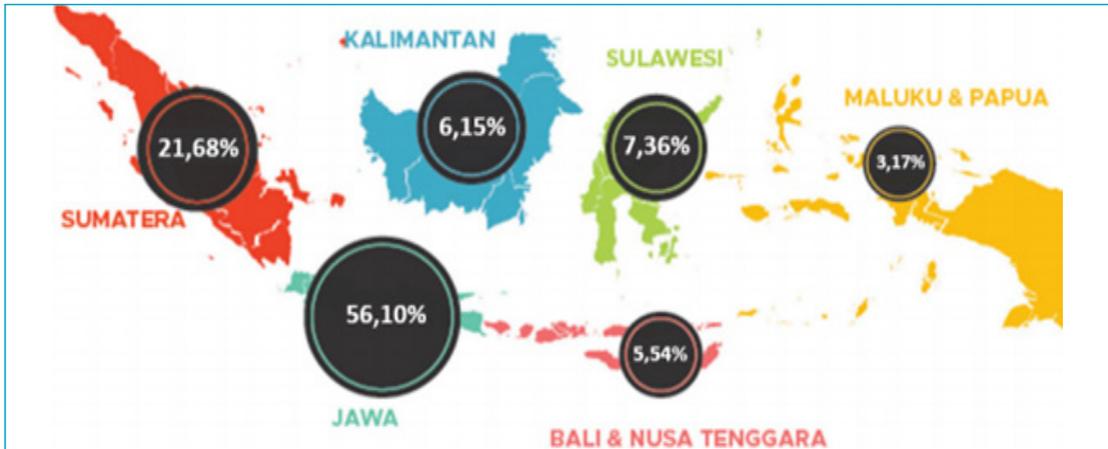


자료: 연합뉴스,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실제 촬영

■ 지역별 편차가 크고, 1인당 소득수준이 낮아 타겟 맞춤형 마케팅 필요

- 자바(Jawa)섬 중심의 상권
 -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개의 큰 섬 중 자바섬(제 1·2의 도시인 자카르타, 수라바야 위치)에 인구의 56.7%인 1억 5천만 명이 거주

인도네시아 지역별 인구 분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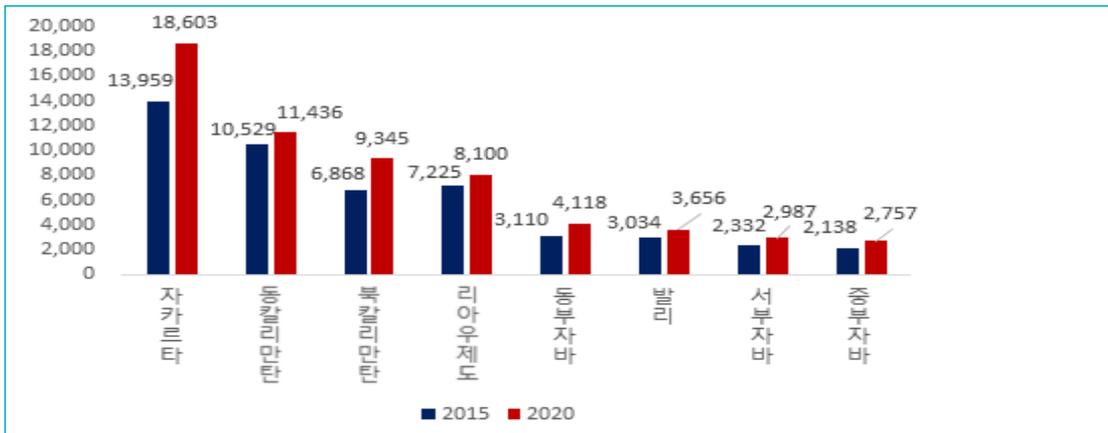
- 자바섬의 '20년 GDP는 인도네시아 전체의 57.9%를 차지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이뤄짐
 * 수마트라(21.4%), 칼리만탄(7.9%), 술라웨시(6.7%) 등 차지, 인도네시아 통계청(2020)

● 소득계층의 양극화

- 인도네시아 실질적 중산층의 규모는 6천만 명 내외 수준이며, 중산층 이하의 소득 계층은 중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형편임
- 인도네시아의 경제 중심지인 자바섬 내에서도 1인당 GDP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지역별로 1인당 구매력 차이가 큰 편

2015년(좌) 및 2020년(우) 자바섬 내 주별 1인당 GDP 수준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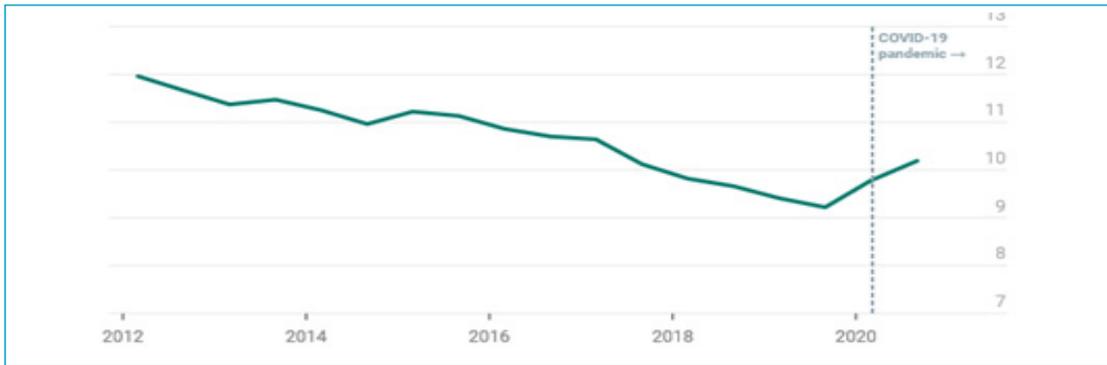


주: 통계청 자료는 루피아로 표기되어 1달러=14,000루피아 일괄 적용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

- **높지 않은 1인당 GDP 수준과 코로나 19로 인한 빈곤층 확대**
 - 인도네시아 1인당 GDP는 약 4천 달러로 필리핀, 베트남 등과 비슷하며 말레이시아, 태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 '20년 기준, 말레이시아(\$10,270), 태국(\$7,190), 베트남(\$3,499), 필리핀(\$3,330) / IMF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어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

인도네시아 빈곤율 추이

(단위 :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재구성

■ 역동적으로 발전중인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생태계

- **아세안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주요 활동무대**
 - 아세안 국가 소재 유니콘 스타트업은 24개사 중 인도네시아에 8개사 존재
 - 인도네시아 최초 테카콘 기업인 고젝(라이드헤일링)을 포함해, 전자상거래, 핀테크,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탄생

인도네시아 테카콘, 유니콘 스타트업 현황('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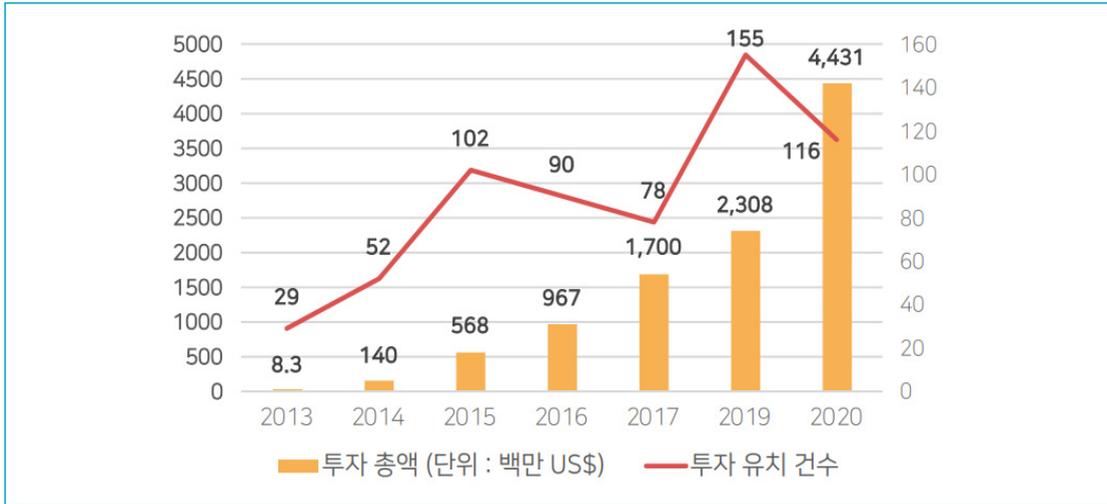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기업명	평가치	주요 분야	주요 투자자
고젝(Gojek)	10	라이드헤일링, 물류, 핀테크	Telkomsel, Paypal, Facebook, Visa, AIA Group, Astra International 등
제이엔티익스프레스 (J&T Express)	7.8	물류, 교통	Hillhouse Capital, Boy Capital, Sequoia Capital 등
토코피디아(Tokopedia)	7.0	전자상거래	Alibaba Group, Softbank, Google, Temasek, Sequoia Capital 등
부칼라팍(Bukalapak)	3.5	전자상거래	500 Startups, Batavia Incubator, Emtek Group 등
트레블로카(Traveloka)	3.0	여행	Global Founders Capital, East Ventures, Expedia 등
오보(Ovo)	2.9	핀테크	Grab, Tokopedia, Tokyo Century Corporation 등
젠딧(Xendit)	1.0	핀테크	Accel, Y Combinator, Amasia
아자입(Ajaib)	1.0	핀테크	Softbank, Horizon Ventures 등

자료: CB Insights, Kompas, The Jakarta Post, 각 회사 자료

- 수도 자카르타의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는 340억 달러 규모로 스타트업 100대 신흥국 중 뮌바이, 코펜하겐의 뒤를 이은 3위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 가능성 입증*
 - *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2021.9)
-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에 대한 자본 투자는 코로나 19 이후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에 대한 자본 투자 및 거래



자료: Future Play(인도네시아 Z세대 100인 인터뷰), Cento Research

- 거대한 인구, 높은 모바일 사용률과 같은 성장 잠재력을 보고 다양한 스타트업 탄생
 - 약 2,300개의 스타트업이 존재해 세계 4위, 아세안 1위 수준(Startup Ranking, '21.10)
 - MZ세대 중심으로 교육, 패션, 식·음료,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 실제로 인도네시아 핀테크 기업은 '17년 1개에서 올해 6월 기준 125개로 확대

■ 인도네시아 진출 시 필수 고려 요소, 할랄 산업 성장

- 전 세계 최대 할랄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 보유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규모는 1,840억 달러로 전 세계 최대 규모*(전 세계 할랄 소비의 11.3% 차지)이나, 할랄 지수는 말레이시아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이은 5위로 부진
 - * Indonesia Halal Report 2021-2022(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1.10)
 - 식품, 패션, 의약, 화장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 금융(샤리아) 육성을 위해 '21.2월 현지 3개 샤리아 은행을 합병해 세계 최대 이슬람은행 BSI(Bank Syariah Indonesia)출범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규모(2020)

단위: 10억 달러

국가	분야	규모	연평균 성장률 전망(2020-2025)
인도네시아	식·음료	135.0	14.7%
	패션	15.6	8.3%
	제약	5.13	5.8%
	화장품	4.19	12.6%
	미디어	20.7	9.0%
	관광	3.4	19.0%
	이슬람 금융(자산 기준)	120,0	-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Indonesia Halal Report 2021-2022)

- 할랄 산업 육성을 위해 인증을 총괄하는 종교부 산하 할랄보장청(BPJPH) 신설
 - 민간기구인 이슬람단체 올라마협의회(MUI)가 전담하던 할랄 업무를 정부기관인 BPJPH로 이관되고 MUI는 검사와 심의만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조정

할랄보장청(BPJPH) 기관 개요

국가	기관명	내용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접수부터 인증서 교부까지 전 과정 관여 • 할랄 여부 검토는 MUI에서 진행

자료: 할랄제품보증 시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규정 2021년 39호, BPJPH 홈페이지 등

- 이는 정부가 할랄 인증 전반에 대해 관리 및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BPJPH와 MUI간 업무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24년부터 식음료 분야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랄 인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인도네시아 정부규정 2021년 39호 주요 내용

◆ 할랄인증신청 이메일 접수에서 온라인 사이트 접수로 변경

- (기존) LPPOM MUI가 지정한 한국의 할랄인증 지정 업체를 통해 할랄인증청(BPJPH) 접수 이메일로 신청 (2020년)
- (변경)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사이트를 통해 할랄인증 직접 신청
- * 할랄인증 신청 사이트 : <https://ptsp.halal.go.id/>

◆ 할랄 라벨 및 비할랄 정보 부착 의무

- 사업자는 할랄인증 받은 제품에 할랄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함
- 허락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비할랄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 * 할랄인증청(BPJPH) 할랄 로고가 만들어지지 않아 기존에 MUI 할랄 로고 활용
- * MUI 할랄 로고는 이 정부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4년

□ 기존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 할랄인증서 유효기간은 4년으로 2021년 6월 1일자로 변경 시행

□ 할랄 라벨 및 비할랄 정보 부착 의무

- 사업자는 할랄인증 받은 제품에 할랄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함
- 허락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비할랄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 * 할랄인증청(BPJPH) 할랄 로고가 만들어지지 않아 기존에 MUI 할랄 로고 활용(규정의 발효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제 10 장 : 제품 인증 및 해외 할랄인증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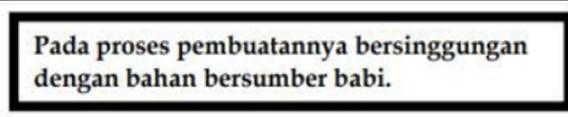
- 제 125 조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해외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 126 조
해외 제품의 할랄인증 신청서는 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이 제출한다.
*공식 대리인의 범위는 인니 진출 관계 법인 및 지사, 지점의 사업자

자료: PT. Green Nature Farm, 할랄제품보증 시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규정 2021년 39호

- 무슬림 소비자들은 할랄(Halal)에 대한 관심이 높아 향후 인니 진출에 있어 중요
 - 무슬림에 있어 금기시(하람, Haram)되는 돼지 원료가 포함된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돼지 원료가 포함 표시가 필수 부착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식품 표기 방법

		<p>☞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돼지 함유"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품은 빨간 글씨로 부착해야 함</p>
<p>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p>	<p>식품</p>	
		<p>☞ [식품] 제조 과정 중 돼지 파생 원료와 함께 제조 시설 및(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접촉하였음</p>
		<p>☞ [의약,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과정 중 돼지 파생 원료와 접촉하였음</p>

자료: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PT. Green Nature Farm

2021년 주목받은 소비 트렌드, 가정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편화되고 있는 가정 간편식
 - 사회활동제한에 따라 기존 쇼핑몰과 음식점 외식이 어려워지고 재택 근무가 확산되며 배달음식이나 가정에서 간단하게 조리가 가능한 즉석 가정 간편식이 인기*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현지 주요 언론(Kompas, Detik 등)
 - 가정 간편식 중에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냉동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냉동식품 섭취량 9.9백만 톤('19) → 11.58백만 톤('20) → 14.48백만 톤('21 전망), 인도네시아 냉장창고협회
 - 현지 주요 언론 Kompas는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드라마·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떡볶이, 라면, 만두 등 다양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
- 가정 간편식 수요 확대에 따라 기업 진출 확대
 - 인도네시아 대표 편의점 Indomaret, 기존에는 즉석에서 섭취가 가능한 식품만 판매했으나, 즉석 조리가 가능한 식품도 판매하기 시작
 - 인도네시아 요리 대가 William Wongso*, '21.4월 본인 이름을 활용해 가정 간편식 신제품 출시
 - * 세계적으로 저명한 요리사인 고든램지에게 인도네시아 대표음식 린당 조리법 전수
 - 한국의 가정간편식 전문 기업 테이스티나인, 인도네시아에 첫 해외법인 설립 추진

인도네시아 간편식 판매 현황

국가	제품	기업명	현황
인도네시아	 <p>요보끼</p>	영풍(제조/한국) PT. Indoguna Utama(수입유통/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라면과 같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간편식 중 하나 • 할랄 인증 취득을 통해 인도네시아 소비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음 • 매운맛, 짜장맛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비자 공략 • 온/오프라인 모든 플랫폼에서 쉽게 구입 가능
	 <p>짜파게티, 너구리 라면</p>	농심(제조/한국) PT. KorinHub수입유통/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기생충'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영화에서 나온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도 인기 •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토코피디아에서는 아직도 두 라면을 패키지로 같이 판매하는 곳 이 존재 • 두 개 패키지로 구입 시 가격은 약 3만 루피아 (2,400원 수준)
	 <p>Rendang Padang Wiliam Wongso</p>	BlackGarlic Jakarta (제조/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저명한 요리 전문가 Wiliam Wongso가 본인 이름을 걸고 개발한 가정 간편식 • 온/오프라인 모든 플랫폼에서 쉽게 구입 가능 • 가격은 23만 루피아(18,000원 수준)

자료: Tokopedia(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BPOM(인도네시아 식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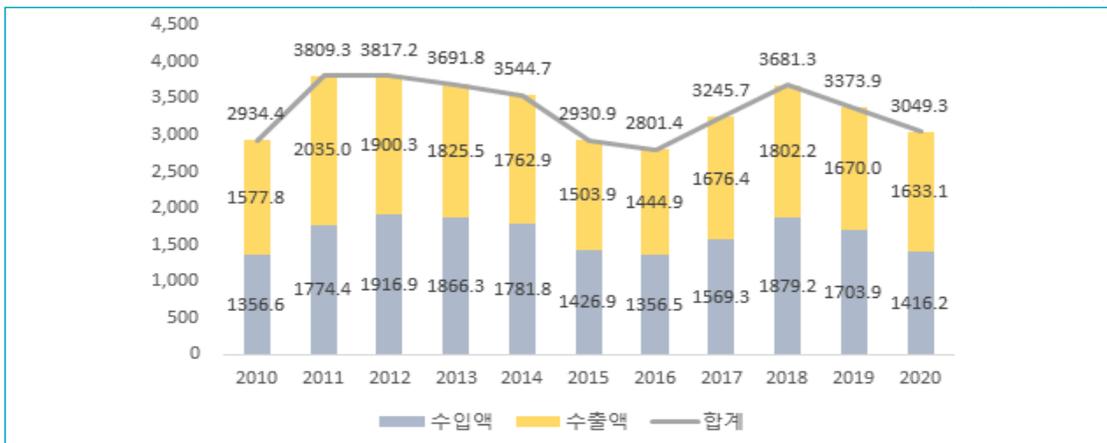
나. 교역

■ 인도네시아 수출입 개황

- 지난 10년간, M자형 추세를 보이는 인도네시아 대외 교역 현황

인도네시아 교역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교역액 변동
 - '15~'16년 주요 교역품인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저유가,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교역액 감소
 - '18년 이후 미·중 갈등과 각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 19 팬데믹 등으로 감소
 - 하지만, '21년에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 증가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
- '20년 내수 침체 심화에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기록
 - 코로나 19로 내수 침체를 겪으며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적은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21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 대비 내수 회복이 느린 추세가 이어지며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6월)
수출액	167,640	180,215	167,003	163,308	102,870
수입액	156,925	187,917	170,388	141,622	91,040
무역수지	10,715	-7,702	-3,385	21,686	11,83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
 - '21년 6월 누적 기준, 중·미·일 수출액은 42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41% 차지
 - 동 기간 한국으로 수출은 약 39억 달러로 8위를 기록, 수출 비중은 약 4%를 차지

인도네시아 주요 교역국 수출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6월)
전체 수출액	167,640	180,215	167,003	163,308	102,870
1 중국	22,808	27,127	27,877	31,776	22,445
2 미국	17,782	18,427	17,647	18,621	11,528
3 일본	17,491	19,480	15,928	13,663	7,990
4 말레이시아	8,454	9,437	8,942	8,131	5,768
5 인도	13,869	13,726	11,774	10,414	5,638
6 싱가포르	12,763	12,992	12,929	10,712	5,497
7 필리핀	6,382	6,825	6,758	5,899	3,916
8 한국	8,084	9,533	7,210	6,507	3,853
9 태국	6,462	6,819	6,213	5,113	3,702
10 베트남	3,587	4,584	5,150	4,941	3,369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 '21년 6월 누적 기준, 중·싱·일 수입액은 397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43.6% 차지
 - 동 기간,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약 46억 달러로 5위를 기록, 수입 비중은 5%임

인도네시아 주요 교역국 수입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6월)
전체 수출액	156,925	187,917	170,388	141,622	91,040
1 중국	35,767	45,349	44,895	39,635	25,658
2 싱가포르	16,889	21,385	17,096	12,341	7,496
3 일본	15,241	17,878	15,609	10,672	6,576
4 미국	8,122	10,148	9,249	8,580	4,977
5 한국	8,122	9,042	8,416	6,849	4,623
6 말레이시아	8,797	8,563	7,725	6,933	4,299
7 태국	9,280	10,878	9,462	6,484	4,251
8 호주	6,009	5,819	5,515	4,647	4,218
9 인도	4,049	5,003	4,295	3,764	3,502
10 베트남	3,229	3,787	3,839	3,131	2,154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품목별 교역 동향

- 원자재·중간재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
 - '21년 6월 기준, 팜오일, 석탄, 합금철, 천연가스, 평판압연 제품 등을 주로 수출
 - '21년 들어 전 세계 경기 회복 기조에 따라 주요 교역품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 호조세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주요 원인은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추진과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석탄 품귀 현상 발생으로 보임
 - * '21년 8월 누적 기준, 對 중국 석탄 수출은 47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50% 증가
 - 현지 기업 및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주로 철강제품, 전자기기(TV, 음향기기 등), 일반차량, 신발류, 기계류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수출 품목 수출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6월)
전체 수출액	167,640	180,215	167,003	163,308	102,870
1 팜오일(1511)	18,513	16,528	14,633	17,365	11,578
2 석탄(2701)	17,868	20,634	18,866	14,548	9,759
3 합금철(7202)	1,339	1,368	2,604	4,745	3,132
4 천연가스(2711)	8,861	10,649	8,849	5,452	3,017
5 평판압연(7219)	575	2,298	3,259	2,993	2,493
6 공업용지방산(3823)	2,991	2,980	2,549	2,917	2,349
7 구리광(2603)	2,365	4,187	1,280	2,412	2,058
8 천연고무(4001)	5,105	3,951	3,527	3,012	2,056
9 원유(2709)	5,196	5,120	1,717	1,397	2,005
10 갈탄(2702)	2,594	3,329	2,767	1,925	1,821

주: '21.6월 HS 코드 4단위 누적 수출액 기준 내림차순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내수 경기 회복에 따라 석유 및 원유와 식음료, 전자제품, 차량부품 등 다양하게 수입
 - '21년 6월 기준, 석유·원유, 전화기, 천연가스, 밀 등을 주로 수입
 - 작년 코로나 19로 이동이 제한되며 감소한 석유와 원유 제품 수입액 증가
 -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 원자재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과 에너지산업 및 산업 공정과 관련된 보일러 기계류, 농업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곡물 종자, 의료산업 성장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CKD)의 수입 수요도 지속 존재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수입 품목 수입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6월)
전체 수입액	156,925	187,917	170,388	141,622	91,040
1 석유(2710)	14,120	17,069	13,085	7,968	6,029
2 원유(2709)	7,064	9,161	5,705	3,392	3,680
3 전화기(8517)	4,802	5,795	5,615	5,963	3,455
4 천연가스(2711)	2,724	3,032	2,507	2,581	1,656
5 밀(1001)	2,648	2,560	2,799	2,616	1,562
6 사탕수수당(1701)	2,072	1,791	1,366	1,936	1,488
7 대두유 추출물(2304)	1,642	2,033	1,659	1,938	1,402
8 차량 부품(8708)	3,165	3,765	3,382	1,842	1,348
9 전자회로(8542)	1,560	1,926	1,586	1,790	1,300
10 자동차처리리기(8471)	2,007	2,346	2,290	2,023	1,204

주: '21.6월 HS 코드 4단위 누적 수입액 기준 내림차순
 자료: Global Trade Atlas (원자료: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2021.9)

● 인도네시아 수출입 주요 경쟁사 현황

- 인도네시아 100대 기업에 선정된 대기업 혹은 그룹사의 수출입 규모가 큰 편이며,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뿐 아니라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도 포함
- 담배, 석탄, 완성자동차(CBU)는 주로 수출에 많이 관여하며 철강 제품, 건설 자재, 석유, 가스, 중장비, 컴퓨터 하드웨어는 수출과 수입이 활발한 품목
- 한편, 내수 생산품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거나 가격경쟁력이 있는 원자재, 부품 및 산업기계 등에 대한 수입 및 협업 수요는 지속 존재

인도네시아 주요 분야 대기업

분야	대표 기업
담배	Gudang Garam (Tobacco), Djarum, HM Sampoerna
건설 자재	Semen Indonesia
정보통신 서비스	Telekom Indonesia
제조업(자동차)	Astra International
석탄	Bumi Resources
컴퓨터 하드웨어	Dragon Computer & Communication
철강 제품	Krakatau Steel, Krakatau Posco
석유, 가스	Pertamina, MedcoEnergi
의약품, 화학	Kalbe Farma, Sanbe Farma, Kimia Farma, Indofarma Sidomuncul, Chandra Asri, Barito Pacific,
기계, 중장비	Ateliers Mecaniques D'Indonesia, United Tractors

자료: 무역관 자체 정리(2021), Forbes(Indonesia's 50 Richest, 2020)

■ 교역 주요 애로사항인 주요 비관세 장벽 및 수입규제

- 인니 정부의 자국 역량 강화를 위한 수입 대체 기조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수입규제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 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국산 부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 조코위 대통령 건설업 국산 부품 사용 독려('21.3)
 - 앞으로도 내수산업 자체 역량 강화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 무역구제 조치 동향('21.6.30 기준)
 - 인도네시아 對 세계 수입규제는 총 46건(반덤핑 33건, 세이프가드 13건)
 - 주로 철강·금속(21건)과 플라스틱·고무(8건), 섬유·의류(10건) 등 내수 생산이 가능하거나 육성중인 산업 보호에 대한 조치

인도네시아 무역구제 조치 현황('21.6)

품목	규제유형	반덤핑		세이프가드		계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철강/금속		19	5	2	1	15	6
화학		1	1	1	0	1	1
플라스틱/고무		7	2	1	1	5	3
섬유/의류		5	0	5	1	9	1
기계		0	0	1	0	1	0
기타		1	0	3	2	2	2
총계		33	8	13	5	46	13

자료: WTO 통계, 인니 정부 관보·통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정리

- 인도네시아 진출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보건부 의료기기(ALKES) 인허가
 -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진출 시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비관세 장벽
 - 해외 인증 준비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다수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전 대비 필요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 세부내용

인증명	SNI	BPOM	ALKES/PKRT
인증마크			
허가기관	Bureau of Standard Nasional (BSN, 인니 국가 표준기구)	Badan POM (BPOM, 인니 식약청)	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보건부)
성격	의무	의무	의무
주요 적용제품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ALKES) 건강보조기구(PKRT)
신청주체	제품 수입업체	제품 유형별 유통허가(PSB)를 보유한 제품 수입업체	의료기기 유통 허가(IPAK)을 보유한 제품 수입업체
획득소요기간	2개월~1년	2개월~2년	2개월~1년
획득소요비용 (제품 당)	USD 10,000~20,000 (실사비용 포함)	USD 7000~5,000	USD 1,000~5,000

인증명	SNI	BPOM	ALKES/PKRT
유효기간	4년	3년(화장품), 5년(일반)	5년
타국 인증 상호인정 여부	미인정	미인정	미인정

주: 대행업체 포함 기준이며, 품목별로 기간 및 비용 상이
 자료: 인도네시아 보건부, 식약청, 국가표준기구 등

- '24년부터 표기 여부가 의무화되는 할랄(Halal) 인증
 - '19.10월부 신할랄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표기 여부가 의무화되었지만 담당 기관인 할랄보장청(BPJP)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 규칙 준비를 위해 '24년까지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유예
 - '21년 정부 규정(PP No. 39, 2021)을 통해 할랄 인증 제도 담당 기관별 혼선이 해소되었고 표기 의무화가 얼마 남지 않아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

할랄 인증 세부정보

인증명	할랄(Halal) 인증	
인증마크		
인증기관	Badan Penyelenggara Jsminan Produk Halal(BPJP), 할랄보장청	
성격	의무(할랄 여부 표기)	
주요 적용제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물품 전반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외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악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인증명	할랄(Halal) 인증
신청주체	제품 제조사(생산설비가 인증 대상)
할랄심사 기관	LPPOM MUI(국내외), Sucofindo(국내), Surveyor Indonesia(국내) 등 3개 기관
프로세스	<p>1. BPJPH를 통해 할랄 신청(http://halal.go.id/) 2. BPJPH에서 신청 접수 후 할랄 인증 심사 기관(LPH) 선택 3. LPH에서 할랄 신청 기업 실사 * 실사는 사업장에서 대면이 원칙, 특이사항(코로나 19) 발생 시 온라인 4. LPH에서 검사 결과를 BPJPH에게 송부 5. BPJPH에서 울라마 위원회(MUI)에 할랄 여부 검토 요청 6. MUI에서 파드와 할랄(할랄 적격성) 검토 결과를 BPJPH에게 전달 7. BPJPH에서 할랄 인증서 교부</p> <p>BPJPH(할랄보장청)에 접수 신청 LPH(심사 기관)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 MUI FATWA(이슬람 율법위원회) 승인을 거친 후 인증서를 발급</p> <p>식품, 화장품,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등급별 차등 적용, 의무 적용 시작 년도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상이), 의류-헤드기어(2026년부터), 생활용품(2026년부터) 등 또한 할랄성을 입증 받게 됨</p> <p>식품과 음료 할랄 인증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p>
획득소요 기간	21일~41일(서류 및 할랄 제품 공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획득소요비용* (제품 당)	USD 10,000~20,000 (현재 기존 MUI에서 책정한 인증 비용 적용 중, 향후 재무부 법령을 통해 개정 비용 공고 예정)
유효기간	4년(기존 MUI 할랄 확인서-Hala Decree 유효기간은 4년, 2년단위 검사)
타국 인증 상호인정 여부	인정 추진 중 (BPJPH에서 상호 인정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없이 별도의 등록과정만 거치는 것으로 협의 중)

주: 대행업체 포함 기준이며, 품목별로 기간 및 비용 상이

자료: PT. Green Nature Farm(무역관 인증자문), Peraturan Pemerintah(PP) Nomor 39, Tahun 2021

-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사전 수입 승인 물량 및 강화되는 통관검사
 - 철강, 섬유 등 109개 항목에 대해 사전수입허가제(Persetujuan Impor) 운영 중
 - 수입 대체를 위해 신청 물량 대비 승인 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

※ 사전수입허가 물량 축소[인터뷰: PT. FCL Logistics, EPC 기업 D사]
 - 사전 수입 승인 물량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
 - 작년 신청량 대비 승인량이 70~80%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30~40% 수준
 - 현지 내수 회복에 따라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전 수입 물량 축소로 납기를 지키지 못해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내수 제품 구입 중

- 더해서 FTA로 인한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수입자의 자격 및 수입화물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추세

※ 수입 허가요건 강화[인터뷰: PT. SPL Logistics, PT. FCL Logistics]

- 코로나 19 이후 화물 전수검사(Redline) 검수 증가
- 더해서 FTA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선납법인세 인상
- * 기존 2.5~7.5% → 변경 7.5~12.5%로 FTA 관세 면제 효과 상쇄

- 반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국내 조달이 어려운 물품은 수입 장려 기조 유지
 - '20년 4월부터 재무부령 34호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 물품 수입 시 세제 인센티브(관세·소비세·부가세 면제)와 통관 인센티브(재난방재청 수입허가 시 필요 인증·인허가 생략) 부여 중
 - 국내 조달 가능 여부에 따라 혜택 품목을 변경하고 있음, 6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어 산소발생기가 부족하자 해당 품목 포함을 골자로 하는 재무부령 개정안을 7월에 발표하여 해당 법령 유지 중('21.10)

코로나 19 긴급 대응 주요 물품 정보

제품군	HS 코드(8자리)	비고
PCR 진단 키트	3822.00.90	-
코로나 19 치료제	3004.90.99	Remdesivir, Oseltamivir, Favipiravir 등
산소 실린더	7311.00.26	-
	7311.00.27	
	7311.00.29	
산소 발생기	9019.20.00	-
체온기	9027.50.10	-
PCR 테스트 장비	9027.80.30	-
	9027.80.40	
산소 호흡기, 공기 청정기	9020.00.00	-
마스크	6407.90.90	N95만 혜택 가능, KF 94 마스크는 해당사항 없음

주: HS 코드가 동일하다고 해도 법령에 명시된 제품이 아닌 경우 혜택 제외
 자료: 재무부령 2021년 92호(Peraturan Menkeu RI nOMOR 92 PMK.04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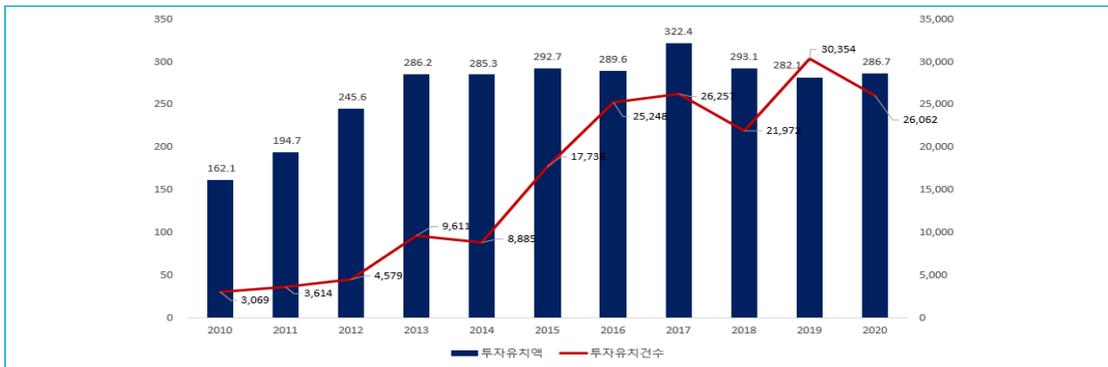
다. 투자

외국인 투자 개황

- M자형 교역 추이와는 달리 '10년 이래 투자유치 증가세를 기록 중
 - 투자 유치액은 '10~'20년 연 평균 6%씩 증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전년 투자 유치액은 '19년 대비 증가
 - 투자 유치 건수는 동 기간 24% 증가, 이는 소액 투자 방식이 많아졌음을 뜻함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유치 추이(투자액, 건수)

(단위 : 억 달러(좌측 축) / 건수(우측 축))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 네덜란드, 한국 등임
 - '21년 6월 기준, 싱가포르가 47억 달러 규모로 인니 최대 투자 유치국이며, 그 다음으로 홍콩(23억 달러)과 중국(17억 달러)으로부터 투자 유입
 - 한국은 11억 달러 규모로 5위, 전체 투자의 7% 수준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주요 국가 투자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2018	2019	2020	2021.6
1	싱가포르	9,193.2	싱가포르 6,509.6	싱가포르 9,779.1	싱가포르 4,711.8
2	일본	4,952.8	일본 4,310.9	중국 4,842.4	홍콩 2,271.6
3	중국	2,376.5	중국 4,744.5	홍콩 3,535.9	중국 1,682.1
4	홍콩	2,011.4	홍콩 2,891.0	일본 2,588.0	네덜란드 1,285.7
5	말레이시아	1,774.9	네덜란드 2,596.8	한국 1,841.9	한국 1,077.2
6	한국	1,604.7	말레이시아 1,357.5	네덜란드 1,422.4	일본 1,038.6
7	미국	1,217.6	한국 1,070.2	말레이시아 1,045.3	미국 799.2
8	버진아일랜드	1,043.3	미국 989.3	미국 749.7	말레이시아 706.9
9	네덜란드	943.1	버진아일랜드 743.8	대만 454.3	스위스 496.5
10	호주	597.4	영국 142.1	호주 348.6	태국 318.9
-	총합	29,308	총합 28,209	총합 28,666	총합 15,650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지역 및 산업별 투자 동향

- 자바섬 위주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자원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지 다양화 추세
 -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등 주요 대도시가 있는 자바섬에 약 73억 달러 투자가 진행되어 과반수(46.9%) 기록
 - '20년부터 말루쿠, 술라웨시, 리아우 등 자원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발생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주요 지역 투자액/투자건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2020			2021.6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1	서부자바	4,793.7	11,031	서부자바	3,032.5	3748
2	자카르타	3,613.3	16,787	자카르타	1,965.9	5493
3	말루쿠	2,409.0	182	말루쿠	1,447.6	61
4	반텐	2,143.6	4,288	중부술라웨시	1,100.7	139
5	술라웨시	1,779.0	388	리아우	1,007.2	251
6	리아우제도	1,649.4	2,143	반텐주	979.2	1341
7	동부자바	1,575.5	4,059	남동술라웨시	910.4	54
8	남부수마트라	1,543.9	662	동부자바	745.8	1335
9	중부자바	1,363.6	2,795	남부수마트라	725.8	222
10	남동 술라웨시	1,268.6	145	리아우 제도	639.7	765
-	총합	28,666.3	56,726	총합	15,650.3	19,432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제조 및 인프라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서비스 업종 투자 증가
 - 금속 분야 35억 달러가 투자되어 가장 큰 비중, 그 다음으로 교통·통신, 식음료 분야
 - 식음료와 기타 서비스 분야는 타 주요 투자 분야 대비 소액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주요 분야 투자액/투자건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2020			2021.6		
	분야	투자액	투자건수	분야	투자액	투자건수
1	금속	5,969.2	1,669	금속	3,478.4	550
2	전기, 가스, 수도	4,613.9	846	교통, 창고, 정보통신	1,759.8	559
3	교통, 창고, 정보통신	3,580.4	1,588	식음료	1,502.2	1,216
4	인쇄	2,191.4	2,209	광산	1,452.8	382
5	광산	2,005.1	1,199	전기, 가스, 수도	1,445.8	297

연도	2020			2021.6		
	구분	분야	투자액	투자건수	분야	투자액
6	운송수단	1,742.5	2,598	부동산	1,274.1	863
7	부동산	1,592.1	3,856	운송수단	961.2	624
8	식음료	1,184.2	1,718	화학, 제약	818.2	779
9	농업, 산동물	942.8	784	농업, 산동물	485.1	647
10	화학, 제약	942.0	1,904	기타 서비스	437.4	3,295
-	총합	28,666.3	56,726	총합	15,650.3	19,432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투자(현지진출) 애로 요인

- 행정 처리에 있어 불확실성 존재
 - 투자부나 중앙정부에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인허가를 쉽게 승인해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은 지방정부 소관
 - 지방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투자 결정 후에 불확실성이 존재

※ 행정 불확실성 예시[인터뷰: PT. Doowang Consulting]
 - 인도네시아 투자부에서 가스 인프라 투자유치를 위해 K사에게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명확한 지원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진출 지연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지분 제한과 현지 기업 필수 협업 지정 업종 존재
 - 올해 옴니버스법 시행령(대통령령 10호)에 따라 투자금지 분야가 20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되었으나, 일부 분야는 아직도 현지 기업과 협업이 필요하거나 지분 취득에 제한
 - 중소기업과 협업 업종의 경우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한 부분 상당수 존재

※ 지분 취득 제한 예시[인터뷰: 현지 진출 제약사 J사]
 -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통해 의료기기 유통에 대해 외국인 지분 취득 제한 철폐
 - 하지만 의약품(완제/원료)는 생산 법인 설립만 100% 외국인 투자로 가능하고 유통 인허가는 외국인 지분 취득이 제한되어 현지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필요
 -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프린터 잉크(49.4%), 의류(38.9%), 가죽제품(37.2%), 소프트웨어(33.5%), 화장품(12.6%) 등, 인도네시아 국립대 경제학부와 인도네시아 위조상품배척회 공동연구('20)
 - 한국 수출·투자 기업이 상표 무단 선등록 행위를 발견했을 때도 자국민 보호 경향이 강하고 형식적인 요소를 우선시하는 사법부 성향에 따라 외국인이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어려움

- 이를 방지하고자, KOTRA IP-DESK를 통해 사전 진출 전부터 상표권 등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지식 재산권 현지 동향인터뷰: KOTRA 자카르타무역관 IP-DESK

- 최근 한국기업 T사 상표가 현지 대리점에 의해 선등록되어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에서는 행정적 정당성만 고려해 대리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음
-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진출 시 위조상품·선등록 문제와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상표명·특허 등록이 필요하며 KOTRA IP-DESK에서는 일부 비용 및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부분 참고 필요

- 급속도로 상승하는 현지 숙련 인력·대졸자 임금에 따른 채용 애로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1월에 경제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주별로 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자카르타의 올해 최저임금은 4.4백만 루피아(약 36만 원) 수준이나 이는 국가 기초 교육만을 이수한 인력인 경우이며 대졸 신입사원은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HR 전문 기업인 PT. Cahaya Research 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력직 급여(근무경력 5년 이상) 임금 인상률은 33% 수준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24%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함(업종별, 역량별 차이 존재)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최저임금만 생각하고 현지 진출하는 경우 적합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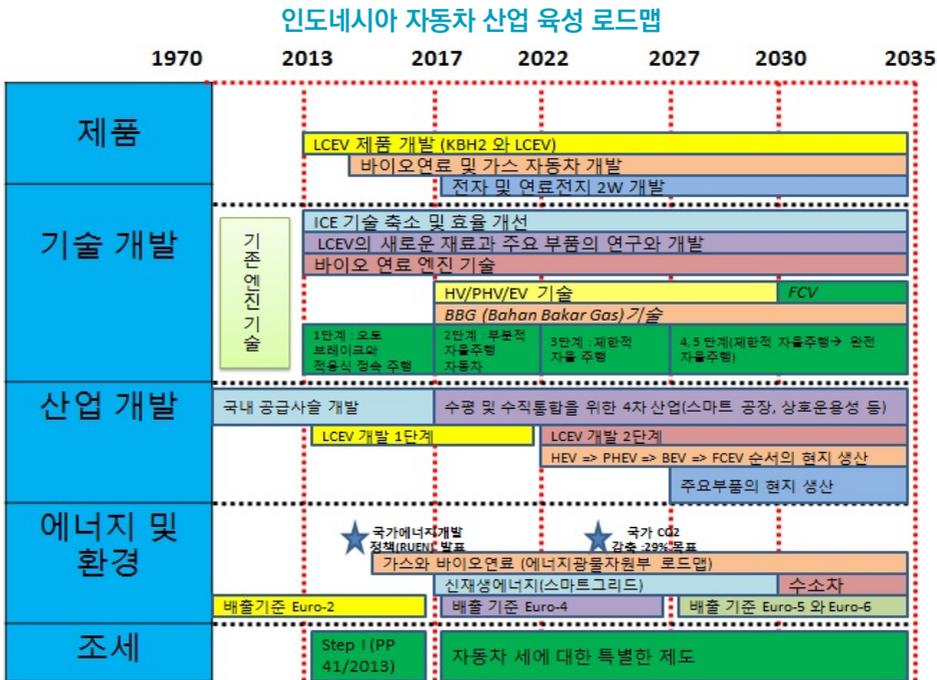
※ 현지 인력 채용시장 동향인터뷰: PT. Cahaya Research

- 인도네시아 근로자 임금은 업종별, 근무 형태별, 경력 등에 따라 상이
- 쉽게 인력 대체가 가능한 단순 서비스·제조업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대졸초임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6백만 루피아(48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력 5년 이상 직원의 경우 서비스업은 1천만 루피아(80만원), 제조업은 9백만 루피아(72만원) 선으로 보임, 서비스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개인의 역량이 성과로 연결돼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 많은 편
- 다만 위의 급여는 대략적인 수준임, 경력직의 경우 실제 업무 역량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고,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기대하는 경우 한국인에 준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채용이 가능
- 가끔 새롭게 진출한 기업들을 보면 급여 지출을 아끼기 위해 금액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해 기대에 못미치거나 설사 역량 있는 직원을 낮은 금액에 채용했다고 해도 해당 직원은 정당한 대우를 못받았다고 생각해 빠른 시일 내 이직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급여를 조금 더 주더라도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더해서 구직자들에게 좋은 기업의 기준은 급여와 법으로 보장한 국민건강보험(BPJS) 외 추가 의료 보험(사보험)과 교통비 및 식대와 같은 제반 수당 여부로 해당 부분도 구인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 부분은 PT. Cahaya Research HR 업무 주요 지역인 수도 자카르타와 주요 도시를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직 시 참고용으로만 확인 바람
- 실제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네시아인이 경력에 대한 전문성이 한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보여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태도나 적극성 등을 보고 채용하는 경우도 존재

라. 주요 프로젝트

전기차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 공해문제 해결과 새로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생태계 조성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해문제를 해결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2륜 이상의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2019년 8월 대통령령 관보 게재)
 - 전기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 최대 생산국으로 풍부한 성장 잠재력 보유
 - * 21백만 톤으로 세계 1위 규모,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ies Summaries(2021)
 - '30년까지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생산 및 수출기회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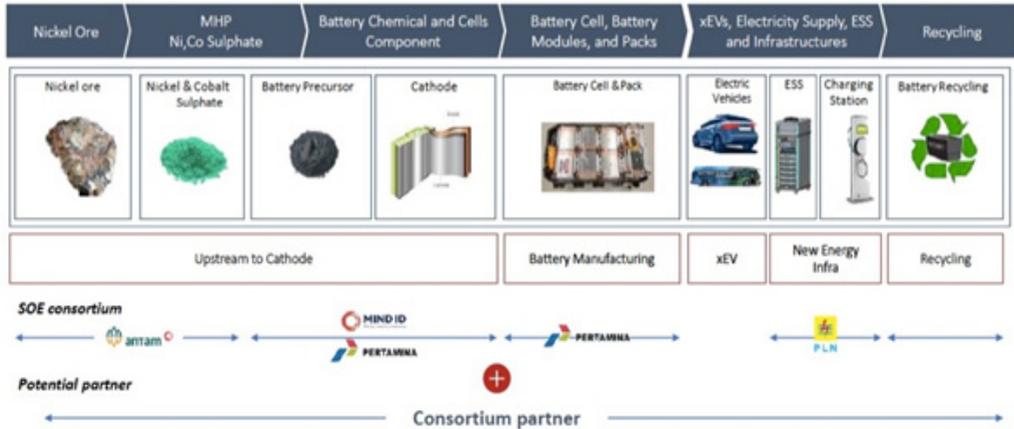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전기차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박차
 - 전기차 배터리의 주 원료인 니켈 원광 수출 금지('20.1), 자국 내 다운스트림 육성
 - 자동차 생산 시 국산부품사용요건(TKND) 지속 확대*
 - * 4륜 이상 전기자동차('30년까지 국산부품 80%), 2륜 및 3륜('26년까지 국산부품 80%)
 - 더해서 '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5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
 -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21.6)
 - 정부와 국영기업 4개사가 출자한 법인(PT. Industri Baterai Indonesia)*을 설립, 이차전지(전기차 배터리) 생산 생태계 구축 노력

- * PT. Aneka Tambang(광산), PT. Indonesia Asahan Aluminium(광산), PT. Perusahaan Listrik Negara(전력), PT. Pertamina(석유) 등 4개사 합작 법인
-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채굴은 광산 국영기업이 수행하고 배터리 소재 및 생산은 석유 국영기업이, 그리고 재활용은 전력기업이 수행하는 방식임

PT. Industri Baterai Indonesia 전기차 벨류체인 구축 계획



자료: PT. Industri Baterai Indonesia(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주최 웨비나, '21.6)

● 전기차 판매 동향

- '20년부터 완성차 수입형태로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해당 연도에 318대가 판매
- 올해 8월 기준, 전년 전체 대비 79.2% 증가한 570대 판매
- '20년까지 중국의 DFSK와 현대자동차가 주로 판매되었으나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 전기차가 대부분 판매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전기차 브랜드별 판매 현황(내연기관 차량 제외)

단위: 대



자료: 인도네시아 자동차생산자협회(GAIKINDO),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재가공

-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등 다양한 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참가 중
 - 한국기업 진출은 크게 ①LG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 배터리 패키지, ②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현지 생산공장 설립, ③현대자동차 전기차 현지 생산 형태로 나뉨
 - 추가로 에디슨모터스와 같이 전기버스 자체를 수출(20.9)한 경우도 존재
 - 한국 기업들의 현지 전기차 생태계 구축 움직임에 따른 파생수요 발생 전망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주요 동향(2021)

주체	분야	발표 시기	주요내용
Mining Industry Indonesia (MIND ID)	전기차 배터리	20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켈광산을 운영하는 자회사 Aneka Tambang과 국영 석유기업 Pertamina, 그리고 국영 전력기업 PLN과 협업하여 '인도네시아 배터리'라는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 • Mind ID는 광업부문을 담당하고, 중간 가공과 유통 부분을 Pertamina와 PLN이 관리할 예정
정부 (관광창조경제부)	전기차	20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정부 중점 육성 관광지인 토바호수, 리쿠팡, 보로부두르, 만달리카, 라부안바조 등에 전기차 우선 도입 추진
고객	전기차	20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전기차,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해 탄소배출 제로 도전 발표 • 전기차·오토바이 제조업체와 임대계약 등을 통한 협력을 통해 전환 추진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20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12억 달러 배터리셀 합작공장 건설 시작 •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인근인 카라왕 산업단지에서 약 10만 평 규모로 건설되며 연간 전기차 배터리 약 15만대 분 이상인 10기가와트시(GWh) 배터리셀 생산 • '23년 상반기 완공, '24년 양산 목표
정부 (재무부)	전기차	202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배터리 혹은 전기 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10월 16일부 사치세 면세 * Peraturan Pemerintah No. 74 Tahun 2021 • 추가 혜택(출퇴근 대상 제외, 몇몇 지역에서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정부	전기차	202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인도네시아 방문 • 인도네시아 정부 주최 전기차 로드맵과 친환경 정책 행사 참석을 통해 협력 논의 • 내년 발리 G20 정상회의 의전차량으로 현대 제네시스 전기차 선정

주: 과거('21년 이전) 동향은 KOTRA 2021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참고
 자료: 언론사 및 정부 발표 종합

■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 올해 연말 재개를 목표로 추진되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 정부는 정부 정책 우선순위가 코로나 19 대응으로 바뀌면서 수도 이전 사업 순연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신수도 개발 의지를 재차 밝히며('21.9) 개발 완료까지 15~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신수도 이전을 위해 법령에 명시된 자카르타의 수도 권한 이전 법령 입안이 인니 하원에 제출(21.10)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IKN(Ibu Kota Negeri)
- 목적: 동부지역개발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 추진기관: 국가개발기획부, 공공주택사업부, 토지청, 교통부, 재무부, 정보통신부, 내무부, 신수도정책단, 주요 공공기업 등
- 추진계획
 - 수도 이전 예비조사(2017~2019)
 - 법제도 마련, 마스터플랜 등 수립(2020)
 - 토지보상, 실시설계, 신수도 착공(2021)
 - 신수도 조성(2022~)
- 현황: 코로나 19, 법령 수정 문제 등에 따라 착공 전(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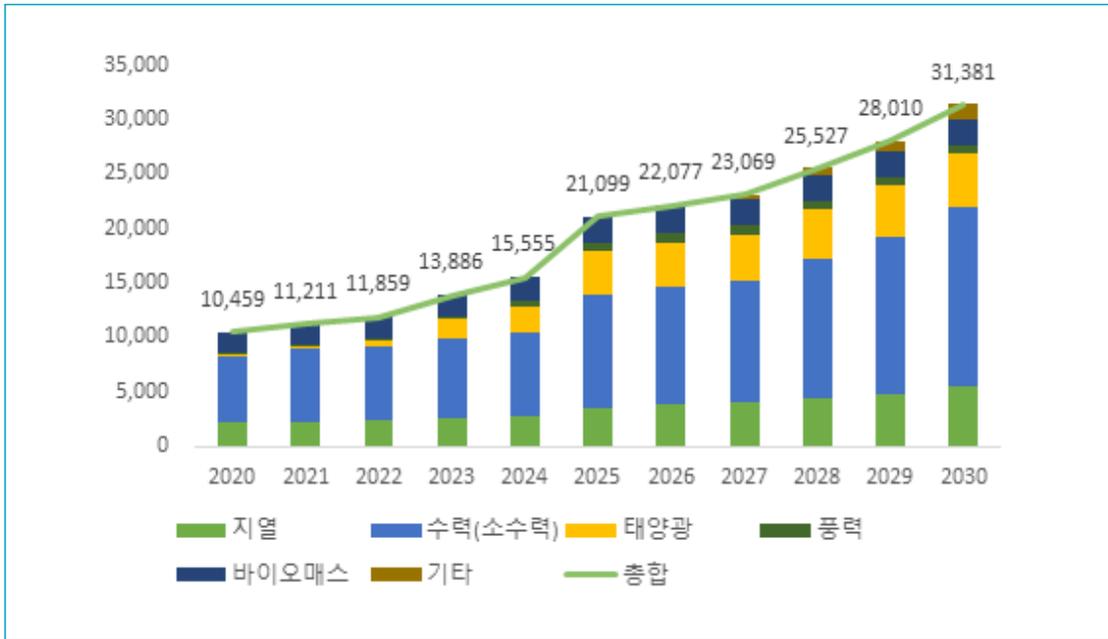
자료: 한국 국토교통부, 현지 언론 기사 종합

- 한국은 신수도 건설에 동참하고 있어 다양한 진출 기회 창출 전망
 -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스마트시티로 조성 지원
 - 이를 위해 한국 정부·공공기관·기업이 함께 '인니 수도이전협력 팀 코리아'를 구성해 인니 국회·정부·지자체 등과 함께 '수도이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 신수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가 실시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수립 프로젝트를 승인받아 타당성 조사 시작(21.9)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탄소 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예정
 - 10월 발표한 인도네시아 10개년 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조달 목표가 두 배 가까이 증가
 - 하지만 아직까지 석탄과 가스, 디젤 등이 전체 에너지 믹스에 85.6%(62.4GW) 차지(21.4)
 -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수력·지열·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총원 계획



자료: RUPTL 2021-2030

-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자재 조달 관련 다양한 수요 파생 전망
 - IPP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위해 걸림돌로 지적받던 전력구매방식과 발전자산 양도 의무 일부 개정(에너지광물자원부령 2020년 제 4호)
 -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인 Cirata 저수지 부유식 발전소(145MW) 건설이 아랍에미리트 국영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추진 중(21.8)

내년도 정부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

- 4가지 분야 우선 투자유치 추진
 - 인도네시아 투자부에서는 8월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웨비나 개최*
 - * Indonesia Investment Webinar Series 2021(Investment Policies and Opportunities Amid Pandemic)
 - 인니 정부에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투자 유치를 계획한 분야는 내년 정부개발계획 중 ①노동 집약적 제조업, ②고부가가치 생산 가능 광업, ③신재생에너지, ④인프라 분야 등임

인도네시아 정부 내년도 투자유치 우선 분야



자료: Indonesia Investment Webinar Series 2021,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해외시장뉴스

- 우선 투자유치 분야 개발을 위해 세부 프로젝트 계획 중
 - 인도네시아 투자부에서는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에 의거해 약 105억 달러 규모 33개 프로젝트를 추진
 - 그 중 21개(64억 달러)는 타당성 조사 중이고 12개(41억 달러)는 이미 검토 완료
 -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①관광, ②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③원자재 통합 개발 산업지역, ④항구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 등으로 구분

타당성 검토중인 21개 프로젝트 개요

연번	분야	주요내용
1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투자규모: 1억 5천만 달러(6개 프로젝트) • 주요지역: 보로부두르 사원, 롬복-만달리카 해변, 라부안바조 해변, 와카토비 해변, 리쿠팡 해변, 라자얌팟 제도 등
2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투자규모: 6억 3천만 달러(7개 프로젝트) • 주요지역: 라동, 탄중부탄, 타나쿠닝, 타칼라 등 4개 산업단지, 갈랑 바탕, 팔루, 타소롱 3개 경제자유구역
3	원자재 개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투자규모: 25억 달러(6개 프로젝트) • 주요지역: 모로왈리(니켈), 콜라카(니켈), 할마헤라(니켈), 코타바루(철), 카리문(알루미늄), 코타와링(철)
4	기반시설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투자규모: 31억 달러(2개 프로젝트) • 주요지역: 비통 항구, 소롱 항구

자료: Indonesia Investment Webinar Series 2021,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해외시장뉴스

-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프로젝트는 인프라(7개)와 비인프라(5개)로 구분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12개 프로젝트 개요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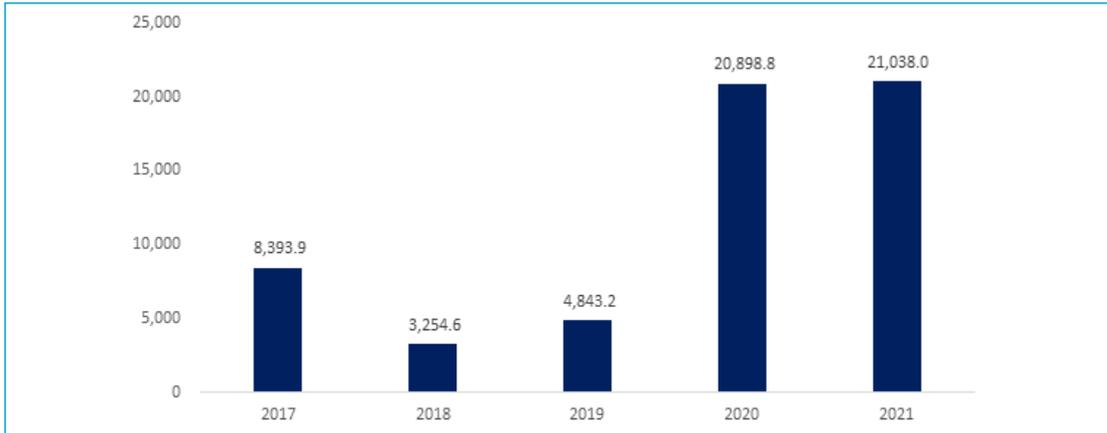
연번	구분	지역	프로젝트명	총 투자규모	투자 참고 정보
1	인프라	Bekasi regency, West Java	Proving Ground Motor Vehicle Roadworthiness Testing and Certification Agency Bekasi	112.4	IRR: 11.0%
2		Singkawang City, West Kalimantan	Singkawang Airport	117.1	IRR: 12.3% NPV: 15.4
3		South Tangerang City, Banten	Waste to Energy Facility in South Tangerang	120.8	IRR: 10% NPV: 36.2
4		Riau Islands	Batam-Bintan Bridge	1,245.6	IRR: 11.2% NPV: 3.9
5		Semarang City, Central Java	Jatibarang Waste to Energy Facility	198.60	IRR: 13% NPV: 48.4
6		Special Region of Yogyakarta	Piyungan Waste Treatment	121.4	IRR: 30.5% NPV: 174.1
7		Badung Regency, Bali	Provision of Kuta Integrated Utility Panel	79.4	IRR: 11.3% NPV: 2.2
8	비인프라	North Lombok, West Nusa Tenggara	Five-star hotel	19.2	IRR: 18.2% NPV: 19.2
9		North Kolaka, Southeast Sulawesi	HPAL smelter	625.6	IRR: 18% NPV: 161.7
10		West Sumbawa, West Nusa Tenggara	Seaweed	USD 1,107 – 1,191	IRR: 1.18% NPV: 214.6
11		Tana Toraja, South Sulawesi	Coffee plantation	USD 6.9	IRR: 22.21% NPV: 8.6
12		Karawang, West Java	Electric vehicle battery	USD 1.5	IRR: 15.3% NPV: 10.22

자료: Indonesia Investment Webinar Series 2021,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해외시장뉴스

■ 인도네시아 민관협력개발(PPP) 프로젝트

- 안정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지속 확대 중
 - 정부 자체 예산만으로는 모든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PPP 프로젝트 협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PPP 프로젝트 추진 규모(2017~2021)



자료: Indonesia PPP Book

- 공항, 항만, 도로 및 교각, 철도, 수처리 시설 및 관개 시설, 식수, 폐수 처리, 고형 폐기물 처리, 정보통신 기술, 전기, 석유 및 가스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

입찰 준비가 완료된 프로젝트

연번	프로젝트명	투자규모 (십억 달러)	주요내용
1	Cikunir-Karawaci 순환고속도로	1.8	IRR: 12.07%, NPV: USD 220.20M 45년 보장
2	Kaml-Teluk Naga-Rajeg 고속도로	1.3	IRR: 10.58%, NPV: USD 44.54M 40년 보장
3	Semanan-Balaraja 고속도로	1.1	IRR: 12.04%, NPV: USD 4.43M 40년 보장
4	South Sentul-West Karawang 고속도로	1.1	IRR: 12.08%, NPV: USD 103.35M 40년 보장

자료: Indonesia Investment Webinar Series 2021,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해외시장뉴스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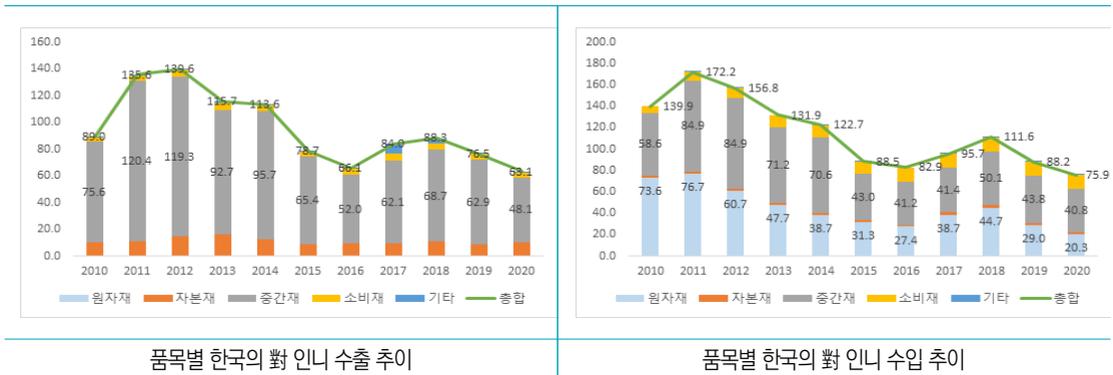
가. 교역

■ 한국과의 수출입 개황

- 인니 총 교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거나 교역액 감소폭이 더 큰 한-인니 교역 추이
 - '10~'20년 간 인도네시아 전체 교역규모는 연평균 0.4% 증가했으나, 한국과의 교역액은 연평균 4.9% 감소
 - '11년 양국 간 교역액이 308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 특히, 전반기('11~'15)에 비해 후반기('16~'20)에 교역액 33% 감소
- 교역액 지속 감소 추세 원인은 교역품 변화, 인니 정부 수출입 규제 강화,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보임

한-인니 교역액 추이(2010~2020)

(단위 :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에 따라 한-인니 교역액은 '18년 수준 회복 전망
 - '21.9 기준 한국과 인니 교역액은 전년 동 기간 대비 34% 증가한 135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전체 교역액 근접
 - 수출(36% 증가), 수입(33% 증가) 모두 전년 대비 호조 기록

■ 한국의 對 인니 주요 수출품목 동향

- 수출 상위 10개 품목 동향
 - '11년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에 달했지만 '20년 46%로 감소

- '21.9 기준,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제품 등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도체, 정밀화학제품 등이 추가되고 기계류, 영상기기가 제외됨

한국의 對 인니 주요 수출품목 변화

(단위 : 억 달러)

순위	2011		2021.9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석유제품	64.6	합성수지	5.5
2	철강판	9.0	철강판	5.2
3	편직물	7.1	석유제품	3.3
4	합성수지	5.8	편직물	2.8
5	합성고무	4.0	합성고무	2.7
6	건설광산기계	3.4	반도체	2.5
7	영상기기	1.8	정밀화학원료	1.6
8	무선통신기기	1.7	기타석유화학제품	1.4
9	기타직물	1.3	섬유및화학기계	1.2
10	섬유및화학기계	1.3	기타정밀화학제품	1.1
10대 품목 소계		100.1	10대 품목 소계	27.3
총 수출액		135.6	총 수출액	59.2

주: 품목 구분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선 다변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 코로나 19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

한국의 對 인니 주요 수출품목 수출액 감소 동향과 주요 원인

품목명	수출액 변동('11→'20)	주요 원인
석유제품	65억 달러 → 3억 달러	- 한국 석유회사 원유 정제설비 고도화에 따라 저가품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선 다변화 추진 - 국제유가 하락, 바이오디젤 의무 사용 프로그램 등도 수출 감소 영향 * 국제유가 '12년 100 달러 → '16년 40 달러 → '20년 35 달러 * '08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사용 의무로 내년 40%까지 비율이 확대될 예정(B40)
기계	7억 달러 → 1억 달러	- 중국산 저가 제품 인니 진출 확대로 한국 수출 영향* * 중국산 비중 '11년 11% → '20년 35%
철강판	9억 달러 → 5억 달러	-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 '18년 867 달러/톤 → '20년 671 달러/톤
기타	-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인니 내수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20년 인니 수입액 전년 대비 16.9% 감소 -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국산부품사용의무(TKDN) 확대* * '21년 15% → '22년 35% 확대 목표 - 수입물량 쿼터제 확대

주: 품목 구분은 MIT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조사

-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 국가가 한국산 제품의 인니 수출 주요 경쟁국

2020년 한국의 對 인니 주요 수출품과 경쟁국 동향

(단위 : 억 달러)

품목명(MTI 3)	국가(순위)	수입액	수입 점유율
합성수지(214)	싱가포르(1)	6.9	18%
	태국(2)	5.0	13%
	한국(3)	5.0	13%
철강판(613)	남아프리카공화국(1)	4.6	33%
	카자흐스탄(2)	1.3	9%
	한국(7)	0.6	5%
편직물(436)	중국(1)	5.6	40%
	한국(2)	3.2	23%
	홍콩(3)	1.5	11%
합성고무(215)	한국(1)	2.1	38%
	일본(2)	1.0	18%
	싱가포르(3)	0.4	7%
반도체(831)	한국(1)	4.5	18%
	싱가포르(2)	4.5	18%
	대만(3)	3.8	15%
기타석유화학제품(219)	중국(1)	3.1	26%
	싱가포르(2)	1.5	13%
	한국(4)	1.2	10%
섬유 및 화학기계(721)	중국(1)	6.8	38%
	일본(2)	1.6	9%
	한국(5)	1.1	6%
기타정밀화학제품(228)	중국(1)	4.3	20%
	싱가포르(2)	3.9	18%
	한국(4)	2.1	10%

주1: 국가별 수입 품목 비교를 위해 HS 6자리로 추출한 후 MTI 3자리 구분에 맞추어 변환

주2: 석유제품은 대기업 수출 위주로 제외, 정밀화학원료는 MTI 변환 불가로 제외

주3: 품목은 '21.9 한국의 對 인니 10대 수출품 위주로 선정

자료: Global Trade Atlas

■ 한국의 對 인니 수출 물동량 동향

- 수도 자카르타와 제 2의 도시 수라바야 위주 물동량 집중
 - '21년 8월 기준, 한국산 제품의 對 인니 수출 전체 물량은 262만 톤 수준
 - 동 기간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항구와 제 2의 도시 수라바야 탄중 페락(Tanjung Perak) 항구에 한국 전체 물동량 64% 집중
 - 그 밖에 칼리만탄, 술라웨시 등 광물자원과 인프라 개발에 따른 일부 물동량 존재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 물동량 추이

(단위 : 천 톤)

순위	2019		2020		2021.8	
	항구명	물동량	항구명	물동량	항구명	물동량
1	Tanjung Priok (자카르타)	2,173	Tanjung Priok (자카르타)	1,913	Tanjung Priok (자카르타)	1,417
2	Merak (칠레곤)	569	Tanjung Perak (수라바야)	386	Tanjung Perak (수라바야)	264
3	Tanjung Perak (수라바야)	484	Tuban (터반)	209	Merak (칠레곤)	158
4	Tanjung Bara.. KL (쿠타이)	471	Tanjung Bara.. KL (쿠타이)	170	KOTABARU (반자르마신)	110
5	Tuban (터반)	428	Merak (칠레곤)	153	Tanjung Bara.. KL (쿠타이)	85
-	총합	5,318	총합	3,842	총합	2,623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컨테이너 운임비 부담 증가
 - '20.4분기부터 컨테이너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운임비도 증가하고 있음
 - 현지 물류업계에서는 과거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현재 운임비에서 당분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

한-인니 컨테이너 운임비 변동 동향

구분	부산 → 자카르타(20FT)	부산 → 자카르타(40FT)
'20.2Q~3Q	USD 200 ~ 250	USD 400 ~ 500
'21.10	USD 680 ~ 900	USD 1,150 ~ 1,750

주: Full Container 기준

자료: iContainers,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물류기업 문의내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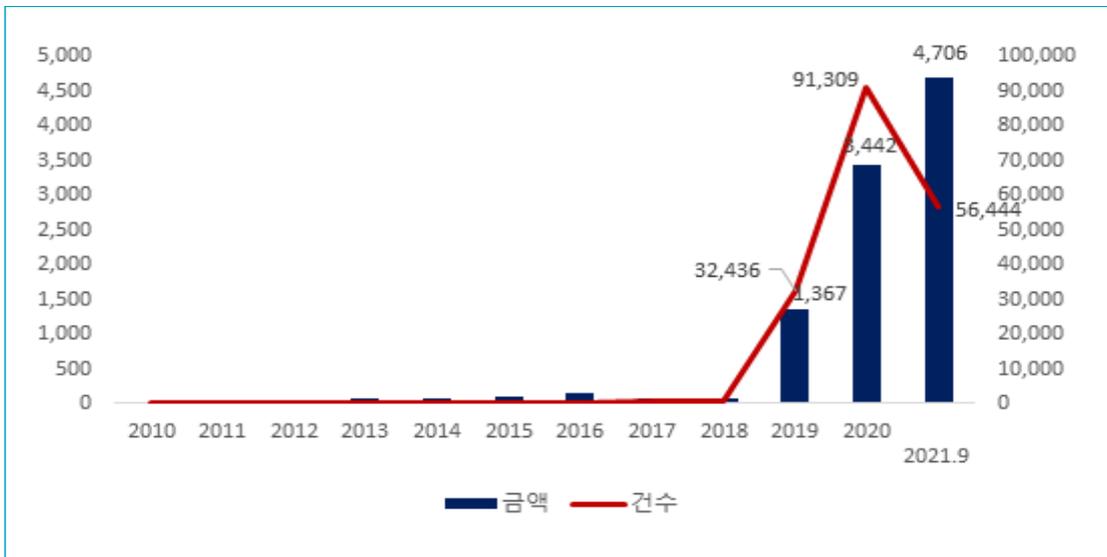
- '11년 상위 5개 품목(석유·철강·편직물·기계·합성수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했지만 '20년 30%로 낮아짐
- 특히 석유제품은 6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8%를 차지했지만, '20년 3억 달러로 수출액 대폭 축소

■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 역직구 활성화에 따라 '1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한국의 對인니 전자상거래 수출
 - '19년 對 인니 전자상거래 수출은 1.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83% 증가
 - '21.9월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4.7백만 달러로 전년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을 이미 초과
 - 특히, '21년 들어 소액결제 비중이 줄고 대형 결제 비중 증가

한국의 對 인니 전자상거래 수출액 추이

(단위 : 천 달러(좌측 축) / 건수(우측 축))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TRASS)

- 전자 기록 매체, 화장품, 헤어제품, 신발류 등이 인기 수출 품목
 - '21.9 기준, USB와 같은 전자 기록 매체가 전체 수출 52% 차지(2.5백만 달러)
 - 그 다음으로 화장품, 헤어제품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출되고 있고, 특이하게 인쇄서적도 많이 수출되고 있음

한국의 對 인니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액 품목('21.9)

(단위 : 달러)

순위	품목(HS 4단위)	수출액
1	비휘발성 기억장치(8523)	2,459,664
2	기초화장용 제류(3304)	577,970
3	두발용 제품(3305)	431,355
4	신발류(6402)	322,162
5	인쇄서적(4901)	140,131
6	플라스틱 제품(3926)	60,551
7	세발자전거(9503)	52,746
8	인쇄된 서화 및 사진(4911)	47,620
9	기타 의류(6307)	37,610
10	분류되지 않은 조제 료품(2106)	23,314
총합		4,706,104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TRASS)

수출 시 주요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CBT 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수출 시 사전 유의
 - '20.1월부 탁송화물 면세한도가 75달러에서 3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
 - * 탁송화물에 대한 소비세 및 내국세에 대한 재무부 개정(No.199/PMK.010/2019)
 - 3달러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가 필요하고, 1,500달러 이상인 경우 BPOM, SNI, ALKES 등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을 득한 후 정식 통관 필요

탁송화물 금액에 따른 적용 수입 세금 요율



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청,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 최근 Shopee, Lazada 등 역직구 플랫폼 내 판매하는 제품 중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에 대한 인증여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Shopee, 현지 리셀러 인터뷰 실시 결과

- 현지 인증을 위한 서류 준비

- BPOM, SNI, ALEKS 등 인증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일부는 인도네시아에서만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 보다 신속한 인허가 취득을 위해 사전에 서류 구비 필요

- 현지 수입통관제도 이해

-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제도는 선 통관 후 감사 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선적 전 검사를 시행
- 세관에서 통관되었다고 해도 모든게 끝난 것이 아니라 추후 수입가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조정관세 및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전 유의 필요

※ 현지 인증 서류 주요 애로사항[인터뷰: PT. SPL Logistics]

- 2007년 7월 1일부 자카르타 항만세관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면서 수입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수입화물 검사 시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가액을 유사제품 가격 조화, 시장판매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어 통관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해야 함
- 감사 시 수입실적을 인정받는 자료로는 Sales Contract, Purchase Order, Remittance Slip, Email 교신, 수입대금 송금내역 등이 있으며 완벽하게 구비 시 크게 문제는 없음

■ 한 인도네시아 CEPA 발효 시 예상되는 혜택

- '20년 12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최종 타결

- 한국은 수입품목(95.5%), 수입액(97.3%) 관세 철폐,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93%), 수입액(97%) 관세 철폐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개방 내역

한국 시장 개방	인도네시아 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산물(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측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기 체결 자유무역협정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 (냉연·도금·열연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특히, 사용자 특별면세제도(USDFS)와 유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자동차, 철강 분야 우리 기업들의 혜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3-5%, 즉철), 벙커씨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은 바,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 철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 개방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정리

- 높은 수준의 규범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겪는 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아세안 FTA와 한-인니 CEPA 원산지 증명 비교

품목	개선내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섬유, 의류	단순화	업계활용 불편한 특수기준 규정 (원사기준, 공정기준, 결합기준)	특수기준 삭제
기계, 전자	기준완화	역외산 부분품 사용 난해 (세번변경기준, 역내 부가가치율 40% 이상)	역외산 부분품 사용 용이
자동차부품	선택기준 확대	일부 품목은 단일기준 활용 (세번변경기준 없이 역내부가가치율만 적용)	모두 선택기준으로 변경 (세번변경 or 역내부가가치율)
철강	기준완화	일부 스테인레스 품목은 냉연공정시에도 원산지 불인정	냉연공정시 스테인레스 품목 원산지 인정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정리

■ 한국기업 진출 성공 및 실패사례

-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대형 발전소 부품납부 성공
 - H사는 국내 발전사에만 납품을 하던 중 '15년 처음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방문, 현지에 진출한 한국 발전소와 부품 납부계약 체결
 - 이를 통해 해외수출판로 다각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KOTRA 지사화 사업 포함 다양한 전시회·사절단 참가를 통해 진출 기회 발굴 추진
 - 현지 최대 발전기업 P사와 3만 달러 규모 부품 납부 계약을 추진하며 언어적인 문제, 한국보다 느린 현지 의사처리 과정, 그리고 세관 통과 등 애로사항 발생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진출을 위해 KOTRA 지사화 서비스를 이용, 지사화 담당자를 통해 현지 문화 이해도 제고와 현지 다양한 네트워크(통관·현지법 전문 기업 등) 구축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대형 플랜트 부품납부 성공
 - B사는 주력시장인 미국·중국 시장에 이어 동남아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희망
 - 특히 석유화학 산업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지역 진출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장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KOTRA 지사화 사업 가입
 -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화상상담을 통한 제품 시연과 같이 지속적인 소통과 시기 적절한 샘플 발송을 통해 바이어와 신뢰관계 구축
 - 이를 통해 지사화 사업 3개월 만에 현지 대형 바이어 P사와 1.5만 달러 규모 납품 성공, 현재 독점계약 논의 중

- (성공사례) 할랄 인증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 무슬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특성상, 할랄 인증 여부는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기본적으로 무슬림 소비자들은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이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이 할랄 인증을 통해 현지 높은 시장 점유율 기록 중
 - D사는 바이오 의약품 사례나 규정이 없어 종교재판까지 진행하며 3년에 걸쳐 할랄 인증 취득, 이후 5번째 후발주자임에도 유일한 할랄 의약품이라는 강점을 살려 약 60% 시장 점유율 기록 중*
 - 이 외에도 삼양 불닭볶음면, 할랄 제품 인증 이후 판매가 증가해 현지 라면 대비 7배 이상 높은 가격에도 시장 점유율 7.6%로 3위 기록(21.3 기준)

인도네시아 한국산 할랄 소비재(의약품 포함) 판매 현황

국가	제품	기업명	할랄 인증
인도네시아	 허니버터 아몬드	길림양행	MUI
	 요보끼	영풍	MUI
	 땡기머리	두리화장품	MUI
	 에포디온	대웅인피온	MUI
	 실테나필 등 구강용해필름(ODF)	서울제약	MUI

자료: 할랄 소비재 수출시장 현황 및 수출확대 방안(한국무역협회, '20.12), 언론기사 종합

- (실패 사례) 민감품목(주류)에 대한 세관의 자의적 세번 분류로 통관 지연
 - 수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업체 측에서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 문의
 - 이전까지 동일 제품으로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통관 허가를 내주지 않음에 따라 현지 수입업자 측 물량 조달 문제 발생
 - 통관 거부 사유는 소비세 부분에 문제로, 무슬림 인구가 87%로 주류 수입 관련 규정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주류의 경우수입 통관시 납부하는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이외에 국내소비세(CUKAI)납부 필요
 - 시기에 맞게 유통을 진행해야 하는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며 납품 실패

나. 투자

■ 한국의 對인니 투자 개황

- 한국의 해외 자원 1호 투자처로 시작해 약 2,000개사가 현지 진출 중

우리 기업의 단계별 對인니 투자진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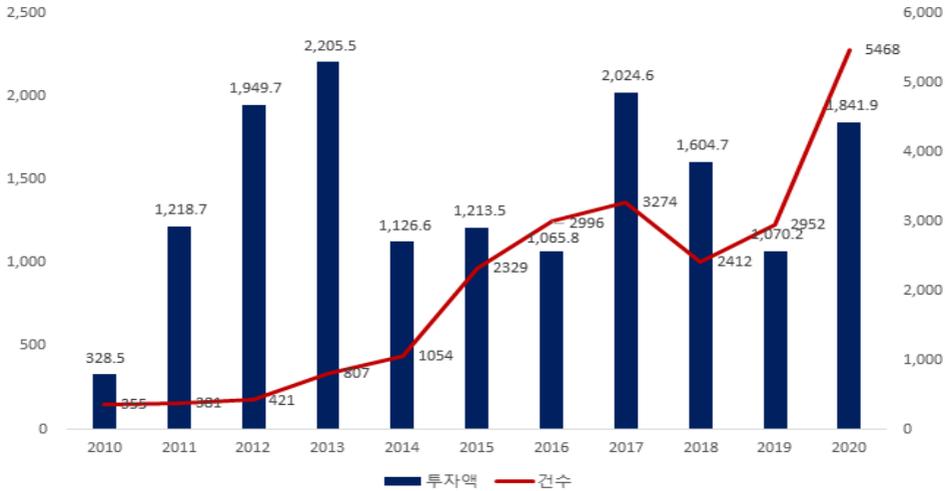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정리

- 대기업의 대형 투자 진출 여부에 따라 부침을 거듭, 소형 투자 확대
 - 포스코(‘10), 한국타이어(‘11), 롯데케미칼(‘10), 종근당(‘15), 지누스(‘18), 현대자동차(‘19), KCC(‘21), LG에너지솔루션(‘21) 등이 있음
 - '18년을 제외하고 투자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한국의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투자액, 건수)

(단위 : 백만 달러(좌측 축) / 건수(우측 축))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코로나 19 상황에도 증가하는 한국의 對 인니 진출
 - '20년 한국의 투자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 투자 건수도 마찬가지로 85% 증가
 - '18년을 제외하고 투자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지속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투자에 따른 관련 협력사 투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 소액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ASEAN 시장(할랄 시장 포함)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투자진출 증가*
- * 종합식품기업 대상은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중('21.2)

■ 주요 투자 지역과 분야 동향

- 자바섬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프라 및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지 다양화
 - 수도 자카르타 접근이 용이한 서부자바 산업단지(현대자동차 입주)와 반튼주에 많은 한국 기업 투자 중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바탕산업단지를 포함한 중부자바 지역 제조업 분야 주로 투자
 - 신수도 이전지인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지역에도 인프라 관련 투자 진행 중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지역별 투자액/투자건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2020			2021.6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1	서부자바	704.8	1,491	서부자바	718.4	691
2	반튼	523.7	836	반튼주	152.3	315
3	동부자바	151.2	348	중부자바	102.2	301
4	말루쿠	128.9	7	자카르타	50.7	147
5	중부자바	126.5	597	동남술라웨시	24.9	535
6	남부칼리만탄	95.2	20	말루쿠	5.8	5
7	자카르타	49.7	1,688	파푸아	5.5	3
8	서부칼리만탄	15.6	25	칼리만탄	4.6	22
9	동부칼리만탄	15.5	34	리아우	3.8	18
10	북부수마트라	11.7	17	족자카르타	2.7	1
	총합	1,841.9	5,468	총합	1,077.2	2,224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주요 투자 분야

- '20년부터 운송기계 분야가 한국의 對인니 투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로 보임

산업별 對인도네시아 투자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순위	2020년			2021년 상반기		
	산업	투자액	투자건	산업	투자액	투자건
1	운송기계	581.4	51	운송기계	605.9	27
2	전기, 가스, 수도	556.4	39	전기, 가스, 수도	85.2	21
3	금속	176.7	154	섬유	84.0	293
4	화학, 제약	159.5	196	화학, 제약	71.5	75
5	신발	101.6	305	금속	66.9	54
6	섬유	93.9	671	전자기계	66.1	130
7	전자기계	39.2	340	무역	35.6	126
8	무역	35.8	1,410	호텔	22.1	514
9	농업, 산동물	25.9	51	농업, 산동물	8.7	135
10	식음료	16.9	168	고무, 플라스틱	6.6	27
	총합	1,841.9	5,468	총합	1,077.2	2,224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수주나, ODA, EDCF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진출 중

한국 기업 인도네시아 공사 프로젝트 수주 금액 추이(2017~2021.10)

단위: 천 달러

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10
토목	-90,148	37,315	77,712	43,154	11,356
건축	134,827	4,396	3,924	239,827	37,685
산업설비	690,895	810,901	3,646,654	434,958	56,386
전기	34,516	437	826	-2,110	1,408
통신	0	3,647	0	1,914	0

주: 마이너스 금액은 마이너스 수주를 뜻함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한국기업 진출 성공 및 실패사례

- (성공사례) 코로나 19로 인해 포착한 신시장(헬스케어) 개척 기회
 - LX 인터네셔널은 198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이후 수출 트레이딩 외에 팜오일 농장과 수력발전 등 다양한 사업 수행 중
 - 인도네시아 신사업 확장을 위해 유망 분야를 찾던 중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방역물품 관련하여 다양한 확보 요청을 받음
 - 초기 PCR 진단 키트와 다양한 의료기기 기부를 진행하다 현지 코로나 19 진단 시장 성장성을 보고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됨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PCR 진단이 가능한 K-LAB 시설을 현지 재난방재청·보건부 협업을 통해 하나의 의료기기로 현지에 공수해 운영 시작
 - 올해 10월 기준,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에 총 3개 랩을 직접 운영, 술라웨시 지역에는 1개 랩을 기부해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향후 PCR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단기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진단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실패사례) 제품 특화 실패와 코로나 19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 철수
 - L사는 '11년 현지 요식업에 진출한 이후 최대 35개 매장을 운영
 - 하지만 현지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 중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제품 특화에 실패했고, 코로나 19로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어 전격적으로 철수 결정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경제협력 개황

- 인도네시아, 한국의 주요 교역 및 투자 대상국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최초 해외 투자대상국이며 최초 해외유전 공동개발국이자 제 1호 플랜트 수출국으로 양국간 경제 협력의 역사는 '60년대 후반부터 시작
 - 양국간 투자·무역 경제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정부는 아세안(ASEAN) 국가 협력을 미·중·일·러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남방정책 중에서도 핵심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선정
-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다양한 경제협력 추진 중
 - '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 이를 통해 6가지 중점 협력과제를 도출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 협력을 실행·추진 중에 있음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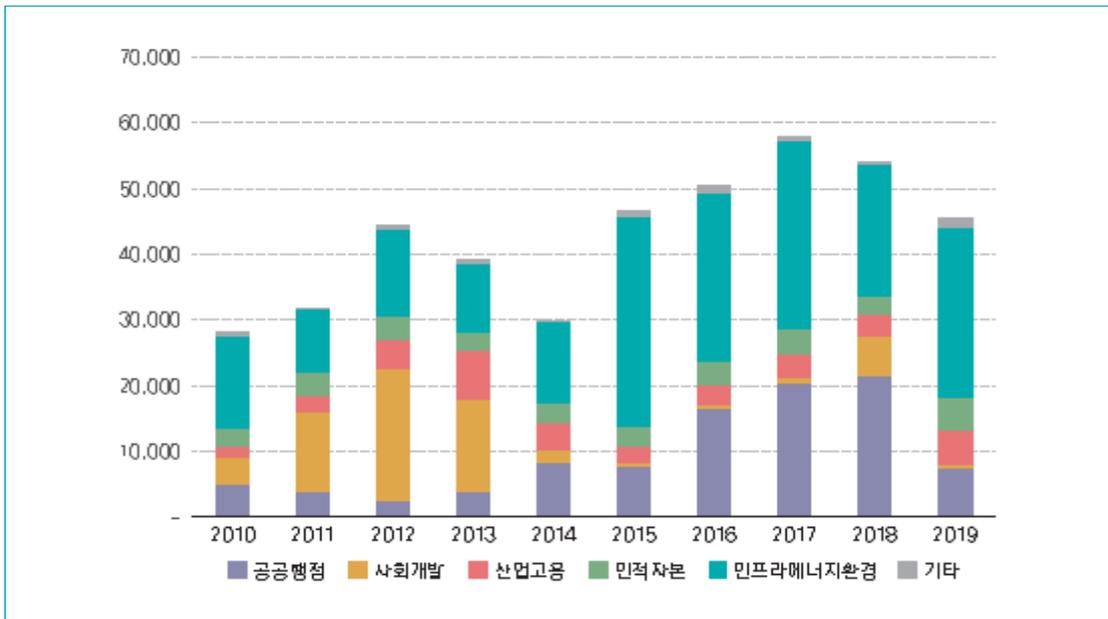
연도	교류 성격	주요내용
2017	한국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新)남방정책 발표 • 한-인니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한-인니 경제협력 안건이 포함된 공동비전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교통·보건으로 분야 MOU 체결 - 경제주체간 경제협력을 위한 14건의 양해각서, 거래조건협정서, 계약 등 체결 * 공공주택, 전력발전, 할랄, 금형분야 협력, 전자상거래, 조선산업 협력 등 • 6가지 중점 협력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교류, 경제 협력, 기간산업 협력, 사람중심 경제협력, 중소·중견기업 교류, 교역품목 확대 등
2018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국 국빈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6가지 중점 협력과제 재확인 • 상생과 미래 성장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경제, 인사행정, 법제교류, 해양안보, 산업혁신 연구 협력에 대한 6건의 MOU 체결 - 기업 및 경제 기관은 약 62억 달러에 이르는 양해각서, 거래조건협정서, 계약 등 15건 체결 * 제조업,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공정무역, 스타트업·창업, 전력발전, 화장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도시개발 등
2019	일본 방문(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니 CEPA 연내 타결 논의 • 인프라, 자동차, 석유, 방산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 논의
2019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선언 • 6가지 중점 협력과제 이행을 위한 교류 본격 추진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정리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지원 및 교류 개황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으로 점진적인 지원액 증가 추이 기록
 - 프로젝트·개발컨설팅, 연수생 초청, 민관협력, 국제기구협력, 봉사단 파견, 긴급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
 - 특히 '10년~'19년 누적 지원액 기준, 인프라·에너지·환경 분야에 44.7% 자금이 투입되어 가장 큰 비중 차지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ODA 규모(2010~2019)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KDI), OECD.Stat

- ODA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발경험 노하우 전수 사업도 활발
 - KSP 사업이 '05년 시작된 이래 '20년까지 총 34개 사업(90개 주제)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공동컨설팅, 역량강화 연수 등 진행
 - 현지 개발분야 총괄부처인 국가개발기획부를 중심으로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와 협력
- 이 밖에도 양국간 관광·일자리 등 다양한 인적 교류도 진행 중(코로나19 이전)
 - '19년 한국인 방인 38.8만, 인니인 방한 28만 명
 - 양국간 고용허가제(EPS) 체결을 통해 '04~'20년까지 약 9만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 중(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약 11.8%)

-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다양한 경제협력 추진 중
 - '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니 방문을 통해 양국간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 이를 통해 6가지 중점 협력과제를 도출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 협력을 실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사람, 평화, 번영(3P) 기조 아래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한 상생 번영 사업 진행
 - ODA 사업을 통해 산간지역 등 전력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구축('20~'24)
 - '19년 인니 진출 시작한 현대자동차, '21년 7월 인니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산소가 부족해지자 공장 일부를 산소 발생공장으로 개조해 지역사회 기여
 - 한국의 제넥신과 인니의 칼베(Kalbe), 코로나19 백신 공동개발 중으로 임상 2상까지 진행, 인니 칼베에서는 본격 생산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제넥신 자회사인 SL Pogen에 역으로 투자 진행('21.5)

■ 양국간 경제협력 전망

-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보다 긴밀한 경제 협력 추진
 - '19년 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통상장관이 CEPA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한데 이어 4월, 한-인니 CEPA 협상이 5년만에 재개됐으며, 4월에 제 8차 협상, 8월에 제 9차 협상이 진행됐으며, 2020년 12월 최종 서명 완료 후 국회 비준 중
 - 한-인니 CEPA 발효 시 양국간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활성화 기대
- 신남방→신남방플러스 핵심국가로서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 '20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3년간 신남방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신남방 정책 플러스' 방안 발표
 -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최우선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수요 중심으로 협력 사업이 추진될 예정
 - 한국의 3차 국제개발협력 중점국으로 선정되어 ODA와 EDCF 사업도 활발할 것

신남방플러스 7대 중점분야 주요 추진 사업

분야	개요	주요사업
포괄적 보건의료	보건의료 역량 및 의료복지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ODA 확대 • 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역량강화 지원 • K-Health 협력단 발족 등 체계적 보건의료 협력 • 국내 보건의료 산업 진출 및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지원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미래역량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초청 장학사업 확대 • 한국형 사이버대학 설립 지원 등 원격 고등교육 사업 확대 • 현지 맞춤형 기술직업교육 확대
쌍방향 문화교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 다양한 문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관광·소비 융복합 행사 활성화 • 디지털 문화체험관, 가상현실 등 비대면 문화교류 확대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기반 구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한 경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FTA 등 FTA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 신남방 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유동성 등 지원 확대 • 신남방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농어촌 및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	농어촌과 도시 인프라 개발 및 노후우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유 및 한국형 스마트팜 협력 • 신남방 국가 검역행정 역량강화 지원 • 아세안 스마트시티 및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 관련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
4차산업 분야 협력	4차산업 분야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디지털 전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및 5G 등 디지털 경제협력 확대 • 산업혁신기구 및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협력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 확대
비전통안보 협력	기후변화, 재난, 테러 및 환경오염 등 분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해양 쓰레기 문제 관련 해양 환경 보전 및 역량 강화 • 사이버안보 및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자료: 한국 외교안보연구소(2020)

- 양국간 회담 및 협정에서 도출된 상생 협력 분야와 현지 대상국 SDGs 개발 미진 분야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 위주 협력 확대 예상
 - SDG 관점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보다 17.6점 앞서 있으며, 양국이 평균 이상의 점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목표는 상생 협력 분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협력 분야에는 ‘인프라와 산업화’가 가장 높은 격차로 한국이 절대 우위

SDG 분석을 통해 살펴본 양국간 협력 유망 분야

SDG 점수 차이		■ >20.0		■ 9.0~20.0		□ <9.0	
No.	내용	인도네시아	한국	한국인도네시아 차이	절대값		
SDG1	빈곤퇴치	96.3	99.3	3	3		
SDG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50.4	83.2	32.8	32.8		
SDG3	보건증진	61.6	91.3	29.7	29.7		
SDG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76.9	91.7	14.8	14.8		
SDG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62.1	67.4	5.3	5.3		
SDG6	물과 위생	85.9	79.9	-6	6		
SDG7	에너지	64.1	88.6	24.5	24.5		
SDG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71.1	83.4	12.3	12.3		
SDG9	인프라와 산업화	23.7	83.4	59.7	59.7		
SDG10	불평등 해소	34.9	86.6	51.7	51.7		
SDG11	지속가능한 도시	64.5	80.0	15.5	15.5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79.3	65.2	-14.1	14.1		
SDG13	기후변화대응	89.1	85.4	-3.7	3.7		
SDG14	해양자원 및 생태계	46.7	56.0	9.3	9.3		
SDG15	육상생태계	41.8	52.9	11.1	11.1		
SDG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74.1	71.8	-2.3	2.3		
SDG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45.7	49.8	4.1	4.1		
평균		62.8	77.4	14.57	17.64		
절대값의 평균, 표준편차		평균: 17.64, 표준편차: 17.01					

평균 이상의 점수 차이를 가진 SDG

SDG	우위국가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SDG 2)	한국
보건증진 (SDG 3)	
에너지 (SDG7)	
인프라와 산업화 (SDG9)	
불평등 해소 (SDG10)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SDG12)	
	인도네시아

자료 : 2018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2018)

- '20년 인도네시아 SDGs 이행 성과를 보면 기아(2), 보건(3), 위생(6), 인프라(9), 불평등(10), 육상생태계(15), 글로벌파트너십(17) 분야 개발이 특히 부진

한국 ODA 중점 협력국의 SDGs 목표별 이행 성과

국가	SDG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네팔	Red	Red	Red	Yellow	Red	Red	Red	Red	Red	Yellow	Red	Green	Green	Grey	Yellow	Red	Yellow
라오스	Red	Red	Red	Yellow	Red	Red	Red	Red	Red	Yellow	Red	Green	Green	Grey	Yellow	Red	Red
방글라데시	Red	Red	Red	Yellow	Red	Red	Red	Red	Red	Yellow	Red	Green	Green	Grey	Yellow	Red	Red
베트남	Yellow	Yellow	Red	Green	Yellow	Yellow	Yellow	Yellow	Red	Yellow	Red	Green	Green	Red	Red	Red	Yellow
스리랑카	Red	Red	Yellow	Green	Red	Red	Red	Yellow	Red	Red	Yellow	Green	Green	Yellow	Yellow	Red	Red
인도네시아	Red	Red	Red	Yellow	Red	Red	Red	Red	Red	Red	Yellow	Yellow	Yellow	Yellow	Red	Red	Red

주: 녹색(달성), 노란색(일부 미진), 주황색(부진), 적색(매우 부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Sachs et al.(2020)

Ⅲ.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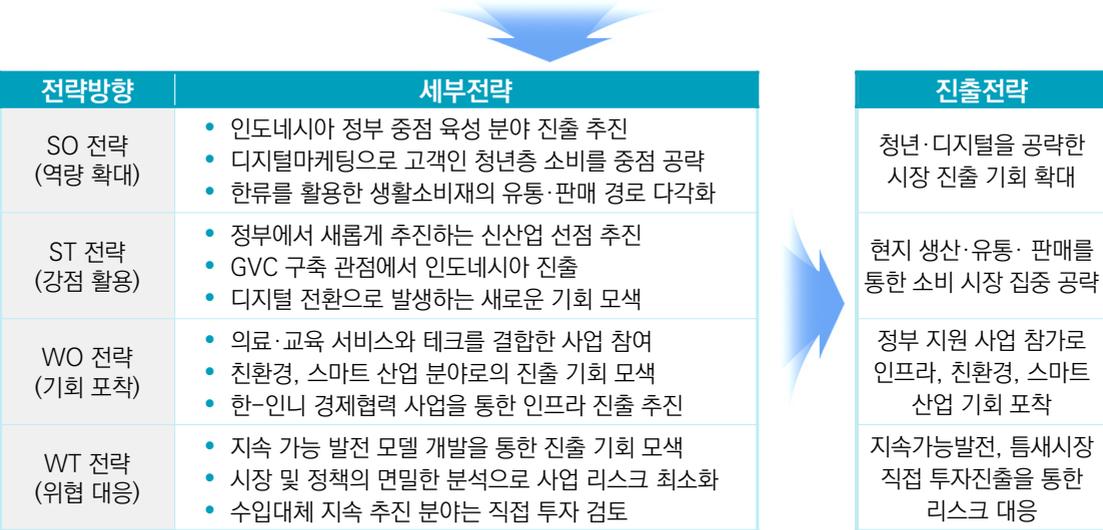


III 진출전략

- ▶ 강점을 살리고 열악한 환경 및 사업 장애 요인을 진출 기회로 승화(昇華)
 - (역량 확대) 한류를 심분 활용해 청년·디지털 공약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강점 활용) GVC 관점에서 현지 생산·유통·판매를 통한 소비 시장 집중 공략
 - (기회 포착) 정부지원 사업 참가를 통해 인프라, 친환경, 스마트 분야 진출 기회 포착
 - (위협 대응) 지속가능발전, 틈새시장 직접 투자진출을 통한 리스크 대응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비중이 높은 거대한 소비시장 ❖ 풍부한 원자재 보유국 ❖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유통 등 열악한 제반 인프라 ❖ 낮은 1인당 구매력과 지역별 큰 경제 격차 ❖ 정부 정책(규제) 불확실성 지속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요 존재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류문화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일 선점 시장으로 높은 진입 장벽 ❖ 급속도로 증가하는 임금 수준에 따른 부담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 기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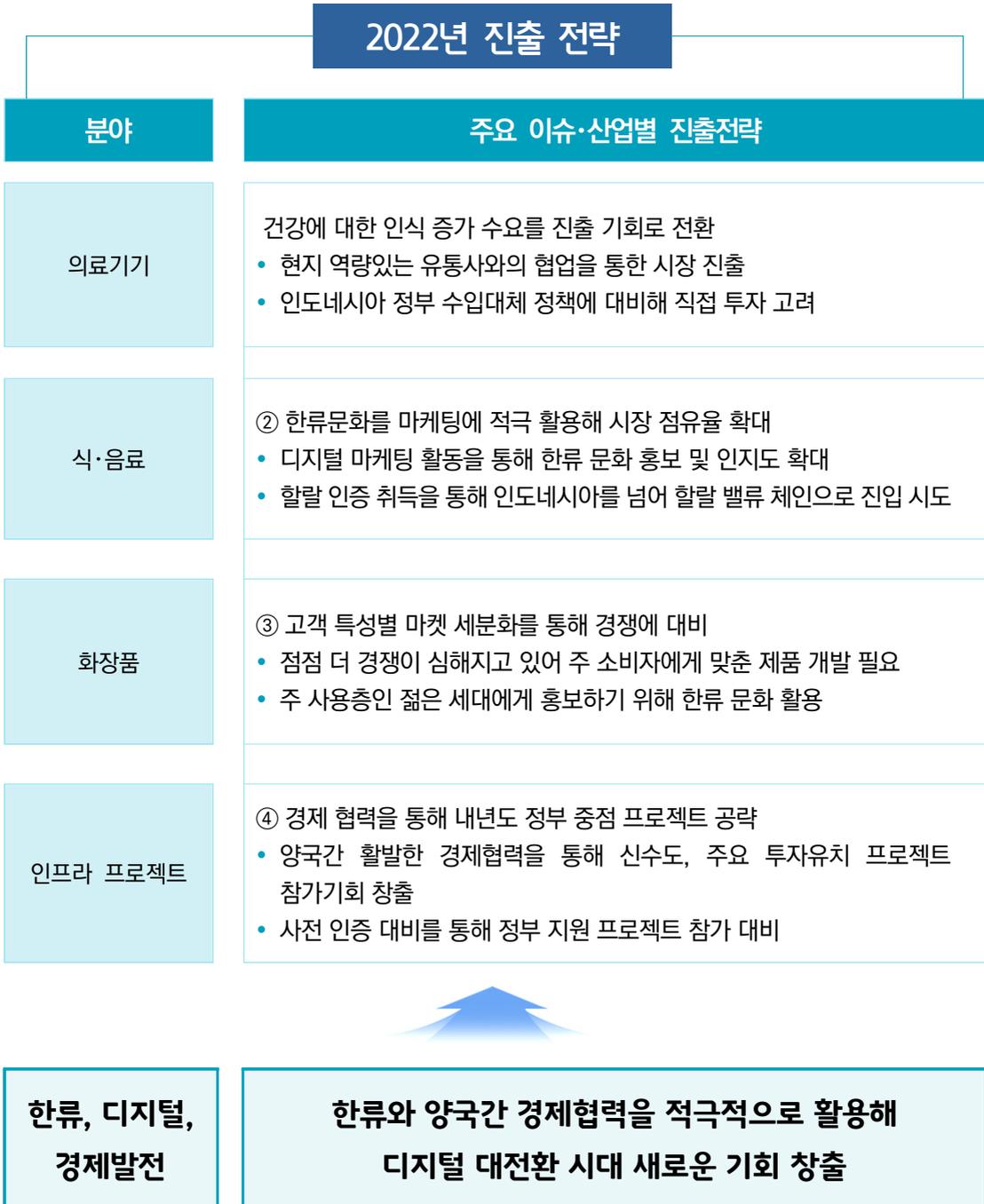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의료기기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4위 인구 규모, 소득수준 지속 향상과 코로나 19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 인도네시아 보건부, 20~'24년 인도네시아 총 보험 지출액 연 평균 18.2% 증가 전망
- '21년 기준, 의약품 원료 80%, 의료기기 90% 가량을 수입에 의존
- 한국은 인니 의료기기 분야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에 이은 5위 수입국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수입산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
 - '19년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45억 달러 수준인데, 그 중 절반 이상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은 비교적 고가인 미국 및 유럽산과 저렴한 중국산 사이 포지셔닝
- 의료기기 주요 플레이어는 병원·검사기관(구매자), 대리상(수입·판매) 등임
 - 비교적 고가인 병원 진료 전 주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찰받는 경우가 많음
 - * Prodia, Kimia Farma, Pramita, Citro, Biomedika, Parahita 등이 주요 검사기관
 - 병원은 사설병원과 국립 병원으로 구분되며 사설병원이거나 비보험 서비스면 상관이 없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품목은 정부조달시스템을 통해 구입
 - 의료기기 대리상은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의료기기 유통허가(IPAK, Izin Penyalur Alat Kesehatan)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올해 2월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100% 투자가 가능해짐
- 현지 반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및 규제 존재
 - 의료기기 및 건강에 관련한 생활기기는 인도네시아 보건부 등록(ALKES, Alat Kesehatan) 필요하고 79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
 - * 수입 금지 품목이나 현지 조달 상황 및 긴급성에 따라 수입이 가능하기도 함(대응 인피온)
 - 한국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관련된 직결성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되며 D로 갈수록 요청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등록 과정이 오래 걸림(비용도 증가)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수입 비중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확대할 계획으로 현지 진출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기기 위주 지속적인 수요 보유
 - 정부의 국산부품정책에도 현지에서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제품은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품목은 호흡기기, 촬영장치, 영상진단기기 등임
 - 한국산 제품도 전체 수입 동향과 비슷한 상황이고 인공관절 분야는 가장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
 - 코로나 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격의료와 연계되는 진단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원격진단 지원용 웨어러블 진단기기, 특수 진단기기 등(Alodokter)
- 제품 특성과 인도네시아 문화에 맞는 진출전략 수립 필요
 - 관련 분야 현지 네트워크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 발굴이 가장 중요
 - 주요 구입자인 병원이나 진단기관들은 단품보다 하나의 패키지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 전체 패키지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추천
 - 단순 대리상에게 수출을 위임하면 대리상 사기나 향후 계약 연장 시 불리해 자체적으로도 네트워크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 관리 대상은 구매 의사결정권자들인 의사들임

※ 고객 네트워크 관리 방법(대웅인피은 서창우 법인장, KOTRA 메디컬 웨비나 발표, '21.9)

-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구입에 있어서 최종 사용자인 의사들의 의사 결정권이 큼
-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 명의 저명한 의사한테 가르침을 받은 의사들이 하나의 사단을 만들어 수술 기구나 기법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 협회들과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이런 중요한 네트워크는 대리상에게 판매를 위임했다라도 직접 관리가 필요해 보임, 대리상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한 번씩 한국에서 직접 네트워크 구축 차 방문하는 것을 추천
- 더해서, 리베이트 영입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에 가격 경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자만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도 있음
- 예를 들면 병원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제품 시연, 병원 방문, 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최근 코로나 19로 해외 이동이 제한돼 인도네시아 의사들의 해외 교육 수요는 높을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국산부품 사용 비중 확대 움직임에 따라 현지 직접 진출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
- '24년부터 강제 의무화되는 할랄 인증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해 보임, 인도네시아는 ASEM 국가 중심이고,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어 무슬림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로 보임

2-2. 식·음료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산 식·음료 수입 실적 증가
 - * 한국 드라마에 방영된 떡볶이나 주류, 기타 식·음료 제품 수요 증가
- 식·음료 분야는 인니 정부의 10대 주력 육성 산업군으로 내수 생산 독려 추세 강화되어 직접 투자도 검토
 - * ODM, OEM 제조공장 설립을 통한 수출 기회 모색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한국 식·음료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사랑
 - 코로나 19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급격히 증가
 - 한류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를 만드는 영상이 인기를 끌었음
 -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식·음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소비로 이어지고 있어 어느 곳에서도 쉽게 한국 식·음료를 찾아볼 수 있음

현지 주요 슈퍼마켓 한국상품(라면) 진열 모습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촬영

- 식·음료 수요는 높으나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 인증 대비 필요
 - 식·음료 분야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수입하는 기업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BPOM’ 인증이라 불리우는 해당 인증은 등록된 현지 기업만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수입 독점권’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 유의가 필요
 - * 식품의 경우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으면 현지 수입자 중복 가능(PT.Green Nature Farm)

- '24년부터 식·음료 분야 할랄 인증 표기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 판매대가 분리되면서 할랄인증 여부가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공략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라면, 과자, 떡볶이 등 한국 드라마에 주요 나오는 물품 수요 증가
 -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 Kompas에 따르면 한국 식품 카테고리는 현지 쇼핑몰 전체 식품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함(21.7)
 - 이에 따라 인기 한국식품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올해 5월 누적 수출액은 1억 18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AT공사)
 - 하이트 진로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가 많아 주류 관련 엄격한 시장이지만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주류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최근 4년 간 연평균 45%의 수출액 성장을 기록
- 정부 기관 지원 사업 참가를 통해 초기 시장개척 지원 타진
 - KOTRA, AT공사, 무역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현지 진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현지시장 진출 타진 가능
 - 특히 AT공사에서는 농식품 관련 해외인증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에 장애물로 여겨지는 인증분야 일부 비용을 지원
- 한류 마케팅을 통한 마케팅 활동 추진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고사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 카페에서 오징어게임 테마로 변경한 후 매출액이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도
 -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마케팅으로도 십분 활용이 가능해 적극 활용 추천
 - 다만 한류 배우를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배우가 가진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
 - * 인도네시아 유니콘 스타트업 Ajaib, 현지 넷플릭스 1위 드라마인 '갯마을 차차차'의 배우 김선호씨를 메인 광고모델로 내세웠으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광고에서 모두 제외
-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식·음료는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가 '24년 10월 17일 부로 가장 먼저 시행되는 분야
 - 할랄 신청 시 서류 준비와 검사를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됨으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지에 식·음료분야 직접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역점을 두고 조성 중인 할랄산업단지 투자를 고려해볼만 함

※ 할랄산업단지 조성 동향(인도네시아 산업부 Ms. Ghita 국장,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터뷰, '21.9)
 -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를 할랄 선도국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 8곳의 할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할랄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할랄 관련 모든 애로사항을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단지에는 할랄 인증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이 입주할 계획
 - 더해서, 산업부에서는 입주기업대상 할랄인증 FASTTRACK과 세제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할랄 교차인증을 논의중에 있어 인도네시아와 할랄시장 진출을 염두한 기업들은 할랄산업단지 투자를 추천

2-3. 화장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작년 한국산 화장품(HS 3304)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 점유율 1위 기록(45백만 달러)
- 올해부터 '25년까지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연 평균 6.5%씩 증가해 '25년 2,738.8백만 달러 전망
- 인도네시아 기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가 많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한류열풍으로 K뷰티 수요 지속 존재
- 인구의 과반수가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로 뷰티에 대한 관심이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입 화장품은 한국산 화장품
 - '17년부터 한국산 화장품 수입 급증하기 시작해 작년 한국산 화장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1위(45백만 달러)로 중국, 미국산 제품보다 인기
 - 인도네시아는 뷰티 부분 베트남에 이어 한국산 콘텐츠를 가장 좋아하는 국가*
 - *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뷰티 소비 1위는 베트남(40%), 2위 인니(34.6%) 순
 - 이에 따라 한국의 화장품 대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들이 현지 진출 중
 - 현지 초기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현지 직구(CBT) 플랫폼을 통해 수출*
 - * Shopee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CBT 품목은 뷰티 카테고리로 약 70% 차지
- 해외 직구 방식 단속 강화로 향후 인증 필요성 증대
 - 과거 Shopee, Lazada 등 해외 직구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을 수출했으나, 정부에서 미인증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로 판매 어려움
 - 대표적인 CBT 플랫폼 쇼피 코리아에 따르면, 3월부터 식품, 패션, 화장품 등 품목에 대해 정부 방침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고 있음
 - * Shopee보다 규모가 작은 Lazada와 JDID는 일부 품목에 대해 CBT 수출이 가능하나, 점차 폐지될 확률이 높음
 - 판매 제한 품목은 CBT 이용이 불가하며, 정식 인증 및 수입절차를 진행해야 함
-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 취득
 - 화장품 분야 정식 통관을 위해서는 식·음료와 마찬가지로 현지 바이어가 직접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 등록을 진행해야 함
 - '26년부터 화장품분야 할랄 표기가 의무화돼 해당 부분도 대비 필요

진출 전략

● 디지털 마케팅 활용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휴대폰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국가*
 - * 올해 3분기 기준, 1인당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5.5시간으로 전 세계 1위(App Annie)
- 이에 따라 특히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 중 하나
- 화장품의 경우 단순 제품 홍보 보다는 현지에서 인기있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제품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인플루언서 규모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음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 구분

구분	파라미터	메가인플루언서	매크로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1	팔로워 수	100만 이상	10만 ~ 100만	1천 ~ 10만
2	참여율	5% 이하	5-20%	25-50%
3	- 도달자수(Reach)*	대	중	소
	- 노출횟수(Impression)*	(35만 전후)	(25만 이하)	(1만5천~3만5천)
4	활용 비용	비싸다	중간	싸다
	1회 포스팅 비용 (사진, 동영상, 스토리)	최소 5백만 원 이상	최소 1백만원 이상	30~50만원 수준
5	사회적 신뢰도 수준 (상품 서비스 보증 수준)	최소	중간	최대
6	마케팅 전략의 목표	브랜드 인지도 강화	상품 관심도 제고	전환율 (광고 노출 후 제품 구매자 수)
7	핵심성과 지표	노출 수 및 도달자 수	참여율과 뷰(view)	클릭 및 전환율

자료: 대홍기획(KOTRA K-Beauty In Asean 발표 발체, '20.12)

● 현지 유통 파트너 발굴

- BPOM 인증을 받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동안은 현지 수입자만 수입 가능
- 현지 수입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면 문제가 없지만, 마케팅과 유통 역량이 부족하면 인증 이후 진출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지에는 다양한 화장품 유통 대행사들이 있으며, 작게는 BPOM 인증 대행부터 크게는 마케팅 및 판매전략 수립까지 지원

인도네시아 유통 대행사 지원 범위

FDA 인증 (BPOM)	초기 마케팅	판매 전략	후속 판매/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진행 가능업체 진행경험 보유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루언서 통한 홍보 SNS 활용 마케팅 온라인 이벤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저 판매채널 입점 현지 도매상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영상제작 및 광고 오프라인상 입점 및 행사 추가 제품 등록 채널 및 도매상 판매 확대

자료: PT Dunia Kosmetik Indonesia(KOTRA K-Beauty In Asean 발표 발취, '20.12)

-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대비
 - '24년부터 식·음료 분야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어 현지인들 사이에서 할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특정 타겟(화교, 외국인 등)이 아닌, 인도네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면 할랄 인증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해 보임
- 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
 - 식·음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KOTRA를 포함해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현지 유통망 입점, 인증 취득 지원, 거래선 발굴 등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기관 사업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한국 화장품 상설 홍보매장 입점 사업



자료: PT. FB Korea

※ 화장품 시장 동향(PT. FB KOREA 한동관 대표,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터뷰, '21.10)

- 최근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국내 유명 연예인(송중기, 김선호, 트와이스) 등을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로컬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음
- 주목받는 제품으로는 선블록(Sunblock) 제품이 있는데, 최근들어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선블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임
- 한국산 화장품 현지 유입은, 주로 활용되던 Shopee의 해외직구 플랫폼이 중단되면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임
- 현재 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토너, 세럼, 크림 등 기초제품과 화이트닝, 모공 등 기능성 제품 등이며 고가보다는 중저가 제품들이 선호
- 더운 날씨로 질감이 무거운 제품보다는 가벼운 제품들이 더욱 선호
- 메이크업의 경우 현지 소비자 피부톤에 맞는 립, 아이, 블러셔 등이 인기이나 코로나 19에 따라 메이크업 수요가 줄어 약간 주춤한 상황
- 현재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유입되고 있어 매우 치열한 시장으로 진출 전 정부 기관 사업이나 현지 유통사 등을 통한 시장 점검이 우선일 것으로 보임

2-4.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구과밀지역으로 공해문제와 인프라부족으로 문제를 겪는 자카르타 시 정비 프로젝트 증가 전망
 - * 폐기물 처리시설, 스마트 시티 구축, 경전철(LRT) 및 고속철(MRT) 건설 사업 지속 예정
- 내년도 인도네시아 정부 중점 투자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프로젝트 위주 사업 참가 기회 발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내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프라 프로젝트
 - 내년 인프라 프로젝트는 384.8조 루피아 규모로 책정되어 정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 차지
 - GVC 참가 확대,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 각종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따른 파생수요 발생 전망
 - 특히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족한 부분은 투자유치 및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12개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투자 유치를 희망
 - 민관협력개발 프로젝트도 내년에 4개 프로젝트가 입찰 준비가 완료되어 해당 부분 본격 추진되면 관련 수요가 창출될 것

- 국산부품의무사용(TKDN) 비중 지속 증가
 - 인도네시아 중점 육성 제조업 분야 위주 TKDN 사용요건 지속적으로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산업의 국산 사용 평균 비중을 40%대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예정

인도네시아의 주요 분야 원자재 수입 비중 조정 목표

단위: %

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속	11.36	10.92	10.44	9.92	9.36
식음료	0.43	0.43	0.43	0.42	0.41
섬유	4.27	4.20	4.13	4.04	3.94
화학, 의약	2.07	2.06	2.04	2.02	1.99
석유관련	13.06	12.76	12.42	12.04	11.62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코로나 19로 지연된 건설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 발생 전망
 -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작년 부진했지만 올해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f	2022f
건설시장 규모	3,281	3,547	3,292	3,495	3,825
건설시장 성장률	4.3	8.1	-7.2	6.2	9.4

자료: IHS Markit,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현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지속적인 시장 동향 파악
 -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이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조달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인도네시아 신문 및 영자신문에 입찰 공고를 의무화고 있음
 - 물품 조달은 정부조달사이트(www.lkpp.go.id)나 인니 조달전문협회(iapi-online.org)를 참고, 건설 부분은 인도네시아 공공조달 입찰 사이트(www.pu.go.id)를 통해 확인 가능
 - 이 밖에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에서 연간 발간하는 Greenbook, PPPbook 등을 통해 당면한 프로젝트 개요 확인 가능하고 Bluebook을 통해 중장기 계획 파악 가능
 - * 중장기 계획인 블루북 프로젝트 중 원조공여기관이 지원의사를 표명한 프로젝트에 대해 그린북으로 연간 발간 중, PPP북은 이와는 별개로 민관합작가능 프로젝트에 대해 연단위 공개

- 해당 과정에 대해 한국의 주요 건설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동향 파악 필요
 - * 해외조달정보센터, 해외건설정보종합서비스(icak.or.kr) 등
- 입찰에 성공한 한국 기업 대상 납품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 기업 자체 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정부에서는 EDCF, ODA 등 사업을 통해 발생된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
 - 이 밖에도 KOTRA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현지 발주사 및 바이어 발굴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초기 진출 시 참고
- 인도네시아 정부 국산부품 사용 정책에 따른 투자형태 고민
 - 프로젝트 선정 시 국산부품사용비중 준수 여부도 하나의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한국에서 수출하는 형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애로사항 예상
 - 이에 따라, 현지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에 따라 직접 투자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3.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22년 진출 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첨단 제조업 (전기차)	① 인도네시아 정부 중점 육성 분야 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중점 육성 사업인 전기차 생태계 조성사업 참가로 추후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 확대
코로나-19 대응 헬스케어	② 코로나 19 방역 협력 유망 분야와 파생분야 적극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K-방역을 통해 확인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유망시장 진출 • 코로나 19에 따라 확대된 기술개발협력 수요 적극 활용
정부지원 인프라	③ 대중소 동반 진출 협력 사업을 통한 시장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전력 발전소, 수자원 관리, 재생에너지 분야의 상생협력 진출 • 인니 공기업과의 협업 사업을 통해 정책적 이익 극대화
문화 콘텐츠	④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를 활용한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문화를 심분 활용해 현지 문화 콘텐츠 분야 격차 확대
스타트업	⑤ 창업 인프라 지원 및 지속가능개발 스타트업 협력 통한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니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과 네트워크 공유 • 지속가능개발 스타트업 협력 체계 구축 통한 진출기회 획득

보건의료, 인적개발,
역내 경제통합,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정책 플러스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새롭게 도출된
수요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추진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3-1. 첨단 제조업(전기차)

경제발전전략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 육성 분야는 6가지 중점 경제협력 과제 중 하나로 지속 추진 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을 통한 내수 생산 확대 독려 중
 - * 완제차(CBU)보다 완전조립형 반조립제품(CKD), 불완전조립생산(IKD) 부품 수입 선호
- 에너지 절감, 대기 오염 등의 문제로 전기차 개발 계획을 지속해오다가 전기차 산업 개발 촉진법 발표
 - * '13년에 저비용 그린카(LCGC) 도입, '16.8 전기충전소 최초 도입해 1년간 542개 충전소 설립, '19.8 전기차 법 최초제정
- '21년 10월,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개정안이 발표되며 하이브리드 차량과의 차별화 성공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네시아 정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신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산업
 -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 자원 세계 1위 매장량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육성 추진
 - 공해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자국 원자재 다운스트림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의 목적
- 한국-인도네시아 정부간 6가지 중점 경제협력 과제로서 활발하게 추진 중
 - '17년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6가지 중점 협력과제인 4차 산업혁명 추진 분야 중 하나로 한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활발하게 진출 중
 - 올해 10월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해 조코위 대통령을 면담하며 전기차 생태계 육성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재확인
 - 현대자동차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월 재무부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 하이브리드 차량과 차별 실시
- 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완성차 수입 줄이고 내수 조립 생산 독려
 - 인도네시아 자동차·오토바이 시장 규모가 매우 큰 반면 일본 기업의 장악으로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정부에서 내수 성장 위해 다양한 브랜드 도입 의지
 - '17년에 자동차 부품 수입 장려를 위한 수입 관세율 유지 또는 인하
 - * 완전조립생산(CKD) 자동차 부품의 수입 관세 현시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7.5% 유지, 불완전조립생산(IKD) 부품의 경우 0%까지 인하
 -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타결을 통해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 예정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전기차 밸류체인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 현대자동차는 자체 밸류체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새로 진입하기 어려움
 - 전기차 제조도 인도네시아 정부 중점 육성 분야로 국산부품사용비중(TKDN) 제한 분야
 -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생산 공장이 완성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완성품을 수입하고 있어 시장 성장 및 수요 부분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부품 및 인프라 분야에서 일부 진출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30년까지 민·관에서 54조 6천억 루피아(4조 411억 원)을 투입해 3만 1천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 수립
 - 해당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충전소 건설에 따른 인프라 수요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더해서, 전기차 분야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 분야인 만큼 모든 제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어 일부 부품은 한국 기업과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별개로, 인도네시아인들의 차량 구입 증가에 따른 부가 액세서리 판매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차량 구입은 코로나 19 이전까지 1백만대 수준을 유지
 - 이와 같은 차량 보유 비율 증가에 따라 차량용 액세서리 수입 수요도 꾸준히 존재
 - 한국산 네비게이션은 주 수입품목 중 하나로 올해 8월 기준 61억 달러가 수입돼 전년 대비 40.8% 증가(전체 5위)

3-2. 코로나 19 대응 헬스케어

경제발전전략 및 전략적 가치

-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라 일부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존재
- 한-인도네시아간 방역 관련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다양한 협업사업 진행
 - * 초기 방역물품 위주 기증에서 현재 백신 공동개발 협업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비정기적 코로나 19 변이 대유행으로 부침을 겪고 있으나 점차 안정화
 - 올해 초(영국발 델타 변이), 6월 중순(인도발 델타 변이) 등 국내 코로나 19 확산

- 특히, 6월~8월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가 폭증하며 의료 인프라가 한계까지 다다랐으나 8월 이후 점차 안정을 찾고 있음
- 한국의 K-방역의 주요 국가로 현지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 진행 중
 - '17년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인니 보건협력 MOU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 진행 중
 -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6월, 한국 정부는 기업과 공동으로 현지 코로나 19 대응 지원을 위해 지급하게 필요한 산소발생기, PCR 진단기기 등 방역 물품을 기부
 - 한국 기업과 현지 제약사간 백신 공동개발 진행 중,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제약사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역으로 한국 기업에게 투자('21.7)
 - * PT Kalbe Farma 는 백신 개발 시 안정적인 제조를 위해 제넥신 자회사인 SL Pogen에 투자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올해 8월 기준, 한국산 제품 중 진단기기 제품이 수입 지속 중
 - 8월 수입액 누계를 보면, 진단기기 제품은 2.2억 달러 수입돼 전년 동 기간 대비 240.1% 증가(중국에 이은 수입 2위)
- 단순한 K-방역 편승 세일즈가 아닌, 현지 실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 위주 진출 전략 수립 필요
 - 일부 방역 품목의 경우 국내 기대와 달리 일부 수요만 존재
 - 방역물품 수요 확인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 19 상황과 현지 수급을 고려해 조정하는 코로나 19 긴급 방역물품 세제혜택 명단 참고
 - * 손세정제 현지 조달 역량 확보로 긴급수입통관 물품에서 제외('20.7)
 - ** 자세한 명단은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참고(Peraturan Menkeu RI Nomor 92/ PMK.04/2021))
- 코로나 19 긴급대응 물품은 사전 테스트 마켓으로 진출 타진
 - 인도네시아 재무부령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 물품으로 인정받은 품목들은 재난방재청 긴급수입통관 허가를 받는 경우 통관에 필요한 인·허가 없이 통관 가능
 - 재무부 허가까지 받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도 관세 및 소비세, 부가세 등 면제
 - 다만, 인도네시아 재난방재청에서는 현지 상황과 국내 조달 역량에 따라 품목별로 긴급수입통관 허가를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 의료기기 수입대체 정책 추진에 따라 투자여부 검토
 - 인도네시아 보건부·산업부에서는 의료기기 분야 국산부품사용요건(TKDN)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발표 예정
 - 현지에서 당장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은 수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현지에 경쟁자가 있거나 조달이 가능한 품목은 추후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형태에 따라 직접투자도 고려 필요

3-3. 정부지원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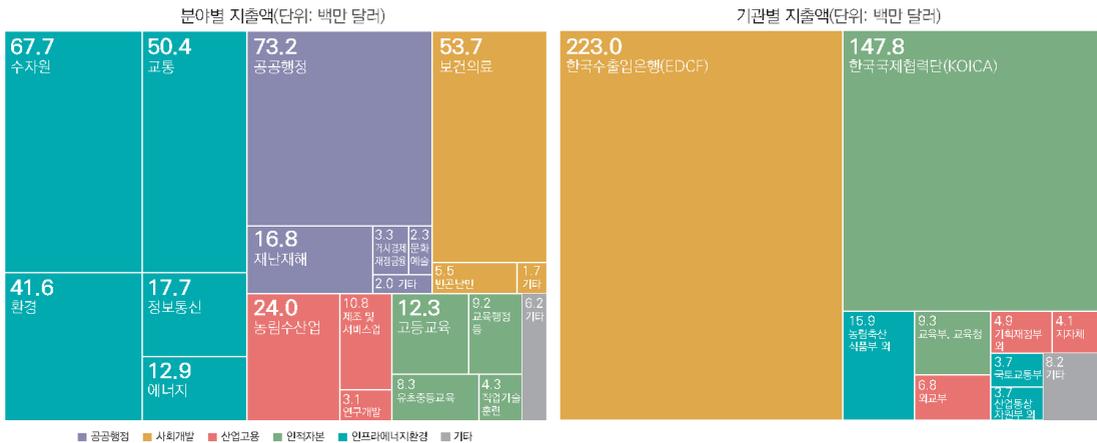
경제발전전략 및 전략적 가치

- 인니 정부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지속적인 수요 존재
 - * 정부 예산 중 가장 높은 부분이 인프라 분야임
- 한국 정부의 ODA/EDCF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출 중
 - * 우리 대기업 또는 인프라 분야 공기업과 인니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다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인니 기업 및 유관기관 간 인프라 사업 구축 위한 다수의 협약* 체결
 - '17~'18년 양국 정상방문 시 체결된 29건의 사업 협약 중 20건이 인프라분야
 - * 우리 대기업·공공기관과 인니 국영기업·대기업 간 전력생산·ICT·부동산·상수도·교통 인프라 개발 구축 관련 내용
 - 가장 최근('21.10)에는,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인니 해양투자조정부와 해양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MOU 체결*
 - * '25년까지 노후 해양 플랜트 3기 해체하는 공동 시범사업 추진을 포함해 해양플랜트 관련 지속 협력 추진
- 對 인도네시아 유·무상원조를 통한 중점 협력 분야
 -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 수요를 반영해, ODA/EDCF/KSP 등을 통해 주로 지원 중,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참가 기회 증가

한국의 인도네시아 ODA/EDCF 지출액 동향('10~'19 누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OICA

-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적극 협력 중
 - 정부·공공기관·기업이 함께 '인니 수도이전협력 팀 코리아'를 구성해 인니 국회·정부·지자체 등과 함께 '수도이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 수도이전에 따른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발생 전망
- 인도네시아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1-2024)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수요 창출
 - 인니 정부 자체 인프라 예산만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어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 협력 진행 중(인도네시아 국부펀드 조성 중, '21.2)

인도네시아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주요 목표

 <p>기초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주거 공간 확보 인구 비율 → 70% • 적절안전한 식수 확보 인구 비율 → 100% • 적절한 위생환경 확보 가능 인구 → 90%, 안전한 접근이 가능한 비율 15% 포함 • 산업용수 확보 증가 → 50 m3/조 • 새로운 다목적 댐 → 63 개 • 새로운 관개 연결망 → 500,000 HA 	 <p>경제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철도 → 자카르타 - 스미랑, 자카르타 - 반둥 • 화물열차 → 마카사르 - 빠리빠레 • 새 항공기 노선 → 43 개 • 섬 내 이동 시간의 축소 → 1.9 h/100 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유류도로 : 2,500 km ✓ 신규 국도 : 3,000 km ✓ 안정적인 국도의 비율 : 97% • 연결 형태의 운송 경로 → 27% 	 <p>도시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대도시의 대중교통 • 폐기물 처리 시설 접근 가능한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 접근 가능 ✓ 20 % 접근성 부족 <p>에너지 및 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인당 전력 소비량 → 1.400 kWh • 도시가스 네트워크 → 신 주택 4백만 채 연결 • 석유 플랜트 구축 및 개발 → 6곳 	 <p>디지털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용률 → 95% 지역 • 광섬유 네트워크 범위 → 60% 지역 • 아날로그 변환 → 80% 디지털 방송 • 신규 유니콘 스타트업 → 3개
---	---	---	---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재가공)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인도네시아 시장에는 거대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있는 관계로, 유력 바이어들은 브랜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이로 인해 중소기업 단독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더해서,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자재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 프로젝트 참가를 위해서는 국제인증(IC)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 중소기업들은 한국 인증만 보유해 입찰 참가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이에 따라 진출을 희망하는 산업 및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규격 및 인증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

- 한국의 대 인니 주력 수출제품이면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제품의 수출을 위해, 대기업 상사군 및 에너지·수자원·철도 공기업과의 동반 진출 모색
 - 한국 중부발전에서는 해외 공유공장 K-Factory를 설립, 인니 발전소 대상 영업·계약·통관 등 각종 제반 사항을 중부발전이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만 파견하면 되는 윈스탑 지원체계 구축 중

※ 중부발전 지원 사업(한국중부발전 남연우 차장,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터뷰, '21.9)

- '10년 이후부터 중부발전은 4곳의 운영단계 발전소에서 연간 150만불 이상의 국내 기자재, 정비분야 수출액을 달성 중이며, 세 가지 종류 지원사업을 시행 중
- 첫째, 국내 발전소에서 납품 실적과 신뢰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자재,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전소 자체적으로 견적, 입찰 및 주문을 시행하고,
- 둘째,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Track Record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 주관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에 '해외현장실증(Test-Bed) 지원사업'을 적용하여 매년 다수의 업체를 선정, 제품 현지화 비용 및 통관, 운송비를 지원하고, 운영발전소 현장실증 및 추후 판로개척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며,
- 셋째, 정부합동 공공조달 혁신제품 해외 판로개척 선도를 위해, 조달청 혁신조달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혁신조달제품 현장실증(Test-Bed)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 운영사업장 현장실증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
- 인니 기술법인은 상기의 통관, 운송, 현장설치 지원 총괄 업무를 수행 중임
- 그 외 인니 전력그룹사 대상 온라인 구매상담회 개최, 참석 등 통해 우수 국내 중소기업 기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우수활동 지원 노력 중

-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 사업의 핵심 공적원조(ODA) 프로젝트 지속 확인
 - 한국의 ODA 지원액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작년에는 1,284만 달러에 달함
 - ODA 프로젝트는 거버넌스, 교육, 교통, 수자원, 기후환경 등 인도네시아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산업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2021년 수행 프로젝트 개요

구 분	사 업 명	수 원 기 관
계속 (8건)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 컨설팅사업 (2016-2020/950만불)	공공사업추진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역량강화 사업 (2018-2021/510만불)	경찰청
	통합민원체계 구축 역량강화 사업 (UNDP) (2019-2022/500만불)	행정개혁부
	자카르타 광역권 ITS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2019-2022/550만불)	공공사업추진부
	자카르타 경전철 운영안정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2019-2022/330만불)	교통부
	한-인나-동티모르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 사업 (UNDP) (2020-2024/1,850만불)	에너지광물부
	찌따룸강 유역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2020-2024/1,000만불)	공공사업추진부
신규 (4건)	취약계층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사업 (2020-2023/700만불)	사회부
	국립대학교 ICT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 (2021-2025/985만불)	교육문화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21-2025/850만불)	법무인권부
	보고르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센터 역량강화 사업 (2021-2028/1,100만불)	교육문화부
후보 (2건)	해안쓰레기 관리정책 역량강화 사업 (2021-2023/250만불)	해양조정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양성 역량강화사업 (2022-2026/740만불)	국가암호원
	국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강화 사업 (WHO) (2022-2025/1,200만불)	보건부

자료: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 올해, KOICA에서는 거버넌스, 교육, 교통, 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 예정으로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해 KOICA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 권장

KOICA 인도네시아 2022년 사업 입찰정보 계획(안)

분야	구분	입찰명	입찰규모	입찰시기
공공행정	용역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수행(PC) 용역 업체 선정	64억원	2022년 1분기
교육	용역	인도네시아 국립대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사업 설계업체 선정	5억원	2022년 1분기
교육	공사	인도네시아 국립대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사업 시공업체 선정	82억원	2022년 1분기
교육	공사	인도네시아 보고르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역량강화사업 설계/시공 업체 선정	11억원	2022년 1분기
교육	공사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사업 사회복귀센터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28억원	2022년 2분기
환경	용역	인도네시아 께따롱강 유역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수행(PC) 용역 업체 선정	93억원	2022년 2분기
교육	구매	인도네시아 국립대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사업 기자재 공급업체 선정	12억원	2022년 3분기
교육	구매	인도네시아 보고르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역량강화사업 기자재 공급업체 선정	34억원	2022년 3분기
교육	용역	인도네시아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양성 역량강화사업 사업관리(PMC) 용역 업체 선정	40억원	2022년 4분기
환경	용역	인도네시아 해안쓰레기 관리정책 역량강화사업 사업관리(PMC) 용역업체 선정	25억원	2022년 4분기

주: KOICA 내부 계획에 따라 일부 계획 변경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확인 필요
 자료: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3-4. 문화 콘텐츠(웹툰, 애니메이션, 교육 등)

경제발전전략 및 전략적 가치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국가로서 문화 부문 활발하게 교류 중
- 한류 문화 열풍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높은 수요
- 문화콘텐츠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이 무궁무진해 양국간 발전시킬 필요성 존재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류 열풍이 가장 거세게 부는 인도네시아
 - 작년 인도네시아는 한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웹툰 등 모든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
 -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 단순한 흥미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도 한국 문화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
 - * 인도네시아 내 한국문화마을 조성,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토코피디아 메인 홍보모델로 BTS 활용 등

● 한류 열풍과 가장 연관된 분야는 문화콘텐츠 분야

- 인도네시아 모바일 콘텐츠 잠재 시장 가치는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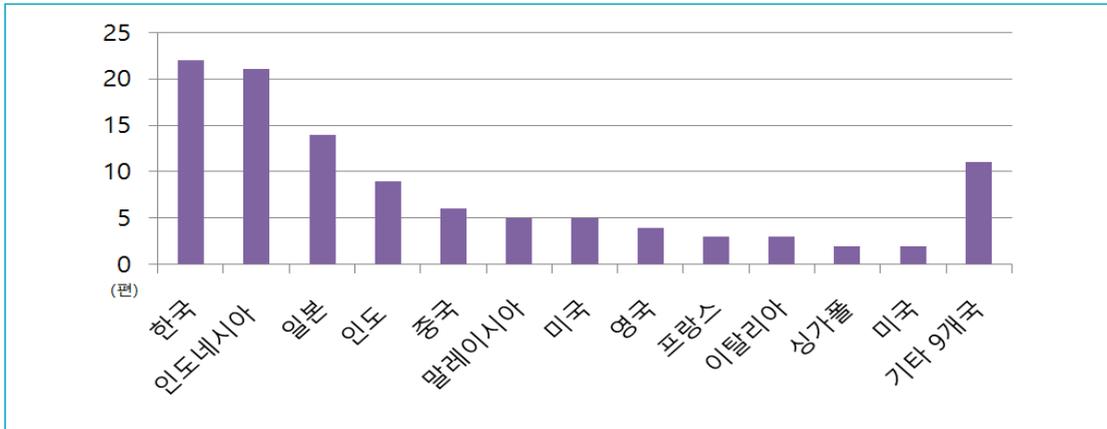
* 콘텐츠진흥원 2020 만화산업백서

- 웹툰, 애니메이션, 교육 등 문화콘텐츠 관련해 한국 콘텐츠가 높은 인기, 특히 웹툰은 현지에서 인기있는 상위 3개사가 모두 한국 플랫폼*

* 1위(라인웹툰), 2위(타파스), 3위(태피툰) 등

-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한국 애니메이션은 인도네시아 지상파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애니메이션보다 많이 방영되고 있음

2021 인도네시아 지상파 방송 애니메이션 원작국가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 교육 분야는 코로나 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수요도 존재, 한국 교육 스타트업 에누마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업 하 기초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교육 캠페인인 '에듀렘무' 시작

●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 분야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간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중

한국-인도네시아 문화콘텐츠 분야 MOU 체결 현황(2020~2021)

연번	일자	MOU명	주체
1	2021.10	이러닝 교육 지원 사업 진행	현대엔지니어링,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2021.9	지역게임 콘텐츠 동남아시아시장 진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도네시아 AKG 게임즈
3	2021.2	한류문화 전파	컬렉션코리아, 휴먼에이드포스트
4	2020.10	인도네시아 관광 활성화	롯데관광, 인도네시아 관광부
5	2020.10	인도네시아 교사 교육사업	테크빌교육, NHN 에듀(인니법인)
6	2020.10	콘텐츠 공동제작 협업	초록뱀미디어, MNC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현지 시장 동향에 능통한 역량있는 파트너와 협력
 -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100% 지분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인수합병 포함) 추천
 - 제공하려는 콘텐츠가 현지 사회·문화 관습과 충돌이 없는지, 민감한 부분은 없는지 등 확인을 위해서는 역량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추천
 -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무분별한 외국 콘텐츠 유입에 따라 인도네시아 문화가 약해진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현지 문화와 정서에 맞는 콘텐츠 제작 필요
- 현지 지식재산권(IP) 제도 미비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인도네시아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직 규정도 미비해 불법 유통 및 다운로드가 만연
 -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KOTRA IP-DESK와 현지 컨설팅펌 등을 통한 대응방안 사전 준비 필요

3-5. 스타트업

경제발전전략 및 전략적 가치

- 인도네시아는 '21.10 기준 세계 4위 스타트업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코워킹스페이스 보유
 - * COHIVE(舊 COCOWORK)는 현재 인도네시아 유명 코워킹스페이스로 발돋움함
- 조코위 대통령 방한 시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 신설로 양국간 전략적 소통 활성화 기대('18.9)
 - * 한-인니 젊은 세대의 교류 증진을 통한 취·창업 기회 확대, '19.10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영리더스 다이얼로그 개최
- 한-인니 지속가능개발 스타트업 구축 협력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 * 인도네시아는 사회적 약자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방한 시 한-인니간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 신설 촉구
 - 양국 간 젊은 인력의 교류 증대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유엔·MIKTA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합의('18.9)
 - KOTRA와 COHIVE(舊 COCOWORK)는 한-인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고 있으며, 2018년 12월과 2019년 7월에 인니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캠프를 개최했음

- 조코위 대통령은 '19년 1,000개 스타트업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
- 양국은 현지 창업 및 스타트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다양한 협력 진행 중

한국-인도네시아 문화콘텐츠 분야 MOU 체결 현황(2020~2021)

연번	일자	MOU명	주체
1	2021.10	금융상품 개발 협력	스타트업 웨이브릿지, 만디리자산운용
2	2021.9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한국사회투자, 이노베이션팩토리
3	2021.7	인도네시아 초기 창업팀 발굴	퓨처플레이, 반등공과대학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 현지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한류 문화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올해 10월부 유니콘으로 등극한 핀테크 스타트업 Ajaib은 메인 홍보모델로 한국 '스타트업' 드라마 주인공인 김선호를 활용
 - 이 외에도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토코피디아는 BTS와 블랙핑크를 홍보모델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한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주요 분야 중 하나인 핀테크 분야를 포함해 몇몇 분야는 불확실성이 존재해 한국 스타트업이 진출하기 어려움
 - P2P 분야는 지속 발전 중이나, 불법 온라인 대출 확산이 문제가 되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신규 대출허가를 중단, OJK에서도 불법 온라인 대출 감시를 확대하며 규제 증가
 - 이 밖에도 정식 근로 비자를 취득하기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인도네시아인 필수 고용 의무가 있어 소규모 스타트업 현지 진출에 애로사항임
- 더해서 코로나 19로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이 제한되어 한국 스타트업 진출 및 청년창업 부진
 - '19년 초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스타트업이 진출했으나, 코로나 19로 올해에는 거의 없는 상황
 - 대신 재택근무 형태가 확산되며 OTT 콘텐츠 분야가 발전했으며 한국 유명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인도네시아 자막을 붙여 진출하는 사례가 있음

※ 스타트업 진출 애로사항(SE 컨설팅 한중문 이사,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터뷰, '21.10)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장벽이 존재고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부담
- 회사 설립시 최소 자본금 100억 루피아(8억 원)이 필요하고, 일부 분야는 외국인 자본이 제한되어 있어 믿음만한 현지인과 사업이 필요(사기 주의)
- 더해서, 한국인 인원이 현지에 정식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노동허가외 이민국 체류허가가 필요하며 한국인 1명 당 현지인 10명의 고용 의무가 발생함
- 이와 같이 스타트업들이 현지 진출하는데 초기 장벽이 높은 편이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따라 많은 기회가 있어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진출 추천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KOTRA를 포함한 유관기관 스타트업 진출 및 창업 사업 활용
 - 한국 스타트업이 현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나, 사전 현지 기업과 협력수요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
 - KOTRA에서는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유망 스타트업 포럼 참가 지원, 현지 유망 VC 매칭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민간에서도 다양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신한금융그룹에서 운영하는 신한퓨처스랩은 정기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을 선발해 인도네시아 신한퓨처스랩에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음

※ 신한 퓨처스랩 개요(인니 신한퓨처스랩 이상진 소장,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터뷰, '21.10)

- 신한 퓨처스랩 인니 사무소는 한국에서 선발된 스타트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음
- 인큐베이팅은 VC 연결, 사무공간 제공, 현지 법/제도 교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짐
- 코로나 19로 신규 기업 선발을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발할 계획에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퓨처스랩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바람

- 지속가능개발을 목표로 한 스타트업 구축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
 - 인도네시아는 사회적 약자 고용, 농촌 경제 부흥, 환경오염 해소 및 보호 등 지역사회 환원형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 Gojek('19.9), Smash('19.9), iGrow('19.9) 사례 분석 기사 참조(KOTRA 해외시장뉴스)
 - 현존하는 지속가능개발 스타트업과의 협업 가능성 및 자금 투자, CSR활동에 관심이 높은 글로벌·현지 대기업과 엑셀러레이터로부터의 자금조달 기회를 포착해 테크 기반의 지속가능 개발 스타트업 단독 설립 등의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음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0(AKFTA)
기초화장품, 메이크업용 제품류	수입액('20/US\$백만)	195.2	대한수입액('20/US\$백만)	40.4
	선정사유	SNS마케팅과 한류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 인기상승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인니 한국산 기초화장품·메이크업 제품 수출 폭발적 증가 - 25.0백만달러(2018) → 34.3백만달러(2019) → 40.4백만 달러(2020) • 2021년 1~8월 대 인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 시장 1위 •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브랜드 진입 증가 추세 • 브랜드와 품질경쟁력이 우선시되나 최근 저렴한 중국산 급증 • 화학성분보다는 식물추출 천연성분이 들어간 기초 제품을 선호 • 한국 마스크팩 제품이 특히 인기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증가 추세 • 다만 주요 판매 채널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인니 정부 규제 강화로 더 이상 활용 불가, 정식 인증 및 통관 진행 필요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제품의 점유가 지배적 • 주요경쟁사: 로레알, 샤넬, 에스티로더, 더바디샵, 시세이도, Wardah, 바이어스도프(니베아), 유니레버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할랄인증 및 BPOM(필수) 인증 철저히 대비할 것 • 차후 시행될 화장품 대상 신할랄인증법(할랄인증여부 의무표기)에 대한 대비 필요, • 초기 진출 시 디지털 마케팅 적극 활용 • 인도네시아 기후 및 환경에 적합한 제품 개발 전략 • 역량 있는 현지 유통사와 협업을 통해 진출 		
품목명 2	HS Code	901812	수입관세율(%)	0(AKFTA)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입액('20/US\$백만)	70.3	대한수입액('20/US\$백만)	12.4
	선정사유	의료 시장 확대로 고성능 의료기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대 인니 한국산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대한 수요 지속적 발생 - 10.5백만달러(2018) → 8.9백만달러(2019) → 12.4백만 달러(2020) • 2021년 1~8월 대 인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9.23% 증가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시장 2위(1위는 중국이지만 전년 동 기간 대비 24.5% 감소) • 특히 출생율이 2명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질환 초음파 진단용으로 수요 증가 전망 • 인도네시아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진단기기 급속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중국, 한국, 일본산이 지배적임 • 주요경쟁사: GE Healthcare, Pfizer, Siemens, Philips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emens, GE Healthcare 등 현지 진출한 글로벌 의료 장비 기업으로의 수출 또는 이들 기업에 기(既)납품중인 우리 기업을 통해 간접 수출을 통한 인니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인니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품목명 3	HS Code	900130	수입관세율(%)	0(AKFTA)
콘택트렌즈	수입액('20/US\$백만)	6.0	대한수입액('20US\$백만)	2.8
	선정사유	한류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뷰티렌즈 인기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 인니 한국산 콘택트렌즈 수출 규모 - 5.3백만 달러(2018) → 7.1백만 달러(2019) → 2.8백만 달러(2020) -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한국산 제품은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 • 2021년 1~8월 대 인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95.8% 증가(5.8백만 달러) - 작년 전체 수출액의 두배 수준을 8월에 달성 • 코로나 19 안정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이 증가해 안경에 대한 수요가 줄고 꾸밀 수 있는 콘택트렌즈 수요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기업 제품이 없고 한국 제품 외 미국과 스위스 제품이 대다수임 • 주요경쟁사 : John&Johnson, Coopervision, Cibavision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비 대상이 MZ세대인 젊은 층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해 디지털 마케팅이 인지도 확보에 효과적 - 2019년까지만 해도 98%가 오프라인을 통해 구입되었으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하는 비중 증가 추세 • 인도네시아 보건부 규정 상 의료기기 C등급에 속해 보건부 인증을 위한 관련 서류 사전 준비 시 원활한 진출 가능 - 위험도에 따라 A에서 D로 구분하며, D가 가장 위험한 제품 		
품목명 4	HS Code	730791	수입관세율(%)	0(AKFTA)
플랜지	수입액('20/US\$백만)	35.0	대한수입액('20/US\$백만)	11.4
	선정사유	코로나 19로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에 따라 필수 장치인 플랜지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 인니 한국산 플랜지 수출 규모 - 3.7백만 달러(2018) → 2.8백만 달러(2019) → 11.4백만 달러(2020) - 코로나 19로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한국산 제품은 '20년 전년 대비 300.6%가 증가한 11.4백만 달러를 기록해, 인니 최대 수입국 - 한국기업의 정유공장 수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 • 2021년 1~8월 대 인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4.7% 감소(5.3백만 달러) - 해당 부분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전수입승인 쿼터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정유 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장치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내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장치산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예상에 따라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기업 제품과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 다양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 프로젝트 수주 동향 면밀 파악 - 프로젝트 수주 국가에 따라 관련 부품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 점점 강화되는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대비 필요 - 사전수입규제 물량 축소 추세, 국산부품사용우선비중 등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 기업의 EPC 프로젝트나 ODA의 경우 해당 규제를 극복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증가하는 인니 정부의 규제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 필요 		

III. 진출전략

품목명 5	HS Code	190531	수입관세율(%)	0(AKFTA)
비스켓(과자)	수입액('20/US\$백만)	28.7	대한수입액('20/US\$백만)	2
	선정사유	한류 인기에 따라 코로나 19에도 수요 급증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드라마에 나온 식품 중 과자 수요도 같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로 전체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한국산 과자만 수입이 급증 - 2020년 한국산 과자 수입은 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4% 증가 - 1위인 태국(14.8백만, -13.5%), 2위인 말레이시아(7.4백만, -30.5%) 모두 감소 • 2021년 1~8월 대 인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1.5백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 시장 3위 기록 중 • 한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과자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산,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산이 주로 시중에 있으며 최근 벨기에 제품도 증가 • 주요경쟁사 : Indofood, Garudafood, Kraft Foods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한류를 심분 활용한 마케팅 추진(드라마 및 인플루언서 물품 홍보) 		
품목명 6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0(AKFTA)
라면	수입액('20/US\$백만)	29.2	대한수입액('20/US\$백만)	15.3
	선정사유	화장품과 같이 한류 열풍으로 인한 인기 지속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로 2020년 수입량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수입 점유율은 독보적으로 1위 유지 중 - 2020년 한국산 라면 수입은 15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감소 -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52.3%로 독보적 1위 차지 중 • 2021년 1~8월 대 인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8.9백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 시장 1위 기록 중(점유율 48%) • 한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라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 '오징어게임' 인기로 오징어짬뽕의 수요가 증가 - 맛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로,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활용하는 라면이 인기를 얻고 있음(불닭볶음면, 짜장면 라면 등)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산 현지 라면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삼양(불닭볶음면)도 3~4위 수준 유지 중 • 주요경쟁사 : Indofood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한류를 심분 활용한 마케팅 추진(드라마 및 인플루언서 물품 홍보) 		
품목명 7	HS Code	2208	수입관세율(%)	170(AKFTA)
소주, 맥주 등 주류	수입액('20/US\$백만)	5.1	대한수입액('20/US\$백만)	1.8
	선정사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급증하는 제품 중 하나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소주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로 2020년 수입량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수입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위 기록 - 2020년 한국산 소주 수입은 1.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 -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35%로 영국을 제치고 1위 기록 - 한국산 소주 수입액은 2017년부터 2020년 연 평균 46%씩 증가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8월 대 인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0.6백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 시장 2위 기록 중(점유율 33.7%) • 소주 음용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틴진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소주 음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소주 음용률은 2020년 74.8%로 2016년 대비 65.8%p 증가해 홍콩에 이어 2위를 기록 - 수도 자카르타에 진로 참이슬을 전면에 내세운 참이슬 카페 운영 시작('21.11)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Smirnoff Red, 현지 바람소주 등 다양한 제품 판매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높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선납법인세 그리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소비세는 알코올 도수 별로 세금 부과 비중이 달라 사전에 파악 필요 • 한류를 심분 활용한 마케팅 추진(드라마 및 인플루언서 물품 홍보)

첨부 2 >>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건설 서비스	선정사유	각종 인프라 추진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건축 협회(Asia Construction Loo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잠재력이 큰 건축 시장으로 선정 • 정부 및 민간 발주 건설 프로젝트가 많아 이에 따른 건설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 - 제 4차 국가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추진 예정 - 35,000MW 규모의 전력발전소 추가 설립 프로젝트의 지속, 전 국토 광케이블 통신 연결 완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기업 : Wijaya Karya, Waskita Karya, Pembangunan Perumahan, Adhi Karya • 민간 기업 : Nusa Raya Cipta, Total Bangun Persada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포함 각종 기관 진출지원사업 참가 • 양국 경제협력사업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ODA/EDCF 등 사업 동향 파악
품목명 2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2014년 공보험 체계 도입, 최첨단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헬스케어 및 보험서비스시장 규모는 172억 1,3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성장* * 유로모니터(2019.10) • 병원 시설 확충 프로젝트가 민간협력사업(PPP) 형태로 발주되며, 해당 시설은 국립암센터, 대학 병원 등임 • 애플리케이션 기반 온디맨드 헬스케어 서비스 등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 인력 부족
	경쟁동향	Siloam Hospital, Medistra Hospital, SOS Medika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 진출의 대부분은 외국인 지분율이 67%로 제한되어 있어, 진출 전 합작 파트너를 신중히 물색 • 헬스케어 공급망, 의료기관 의료기록 전산화, 원격진료, 고성능 통신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IT 분야 협력 • 제조·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분야 진출

III. 진출전략

품목명 3		
교육 서비스	선정사유	인도네시아 교육 수요에 맞추기 위한 온라인 교육시장 협력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는 전체 평균 연령이 31세로 SNS 사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 • 인터넷 사용자가 10년전보다 7배 증가한 1.7억명이고,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8천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음(statista) •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조코위 2기 정부는 교육 서비스의 발전에 관심이 많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테크서비스 종합 플랫폼 : Ruangguru • 튜터 매칭 플랫폼 : sukawu, PrivatQ • 교수활동 관리 플랫폼 : HarukaEdu, Kelase, Class Kita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공동 자격증 추진, 한-인니 고등교육 교환 제도 지원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콘텐츠 보급, 유/무선 접속 시스템 구축, 한류 활용 교육프로그램(한국어) 수출 등
품목명 4		
금융 서비스	선정사유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기술수요 ↑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 - '20년 인터넷 경제 규모는 440억 달러로 '19년 대비 11% 증가 • 인도네시아 국민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약 50%인 상황으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2019년에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막론하고 핀테크(Fintech)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 • 전자지갑(E-Wallet), P2P대출 서비스 사업이 성행 중이나 최근 정부 규제가 일부 강화되고 있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분야 불법 추심 문제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이 신규 P2P 라이선스 발급 취소 조치(10.26)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은행 : BRI, BNI, BCA, Bank Mandiri, BTN, BII 등 • 외국계 은행 :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UOB, 미쓰비시 도쿄 등 • 핀테크업체 : Buka Dompot, Doku, Inapay iPay 88, iPayMu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추천, 할부금융, 핀테크 기반 지불결제서비스, 카드사업 등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진출을 위해 엑셀러레이터나 그룹사 등 투자자 물색을 권장 • 인도네시아 정부 은행·보험 업무 효율화 컨설팅 사업에 참여
품목명 5		
콘텐츠 (웹툰/애니)	선정사유	한류 문화의 핵심 분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인기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모바일 콘텐츠 시장 잠재가치는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웹툰과 애니메이션은 인도네시아 내 한류 열풍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분야 중 하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웹툰, 애니메이션 현지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콘텐츠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주로 진출 • 인도네시아 로컬 콘텐츠 비중은 최근들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국·미국·중국 등 해외 콘텐츠가 더 인기를 끌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장에 능통한 역량 있는 파트너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외국인 자본 투자가 가능하나, 현지 민감한 콘텐츠 이슈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파트너사와 협업 권장 • 사전 지식재산권 등록 등 법적인 문제 대응방안 마련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현지 대기업 수요맞춤형 파트너링 확대	글로벌 및 로컬 챔피언 수요 발굴 맞춤형 상담회	'22년/미정
2		분야별 특화 핀포인트 상담회	'22년/미정
3	한류 확산 활용 소비재 시장진출 심화	인도네시아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22년/미정
4		인도네시아 첫 진출 희망 기업 테스트마케팅 사업	'22년/미정
5		온라인 판촉전 O2O 전시 연계 상담회	'22년/미정
6		온라인 전시관 상설 운영	'22년/미정
7	헬스케어 분야 시장 수요 적극 대응, 양국간 경제협력사업 이행 지속	국영제약사 협업 웨비나 및 상담회	'22년/상반기
8		GVC 재편대응 한국 유망기업 상담회	'22년/하반기
9		양국 보건의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웨비나, 상담회	'22년/하반기
10	중소기업 상생협력, 인니 낙후지역 지원	분야별 수출 애로기업 진출상담회	'22년/하반기
11		국내 식품분야 소상공인 인도네시아 유통망 입점 지원	'22년/하반기
12		현지 진출 한국기업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공헌활동(OVOP)	'22년/연중
13	인니 수도이전 및 스마트시티 협력기회 발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발굴	'22년/상시
14		스마트시티 온라인 로드쇼	'22년/하반기

* 차년도 계획은 현재 수립중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참가 전 무역관 문의 필수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경제 일정 (22년)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없음('24년 대선 및 총선 예정)	-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G20 정상회의	'22.11	의장국
P20 의회회의(G20 연계)	'22.09	G20개국 국회의장 대상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Indo EBTKE conex(신재생에너지)	'22.11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추진 방식 변경
Electric and Power Indonesia(신재생에너지)	'22.11	
Trade Expo Indonesia(정부주관 종합)	'22.09	
Solar Tech Indonesia(신재생에너지)	'22.03	
Indonesia International Trade Show for Automotive Industry(자동차)	'22.03	
Indonesia International Auto Show(자동차)	'22.11	
International Smart City(스마트시티)	'22.07	
ALL Pack Indonesia(포장, 제조)	'22.10	
COSMO Beauty(화장품)	'22.10	

I. 시장평가 및 주요 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도네시아 국별 인수방침

신용장	무신용장
정상인수	정상인수

* 현 국별 인수방침은 '21.12.29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국별조사팀(02-399-7177)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ksure.or.kr:8443/research/content/contentViewD.do?brdUpperCode=A>)

■ 주요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정상인수	별도의 인수제한조치 없이 인수하는 것을 의미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박승석	과장	자카르타무역관	021-574-1522	ss.park@kotra.or.kr
2	Fitri Arifenie	Specialist	자카르타무역관	021-574-1522	matahari272@gmail.com
3	Liemertha Garry	Specialist	자카르타무역관	021-574-1522	garry@kotra.or.kr
4	Raisha Shadrina	Specialist	자카르타무역관	021-574-1522	-
5	Rischa Riahta Purba	Specialist	자카르타무역관	021-574-1522	-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KOTRA자료 21-231

2022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발행처 KOTRA

발행인 유정열

편집인 경제통상협력본부

발행일 2021년 12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06792)

전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086-3 (95320)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2022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